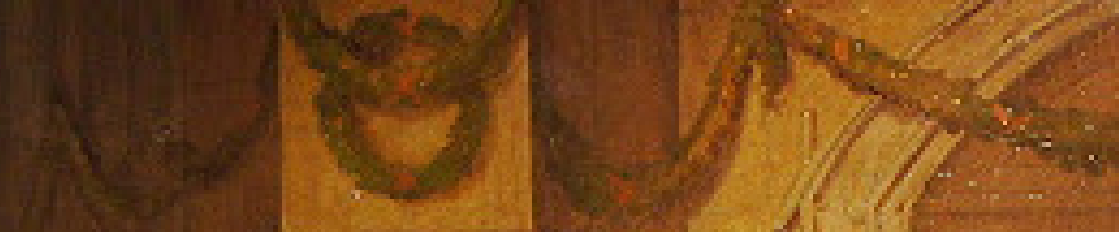


교회사반 교재

역사를 알아야
내일을 안다

- * 초대교회의 역사
- * 속사도시대의 역사
- * 니케아시대의 역사
- * 중세교회의 역사
- * 근대교회의 역사
- * 한국교회의 역사





목차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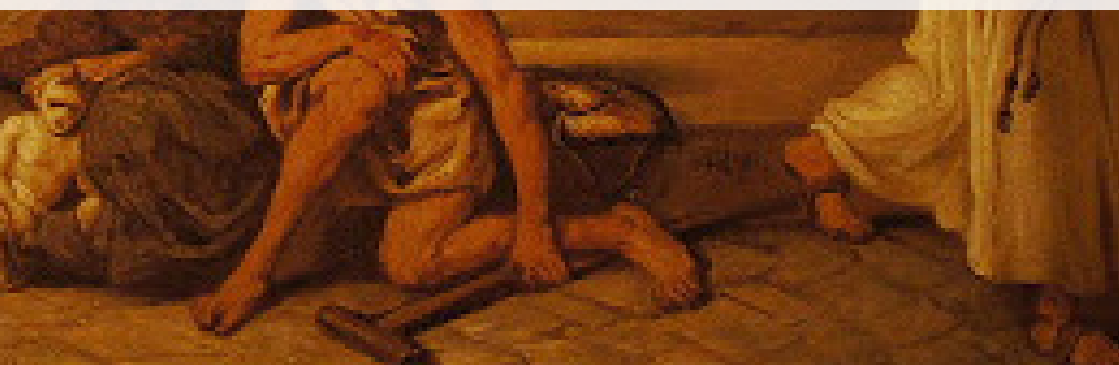
제 1 부 초대교회의 박해 _ 5

제 2 부 니케아회의 시대 _ 59

제 3 부 중세시대 교회사 _ 128

제 4 부 근대시대 교회사 _ 203

제 5 부 우리나라 교회사 _ 246







1 장

/

초대교회의 박해

제 1 장 초대교회의 박해

훈련 목적

- *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 역사를 이해한다.
- * 시대별 교회 역사를 이해한다.
- * 올바른 선교관을 이해한다.
- *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경을 읽는다.
- * 교회 역사에 관한 도서를 읽는다.
- * 교회 역사에 관한 영상물을 시청한다.
- *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 * 교회가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운 것임을 인식한다.

1. 초대교회의 역사(AD 60-70년)

가. 서기 64년

- 1) 로마는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불길은 로마제국 수도 거의 대부분에서 육일동안 밤낮으로 걸잡을 수 없이 타올랐 다. 이 화재로 거대한 도시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다. 로마의 고대 유명한 건축물들이 화염속으로 사라졌고, 공포에 사로잡힌 수만 명의 로마시 민들은 집을 잃고 재산도 몽땅 잃게 되었다. 자신의 궁전 지붕 꼭대기에서 네로 황제는 이 끔직한 전경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 2) 로마 시민 중 일부는 이 사건의 진위를 의심했다. 그들은 잔인하고 광적이며 미친 네로 황제가 개인적으로 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믿었다. 네로는 자신을 위대한 건축가로 착각하고, 오래된 로마시를 없애버리고 새롭고 더 웅장한 도시 즉 네로의 로마를 건설하길 원했다.
- 3) 황제 자신이 화재를 계획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네로는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 그는 책임을 전가시킬 누군가를 빨리 찾아야만 했고 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네로는 새로운 종교단체 -로마의 그리스도인- 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켰다.
- 4) 그것은 근거가 있는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경멸받고 비난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대 로마인들의 숭배와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절했다. 그들이 전하는 새로운 왕에 관한 이야기는 반역처럼 들렸고, 또한 영향력과 권력도 없었기에 희생양으로서는 완벽한 존재였다.
- 5)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처벌을 명령했다. 드디어 피흘림이 시작된 것이다. 황제는 아무 죄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한 고문과 핍박을 가하였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 못박히고 다른 이들은 동물 가죽에 덮인 채로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개들에게 찢겨 죽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의 정원에서 열리는 파티의 불을 밝히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해야만 하였다.

- 6) 수년동안 박해는 극성을 떨쳤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이 끊임 없이 되풀이 되는 시기가 되었다. 네로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중에는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있었다.

나. 제자들의 순교

- 1) 수년동안 사도 바울은 여러 참된 교회에 앞으로 닥칠 박해에 관하여 여러 번 경고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켰다(딤후 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3:12)

- 2)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편한 곳이 아니었다. 바울 자신도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20년 이상 전 로마제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며 인내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고난이 끝날 때가 가까워졌다.

- 3) 네로는 자신의 신하에게 바울의 사형 소식을 전하도록 보냈다. 잠시 후에 군인들이 도착 하여 바울을 사형집행하기 위해 도시 밖으

로 끌고 갔다. 바울은 겐에 자신의 목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는 오스티언 가에 묻히었다. 그때는 서기 68년 이었다. 그리고 초여름이었다.

- 4)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서기 68년에 순교하였다. 그는 수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요21:18-19). (참고-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전통적인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말이다. 바울서신에서는 로마에 있었던 바울사도가 로마에서 베드로를 만 났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다.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의 교황권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다. 또한 베드로의 무덤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다.

다. 유대인들의 반란

- 1)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진리의 전파와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고, 핍박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 하지 못했다.
- 2)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예루살렘 역시 혼란의 와중에 있었다.
 - 서기 66년, 식민통치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군사적 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눅21:20-21)를 마음에 새겼던 유대의 그리스도인

들은 산으로 도망갔다.

- 서기 69년 봄에 로마의 타이투스(Titus) 장군은 자신의 군대로 요단강의 동쪽부터 휩쓸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길리아드 산맥에 위치한 펠러시의 북동쪽으로 피신함으로써 임박한 재앙을 모면하였다.
- 서기 70년 타이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그는 성전을 불태우고 기초석까지 파괴 시켰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약110만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수십만명의 유대인들은 노예로 팔려갔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잔혹한 재난이었다!

라. 재림은 곧 일어날 것인가?

- 1) 로마와 유대 그리고 전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변동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었을까? 비록 많은 이들이 집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가족과 친구를 빼앗기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 2)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들의 훗날에 받을 영광을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을 견디었다. 모든 사태가 그들을 위협할수록 그들은 숨을 죽이고 예언의 성취를 기다렸다.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눈

에 그리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마가가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자(막 1:14-15).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1:14-15)

- 3) 예수님은 가시는 곳 어디에서나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주로 전파하셨다. 12제자들 역시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눅9:1-2).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행19:8, 20:25, 28:23,31).
- 4) 1세기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 그대로의 실제적인 국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 국가는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를 대신할 하나님이 통치하는 참다운 국가였다.
- 5)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임할 이 나라에 대한 많은 성경 예언들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자세히 말하곤 했다. 그들은 그 예언의 성취가 눈앞에 이르렀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다니엘 선지자는 인류 역사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할 네개의 세계제국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그것은 바벨론(Babylon), 메데 파사(Medo-Persia), 그리스와 로마제국이다.
- 6) 다니엘은 이 지상의 왕국들이 소멸된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단 2:44). 이 왕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로마제국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킬 것이다.. 이러한 일이 곧 일어나리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했다.

- 7)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사2:4), 로마제국 전역에 걸쳐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창과 검을 쳐서 보습(쟁기)과 낫을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시리라고 여겼다(사9:6)
- 8) 그리스도인들은 고대의 의인들이 4,000년 이상이나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리라고 고대하였다. 서기 66-70년 사이의 사건들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였다.

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 1) 예수님이 땅에 계실 동안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어떤 귀인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다(눅19:11- 12).
- 2) 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 되시려고

태어나셨다. 그러나 그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요 18:36). 예수님은 훗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되돌아 오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빌라도가 이해한 것 이상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였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행1: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대답하셨다(행1:7).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능을 주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 3) 40년 이상, 제자들은 로마와 아시아 그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 언하신(마24장) 시대말의 사인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 4) 서기 69년에 내란으로 말미암아 로마는 멸망의 기로에 놓인 것 같이 보였다. 전쟁, 도덕 적 타락, 사회현상의 대변동, 경제적 위기감, 정치적 와해, 종교적 혼란, 자연 재해 등 이 모든 사태가 끝이 가까워진 것을 증거하는 것 같았다. 로마 사회 구조가 와해되고 있었고 부 패하고 타락해 갔다. 확실히 예수님은 이 모든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제국이 다니엘이 예언한 네번째 짐승(단7장)이라고 확신했다. 이 네 번

째 왕국이 혼란의 와중에 있었기에 ,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해야만 했다.

- 5) 끔찍한 박해와 순교 그리고 자연재해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부활(고전 15:50-53)을 기다렸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눅19:17-19)을 고대하였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요14:3)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불행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당시에 임하지 않았다.

바. 의문점들

- 1) 서기 66-70년 사이의 격변하는 사건들이 있는 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자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당황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에 빠졌고 용기를 잃게 되었다. 예수님이 재림하리라고 확신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문에 빠졌다. 교회는 시련을 당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고민스러운 결정을 해야만 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 2)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부딪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리라고 믿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기다려왔다. 서기50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살전4:15)라는 편지를 하였다. 5년 후 고린도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고전 15:51)

그러나 죽기 직전에 디모테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전과 다른 말을 하였다. 그는 현재가 아닌 미래시제를 사용하면서 "말세(마지막 때)"에 관한 말을 하였다(딤후3:1-2).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4:7-8)

3) 위에서 바울은 훗날에 받을 면류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과는 달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고 용기를 잃었다. 그들은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어디 있는가?"라고 불평했다.

4) 이와는 달리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이들이 닦칠 문제를 미리 아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말씀하신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선행을 격려하며 기다렸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러므

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2,44)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얻을 "끝까지 견디는 자"(마24:13) 들이었을 것이다.

- 5)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요21:22)을 잘못 이해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언젠가는 재림하시리라고 믿었다(요21:20-23). 요한이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오래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따랐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 않았다. 그들은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다. 그들은 다른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눈을 삶의 진정한 목적과 복음의 진리로부터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에 가졌던 긴박감을 상실하고 옳은 길에서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혼돈상태에 있었고 상처받기 쉬웠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진리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고 또한 어느 때라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초기 기독교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고대 바벨론 이교의 사악한 누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사. 다른 복음

- 1)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었다. 또한 당황하고 상심한 그리스도

인들은 쉽게 늑대에게 먹히게 되었다. 거짓선생은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도 있었다. 서기 50년 이전에 바울은 데 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진리를 대신하기 위한 음모가 진행중이라고 경고했다(살후 2: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 라"(살후2:7)

- 2)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인들에게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님이 전 파하신 진실한 복음을 짓밟으려 한다고 경고했다(갈1:6-7).
- 3)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이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후11:4)고 말했다.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이며 사탄의 역군이라 불렀다(고후11:13-15).
- 4) 바울은 자주 교회들에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마24:4-5,11)을 상기시켰다. 적은 무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 기독교로 가장한 거짓 믿음에 속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 5)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이 사실로 나타났다. 사태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거짓 선생들이 가 르치는 잘못된 진리는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켰다. 이교의 교리와 잘못된 가르 침에 의해 당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알아채지 못했지만, 교회의 분열은 이미 수 십년 전에 거짓 누룩을 심은 한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열매에 불과한 것이었다. 지금부터 이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 마술사 시몬

- 1) 사마리아 출신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클로디오스(Claudius)황제 시대인 서기 45년에 로마에 나타났다. 이 시몬은 바벨론 종교의 후예인 사마리아 비밀 종교(계17:5)의 제사장이었다. 이 비밀종교는 이스라엘이 앗수리아에 포로로 잡혀간 후 앗수르아인들에 의해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온 것이다(왕하17:24). 시몬은 여러가지 기적으로 로마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래서 여러 잡신을 섬겼던 시민들은 그를 신이라고까지 여겼다.
- 2) 로마에 가기 이전인 서기 33년에 사마리아에 있었을 때 시몬 마그우스(Siman Magus)는 기독교인들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진실한 믿음도 없이 집사였던 빌립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 시몬은 진심으로 전에 마술사로서 가졌던 명성과 영향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사도들에게 그들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요청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을 심하게 꾸짖고 그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라고 경고한 후, 그를 회개케하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금하였다 (행8장).

- 3) 몇 년 후 로마를 여행할 때, 시몬은 서구세계에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음모를 꾸몄다. 그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추종세력을 갖는 것이었다. 그는 바벨론 이교신앙과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가 혼합된 자신의 가르침을 위장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했다. 그는 자신의 사악한 교리를 기독교로 장식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의식을 이용했다.
- 4) 그가 죽을 때 즈음에 시몬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유혹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혼합된 교리에 매력을 느낀 어떤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교회안에 숨어들어와서 시몬의 가르침을 은밀히 소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희생이 되었다. 서기 62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교회내에서 시몬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그가 한 것을 폭로하였다.
- 5) 시몬의 잘못이 나타남에 따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 두었지만 계속해서 그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다. 그들은 더 이상 시몬파로 불리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그의 교리를 추종하고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을 전파하는 것으로 가장했으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
- 6) 몇 년 후에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는 시몬파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유 1:4).

- 7) 그리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1:3)고 간곡하게 타일 렀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일찍이 예언한 것처럼(행20:29-30),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처한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만심과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진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 8) 이교가 교회안에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때로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도 있었으나 어느 경우에는 너무 미세하게 그리고 서서히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분별하기가 어려웠다.

자. 새로운 계시

- 1) 교회 안에 침투한 이교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사도 요한이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는 부지런히 그릇된 생각과 누룩의 침투를 막았다.
- 2) 서기 75년경에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요이1:7)라고 기록했다.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났다고 말했다(요일 2:19). 요한은 어떤 배교한 교회 지도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기록했다 (요삼 1:9-10).

- 3) 로마의 도미티안(DOMITIAN) 황제의 박해 기간 동안에 요한은 에게해에 있는 밧모 (PATMOS)라는 섬으로 유배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몹시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를 통하여 요한은 미래에 있을 주의 날 즉 하나님의 불의하고 죄악된 이 세상 나라에 재앙들을 보내시고 심판하실 날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재앙들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절정에 이를 것이다.
- 4)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본 일련의 사건들은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 계시에는 놀랍고 거의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머리가 여럿 달린 짐승과 거대한 군대들 이상한 새로운 무기 재앙들 그리고 끔찍한 자연재해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차. 새로운 인식

- 1) 계시록이 쓰여지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전에 믿었던 것처럼 임박한 것이 아 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 전에는 희미하던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들이 이제는 분명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사 건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 세기 아니 천년 이상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 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마24:22)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이히 여겼다. 그들은 모든 인류를 다 전멸시킬 수 있는 창과 화살을 어떻게 구할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 2)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해답을 제시해 준 것이다. 앞으로 미래의 어느 날에 요한이 이상한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 같은, 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초강력 무기가 전인류의 멸절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래의 어느 날이지 초대 교회의 시대가 아니었다. 예루살렘이 다시 군대들에게 짓밟히고(눅21:20), 서기 66-70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즉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후를 가르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진리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천국이 이땅에 이루어졌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3) 서기 96년에 요한은 유배에서 풀려났다. 남은 생애 동안에 요한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제실때처럼 교회에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힘썼다.

- 4) 1세기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믿음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려 하였다.

2. 바울 이후의 초기 기독교(AD 60-100년)

가. 50-60년대

- 1) 이때 팔레스타인 내에서는 반 로마적인 저항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된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이 영향을 받는다. 행 12,1 이하에 나오는 헤롯왕에 의한 (정확히 말하면, 아그립바 1세, 41-44년 통치)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처형, 베드로의 감금 등은 비록 40년대의 사건이긴 하지만 이러한 당시 사회분위기를 반영한다.
- 2) 혹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본다. 그리고 갈 2장에서 초대교회의 기둥 중의 하나로 다시 등장하는데 (9절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는 사도회의를 계기로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머문 것이라고 한다. 이 주장이 맞는지 여부는 판단보류하고 남겨 놓는다.
- 3) '교회의 기둥'의 순서에 야고보가 게바 (베드로)보다 먼저 나오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당시 교회의 주도권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잡고있었던 것 같다. 야고보는 4 복음서에서 예수의 집안을 언급하는 구절에서 (막 6,3이하 그리고 병행구) 만 나오다가 고전 15,7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람들의 리스트에 등장하고 갈 2에 '교회의 기둥'에 첫 번째로 거명되는 것을 보아, 예수님 살

아생전에는 적극적으로 예수운동에 가담하지 않다가 예수님 사후, 예수부활의 사건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활동했고 예수의 혈육이자, 친형제라는 이유로 예루살렘교회를 이끄는 지위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

- 4) 40년대에 베드로만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았고, 야고보가 보낸 사 람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기독교인들과 공동식사를 하다가 다시 이방인, 유대인으로 나누어 식사를 하게되는 것을 보면 (갈 2,11이하 -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믿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같다고 보고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식사를 하도록 했다) 야고보의 경향은 복음을 믿되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는 견해를 (유대기독교의 입장) 가진 것 같다 (이런 이유로 40년 대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지 않는다. 물론 그도 대제사장 한나스에 의해 62년 처형될 때 죄목이 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요세프스의 Ant 20,200이하 참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한 베드로가 아니라 (갈 2,11이하 참고) 야고보가 40-50년 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실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추해 볼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위에서 말한 팔레스타인의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특별히 이방인에게 율법이 계속 유효한 가의 문제에 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50년대의 분위기를 알려면 요세프스의 유대전쟁사 2,254이하를 참조).

나. 유대전쟁 (66-70) 이후의 유대기독교

- 1) 유대전쟁과 성전멸망: 유대 땅에서는 기원후 50대 이후부터 젤롯당을 중심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저항의 물결이 점차 거세진다. 결국 66년 유대 전역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전면전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 항쟁은 로마의 군사력 앞에 처참히 분쇄되는 것으로 끝난다.
- 2) (예루살렘 성전 파괴: 기원후 70년). 그 후 3년을 끌며 최후의 일인 까지 저항했던 사해근처 맛사다 전투를 끝으로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저항운동은 비극적으로 종결된다. 이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 로마 전 제국으로 흩어진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는 급속히 초대교회사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 버린다. 그리고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이후 기독교 전파의 중심이 된다.

다. 영향력 감소

- 1) 성전멸망은 유대교에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교 성립은 성전멸망이후이다. 하지만 편의상 사용한다)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한 유대기독교에 큰 타격을 준다. 예루살렘은 구약의 예언

에 따르면 장차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재림할 곳ियो (롬 9,33; 11,26),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되기에 (롬 15,19), 이방인은 예루살렘에 복음의 빛진 자들 (롬 15,27)로 이해되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기독교사 모태요, 출발점이라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자리잡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주로 유대인기독교인) 생각하였다. 실제로 행의 여러 기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교회에 대해 정도에 따라서는 비판적이었던 바울의 서신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초대기독교사에서 가진 권위가 (갈 2,11이하) 확인된다.

- 2)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예루살렘의 함락은 예루살렘교회가 가진 위의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쪽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가 이전에 가졌던 초대기독교 내에서의 위상이나 영향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 3) 그러나 성전 멸망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내에 유대기독교가 남아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더 이상 멸망 전의 예루살렘교회가 아니었다. 주 세력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3,5,3의 전설같은 이야기에 의하면 성전 멸망 직전 계시에 의해 펠라로 (요단 동편의 헬라도시) 옮겼다고 한다. 어찌되었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초대교회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막 13,14이하에 그러한 암시가 엿보임).

다. 몇가지 주의할 점

- 1) 그렇다고 해서 유대기독교가 전멸했다고 말해서는 않된다. 우리는 유대기독교와 관련해서 몇가지 편견을 갖기 쉽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부 이래로 (이레네우스 이래로) 바울신학의 영향을 받아, '율법에서의 자유'를 표방하는 이방기독교가 옳다고 보고, 유대기독교를 율법을 옹호하는 유대교의 한 갈래로 보면서 이들을 이단시하거나 최소한 색안경을 쓰고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혹은 보통 성서에 있는 자료만으로 초대기독교를 재구성하려하면서 유대기독교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잘못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 만을 가지고). 이 결과 기독교사는 현재히 축소되어 버린다. 즉,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기독교와 바울 중심의 헬라기독교 간의 대립 (바울) 내지 협력을 통해 (행)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로마 쪽으로 진출, 확장되는 작은 그림을 그리기면서 유대전쟁 이후에 유대기독교는 존재가 미미하다고 간단히 생각해 버린다.
- 2) 그러나 헬라쪽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은 특별히 바울의 지휘 하에서 만 (행의 기본구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 중 한 부분이다. 유대 명절에 (특별히 유월절에) 당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제사들 드리러, 혹은 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들은 여기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하던 아니면 소문으로 들던 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언어의 차이로 아람어 중심으로 예배드리던 교회와 헬라어

로 예배드리던 교회가 -엄밀히 말하면 개인 집, 한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 20-30명에 불과- 각각 여러개 있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각자 살던 곳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 (참고 행 11:19이하 "때에 ...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 주 예수를 전파하니..."). 혹은 각 헬라교회나 예루살렘교회도 전도자를 파송한다 (행 11:27; 갈 2:11이하; 행 13:1이하). 즉, 복음전파는 동시다발적이며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거쳐 이루어진다.

- 3) 그리고 (바울서신에 의거) 유대기독교와 이방인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도 않된다. (바울에 의하면 유대적 기독교는 복음에 의해 자유인이 된 이방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속박시키는 것이다 - 예: "...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갈 2:4,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 3:3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5,1). 그러나 마태복음의 "이 악한 자들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들, 즉 유대인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세로 줄찌니이다" 마 21:41,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 세례를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마 28:19)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 5:17),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또 그같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9)의 두가지 견해는 (적어도 바울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서로 상치되는 이야기가 같이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율법준수와 이방인이 마태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을 이미 그 구성원으로 상정하면서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 어떤 갈등도 내비치지 않는 도마복음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즉, 바울적인 잣대로 만 유대기독교를 보면 이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하거니와 초대교회를 서술할 때도 편협되고 제한된 그림을 그릴 수 밖에 없게 된다.

라. 유대교와의 관계

- 1) 초대교회사 '신약관련역사(개요)'중 "바리새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대교" 항목에서 일부 밝힌 대로 성전멸망은 당시 유대교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엄밀한 의미의 유대교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멸망전까지 유대교는 성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느슨한 연계상태였고 내부에 다양한 분파들이 많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등)
- 2) 성전이 파괴는 지금까지 유대교를 결집시켜주던 핵심이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대교를 잇는 정신적인 지주

로 경전을 정한다. (90년 지중해 연안의 도시 얌니아에서 구약이 확정된다) 그리고 성직자계급의 사두개인들 대신 평신도들인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잡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경전이요, 그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는냐 였다. 대표적인 학파로 개방적인 힐렐과 엄격한 샴마아이 두 파가 있었다. 그리고 유대교 내의 이단들을 척결, 청소하는 작업이 벌어진다.

- 3) 이와 관련 아주 유용한 자료가 하나 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드렸던 18개로 이루어진 기도문 중에 12번 째 기도문: "변절자에게 희망이 없게하시고 폭력의 나라를 우리의 시대에 주님께서 근절하소서. 나사렛인과 이단자들은 이 순간 죽게하소서. 그들은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의인과 함께 계수되지 말게 하소서. 폭력을 행하는 자를 무릎꿇게 하시는 야훼여 찬양을 받으소서"
- 4) 이런 와중에 지금까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유대교 내에 있었던 유대기독교는 (바리새인 주도하의) 유대교에서 쫓겨난다. '마태복음 연재'에서 여러차례 밝힌 것 처럼 마태복음 내에서 유독 예수와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많은 것은 마태의 공동체가 그런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에 의해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도 바리새인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성전멸망이후의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요 9:22, "그

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요 12:4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 16:2).

- 5)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율법준수의 문제에 개방적이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헬라지역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혹은,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정결법이나 율법조항들을 준수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주위환경은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방지역이었고 따라서 자의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혹은 유대교에 의한 박해로 (참고: 스테반의 박해) 유대교와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유대기독교는 율법에 충실했고 따라서 다양한 분파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내에 주후 70년 까지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성전 멸망이후 바리새인들에 의해 유대교가 강경노선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예수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믿는 유대그리스도인들은 사교로 몰려 유대교에서 추방당한다.

마. 유대기독교의 존재

- 1) 사도행전은 서방쪽으로 (즉 로마쪽으로) 진출하는 바울 중심의 헬라기독교에 관해서만 다루며 (요단) 동쪽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바울이 회심후에 아라비아로 갔다는 사실은 [갈 1:17] 비록 바울적인 공동체인 하겠만 아라비아에도 교회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게한다. -단, 바울이 거기서 선교를 했다는 가정 하에)).
-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리아에 초기 단계부터 유대적기독교적인 성향의 공동체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유대적인 경향의 마태복음,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도 (비록 전적으로 유대기독교를 대변한다고 볼수는 없지만) 유대기독교가 존속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 3) 그리고 150년 경의 주교 Papias von Hierapolis에 의하면 "선교사 빌립은 소아시아에 정착했는데 이는 예루살렘교회에 속한 이가 소아시아로 온 것이다"라는 설명이나 교부들의 글에서 언급되는 "나사렛복음서", "에비온복음서" 혹은 "히브리복음서"등도 유대기독교 공동체의 계속적인 존재를 시사한다.

바. 예루살렘 내의 유대기독교 공동체의 최후

- 1) 초대 교부 헤게집의 글에 의하면 야고보의 처형이후 예수의 친척인 클로파스의 아들 시몬이 그 뒤를 이어 예루살렘교회의 수장이

된다. 그는 이 공동체를 펠라로 옮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끌어 온다.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 (81-96년) 예수의 친척들은 황제로부터 심문을 받았으나 무죄로 판명받고 풀려 나온다 (교회사 3:10). 시몬은 107년 유대교의 한 분파이며 이단이라는 죄명으로 처형된다. 이러한 헤게습의 증언이 역사적인 사실인 지는 확인할 수 없다.

- 2)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와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이 계속 이 공동체의 지도자였다는 점과 바 코바의 난 까지(팔레스타인 유대인의 로마에 대한 항거 115년 경 발생) 이 공동체가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점이다. 유대기독교인들은 바 코바에 의해 이미 박해받았음으로 이 항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 코바의 항거 이후 아에리아 카피톨리나로 개명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거주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3. 초대교회의 박해(AD 100-300년)

가. 초대교회의 확장과 박해의 원인

- 1) 초대교회의 확장 원리: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 급성장했으나 미처 그 시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향하지는 못했다. 그런 가운데 스테반의 순교와 뒤따른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타격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 확산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기독교 확장의 제 2의 물결을 일으킨 사람은 바울이었다.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계기로 30년간 로마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의 선봉에 선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여 세계의 중심지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순교하였다.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는 기독교운동이 일찍부터 시작된 듯 하다. 아마도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로마에 전파한 듯하다(행 2:10). 즉 로마교회는 바울이 주후 57-58년 겨울 그의 로마서를 보냈을 때 벌써 꽤 번영하고 있었다. 이후 주후 64년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와 관련시켜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는 로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 이들중 다수가 순교했던 것이다. 대로마제국의 수도로서의 권위와 힘을 배경으로 한 로마교회는 네로 박해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발전하여 주후 100년경에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바울 사도의 이방선교 외에도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도 세계각지로 흩어져 기독교 확장에 공헌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무명의 평신도들이 기독교 확산

에 힘썼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역동적 신앙을 가졌었다. 사도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아 모두 선교사가 되었다. 교회를 개척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였다. 초대교회가 성장한데는 '교육', '교제', '성찬과 예찬', '기도', '경외심', '구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 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음', '찬미', '칭송을 들음'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서 이것은 초대교회 확장의 원리이다.

- 2) 한편 초대교회의 확장에 있어서 로마제국이라는 요소가 단순히 박해자로만 남지는 않는다. 구조적인 통일성과 통신수단의 용이성으로 인해서 로마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기독교의 팽창에 필요한 각종 수단들을 제공했다. 제국이 취했던 현명한 행정조직은 교회의 조직에 큰 영향을 미쳤고 로마의 법전은 교회법의 제정뿐만 아니라 라틴신학의 용어를 깨내는 좋은 채석장이기도 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실제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관심이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양 기독교에게 실용적인 면모와 심오한 윤리적 감각을 부여했으며,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같은 심오한 심리적인 예민성을 지닌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기독교는 고립적 진공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이다.

나. 초대교회의 박해 원인

- 1) 정치적 원인: 로마 정부는 이방종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정책

을 취했다. 기독교가 로마 정부 당국에 의하여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되는 한 멸시와 미움을 받을지언정 고유한 민족 종교로서 합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로마 정부가 기독교의 실상을 분별할 수 있기 전에 제국의 주요 도시에 이미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라는 사실을 밝혀지고 또 급속히 제국내에 퍼지게 되자 불법 종교로 진압의 대상이 된 것이다. 특별히 로마정부는 기독교 박해 전에도 몇가지 이유를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비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여 호의를 갖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편에 서지 않는 것은 악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보아 기독교인과 로마제국내의 이교도와 큰 간격이 생기게 된 것이다. 또 유대인들의 로마 제국에 대하여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유대적 요소가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당시 기독교교인들은 황제숭배를 단호히 거절하였는데 이는 로마정부로부터 반역 행위의 혐의를 받았으며 기독교도는 국가 모반의 음모를 꾀하는 무리들로 간주되었다.

- 2) 사회적 원인: 사회적 문제도 박해의 한 요소가 되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사회의 하층 계급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당시 영향력있는 상층 귀족 계급의 무시와 증오를 받았다. 켈수스(Celsus)는 기독교인들을 무식한 대중들로 보았는데 오리젠은 '켈수스에 대항하여'(Against Celsus)라는 작품속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켈수스를 반박하지 못한 점은 실제로 초대 기독교신자들이 비천한 계층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무시

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 처음 3세기 동안 기독교 신자들의 다수가 사회 하류층 출신이었다는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에 등장하는 신자들은 그것을 증거한다. 당시 이교 사회에서는 소수의 특권층이 다수의 하층계급의 사람들이나 노예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귀족적인 사회구조의 지속을 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만인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기독교인들은 이교사원이나 극장, 오락장소 등에서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사회관습들을 따르지 않아 미움을 받게 되었다.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다고 로마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3) 종교적 원인: 기독교인들은 그들 자신이 섬기는 신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이교도의 미움을 받았다. 즉 이교도의 분노를 산 것은 그들의 제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또 세신들을 숭배함으로 이교도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부정한 점이다. 그것은 곧 전통적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전반기 박해의 자극이 되었다. 또한 로마인들의 미신적 사상도 한 몫을 차지하였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방의 신들을 노엽게 한 연고로 자신들에게 재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4) 오해와 편견 :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과 오해는 그리스도인의 관습과 신앙에 대한 풍문에서 나왔다. 기독교가 퍼지면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새벽이나 저녁에 자주 모임을 갖게 되자 그 모임

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이 질투와 의심에 사로잡혀 그들의 상상에서 나온 헛소문이 떠돌았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공동체적 생활을 하면서 새벽이나 저녁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행했던 성만찬 의식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밤중에 동굴에 모여 폭음, 폭식하고 자식을 죽여 인육을 먹고 교회지도자들의 성기를 경배하고 평화의 키스도 왜곡되어 건한 사회 습속을 해치는 근친상간을 하는 저속한 무리들로 비추어져 일반인들의 왜곡된 상상력을 자극하였고 이것의 박해의 명분을 찾던 로마제국에게 박해의 한 빌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다. 로마제국의 초대교회 박해과정 및 그 결과

- 1) 기독교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고, 그 속에서 자랐을 뿐 아니라 그 역사를 순교의 피로 쓰기 시작했다.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된 박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 역사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핍박이 있어 왔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요 수난의 역사였다. 사실상 기독교 순교사는 기독교 자체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박해사를 연구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의 핵심을 연구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 로마제국의 초대교회 박해 과정

-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과 갈등에 빠지게 된 것은 어떤 근본적인 원칙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 로마제국에 의한 박해는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하여 처음 일어났다. 주후 64년 로마에는 대화재가 발생해 도시를 황폐화시켰다. 네로는 방화의 혐의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속죄양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이 네로 치하의 박해는 오래 계속된 것은 아니라 뒤에 따른 다른 박해의 전례가 되었다. 한편 네로는 68년 로마 상원의 지원을 받은 반란에 의해 퇴위되어 스스로 자살의 길을 택하였다.
-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주후 81-96)에서 상황은 또다시 심각해졌다. 칼리굴라와 네로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황제들은 지나치게 열광적인 신민들이 황제에게 신적인 영예를 바치는 것을 전통적으로 금지시켜 왔었다. 도미티아누스는 이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취했으며,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고, 이러한 황제숭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은 반역의 혐의를 갖고 의심스럽게 여겼다.
- 트라야누스 황제(98-117)는 자신에 대한 숭배가 강제적인 충성 시험수단으로 상용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위기는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년 소아시아 비투니아(Bithynia) 지방의 총독이던 소 플리니우스(Pliny the younger)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황제에게 문의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교가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도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플리니우스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처

형했고, 시민권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 대기시켜 두었다.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한 선례를 알고 있었고 망설임 없이 이를 시행했던 것이다.

- 이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결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로마의 옛 종교적 전통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이며 그 일탈에 있어서 지나치게 완고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동정을 거두어들이고 관용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며, 2세기의 여러 사람들이 순교의 죽음을 당했다.
- 한편 트라야누스와 하드리아누스는 모든 지방 총독들이 앞장서서 박해를 가하는 것을 만류했다. 몇몇의 지방 총독들은 실제로 교회를 보호하기도 했으며, 이에 고마움을 느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총독이 비록 이교를 신봉하기는 하지만 죽은 후에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믿기도 했다. 2세기 후반 무렵에 그리스도교는 사회의 상류층에 침투하고 있었으며, 많은 고위 인사들은 밤에 잠이 깼을 때 부인이 철야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워 하기도 했다. 코모두스(Commodus, 주후 80-92) 황제의 첩이었던 마르키아(Marcia)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로마교회를 위해 상당한 정도로 박해를 완화시켜 줄 수 있었다.
- 3세기 이전에는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교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 교회는 활동 공간을 넓혀가고, 내적인 비판적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라. 초대교회의 박해 결과

- 1) 배교자의 등장: 로마제국의 박해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했다. 후에 이들 가운데 다수가 그 죄를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오고자 하여 자연히 이들을 용납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교회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교회는 박해로 말미암아 야기된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북아프리카와 로마에서는 3세기 중엽 데키우스의 박해 때에 이교의 제단에 제물을 바쳤던 배교자들과 무수한 사람들이 박해 굴복하여 타협하였다. 디오클레티안의 박해 때 박해 자들에게 성서를 내주었던 배교자들 중에서 회개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문제로 두 차례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교회와 전혀 교제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근신기간을 둔 후에 받아들여기를 원했다. 도나투스 논쟁은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박해에서 야기된 것으로서 콘스탄틴시대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디오클레티안 시대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는 신약성서의 정경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논쟁으로 야기된 결과가 항상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로 인해 교회는 권위있는 정경을 발달시키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교회를 약화시키지는 않았다.

2) 순교자와 변증가의 등장:

- 로마제국의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자와 변증가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헤르마스(Hermas),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서머나의 폴리갑(Polycarp)이 있다.

-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시리아지방 안디옥의 감독으로 주후 30-35년경에 태어났다. 그의칠십여 평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자'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다. 그에 대한 전설에 의하면,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무릎에 앉히고 축복하셨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였다고 한다. 2세기 기독교 사회에서 이그나티우스에대한 존경과 신망이 얼마나 두터웠는가를 짐작케 하는 이야기이다. 폴리갑, 이레니우스, 유세비우스 그리고 제롬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주후 108년경 트라야황제의 치세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로마로 압송되던 중 서머나에서 자신을 위해 구명운동을 하고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탄원한다. 나에게 '불합리하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도착하도록 내가 야수들을 위한 먹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내가 순수한 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밀이고 나는 야수들의 이빨에 의해 갈아지고 있다. 내가 일단 잠에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어서 육신의 어떤 것도 뒤에 남겨놓지 않도록 야수들을 달래는 것이 좋다. 세상이 더 이상 나의 몸을 보지 못할 그때,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수단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희생이 되도록 주

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후에 이그나티우스는 콜론세움으로 알려진 격투기장에 끌려오게 되었다. 이곳은 대형 원형 경기장으로 약 45,000명의 관중으로 수용하는 곳으로 기독교 순교자들의 죽음을 구경하는 것은 당시 로마인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직전 최후의 감사를 드린 후 사자들에게 의해 죽음을 맞이하였다. 사자들이 그를 덮친 후 남은 것이라고는 몇 개의 뼈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후에 슬퍼하는 그의 친구들이 이 뼈들을 모아 매장을 할 때에 그들은 이그나티우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더욱 좋은 곳"(빌 1:23)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 한편 폴리갑(Polycarp)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들의 뒤를 바로 잇는 사도라는 면에서 '속사도 교부'(Apostolic Father)라고 불려지는데, 그는 2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교자였다. 86세에 체포되어 처형된 폴리갑이 순교한 연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다만 그는 155-160년이나 (트라얀 황제의 통치기) 161-180년(우리에게 '명상록'으로 잘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통치기)중의 어느 해, 2월 22-23일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장한 병사들이 한 노예 소년을 앞세우고 폴리갑을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갑은 그들이 먹고 마실 식탁을 준비하게 하였다. 순교의 제물을 앞에 두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 폴리갑은 한 시간의 기도시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거의 두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그의 기도는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다. 이윽고, 기도를 마치자 압송되어 경기장에 들어서게 되었다. 폴리갑의 명성과 고령

을 생각한 지방총독이 말하였다.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폴리갑의 입이 열렸다.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였다. 그 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신(神), 가이사에게 맹세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같은 명령 앞에서 폴리갑의 무릎은 결코 굽혀지지 않았다. 죽음을 앞둔 폴리갑은 기둥에 묶인 채 하늘을 우리러 큰 소리로 기도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한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들의 숫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으신 당신이 미리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이제 성취하신 대로, 부요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오늘 당신 앞에 순교자들 가운데 나를 받아주옵소서." 마침내 그는 화형을 당했다. 배교자와는 달리 순교자, 변증자, 호교론자들은 이교 세계에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사상 특히 사상사적인 면에서 볼 때 최초의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자들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4. 교회에 나타난 이단들

가. 들어가는 말

“이단”이란 용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기독교적으로는 교회사의 흐름과 함께 점차 대체적으로 종합되기를 고대 공교회(Catholic Church)가 진리로 정하고 선포한 정통 교리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종교적인 과오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정의하게 되었다. 기독교회는 원래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모여진 소박한 공동체였는데 박해와 이단 등 내외적인 위협으로 인한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을 공고히 조직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2 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감독(Bishop)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교권체제와 신조(Creed)의 기준과 그리고 권위있는 정경(Canon)을 바탕으로 하여 공교회를 수립하게 되었다. 기독교가 최초로 인용하였던 공식 명칭인 가톨릭(Catholic)이란 말에는 보편성(Universal)과 정통성(Orthodox)이란 뜻이 함축되어 있어, 공교회는 본질상(by nature) 개체성(particular)과 이단성(heterodox)을 경계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독교회는 일찍부터 이단에 대하여 엄히 다스려왔던 것이다.

이단에 대한 징계는 니케아 공의회를 전후하여 그 양상이 다르다. 니케아 공의회 전에는 그 징계가 어디까지나 교회적인 것이어서 가장 극한 정도가 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니케아 공의회 후 기독교회와 로마제국이 병합된 다음에는 그 징계의 정도가 교회적인 파문을 넘어서 행정당국의 관여 아래에 교회의 승인을 얻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축출 혹은 심지어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관련한 첫 사형 집행

이 385년에 시행되었다. 기독교회는 마침내 분열되었고 분열된 기독교권은 각기 제나름대로 다른 정통성과 이단을 가지게 되었다. 희랍 정교회 (Greek Orthodox Church)는 서방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 가운데 초기일곱 차례에 걸친 에큐메니칼 공의회 (the First Seven Ecumenical Councils)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들 즉 교황제도 혹은 교황 무오설이라든가 성모 마리아의 무흠회태설 (The I'm maculate Conception of Virgin Mary) 등을 이단으로 여기고 부정하였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교회는 트렌트 공의회 (Council of Trent)와 개신교회의 특수한 교리들을 모두 정죄하였다. 개신교는 또한 희랍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비 성경적 전통들에 대하여 이단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개신교 내부에서도 루터는 루터대로 쾰빙글리는 쾰빙글리대로 각기 약간씩 다른 자기들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하여 논함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입장이 전제되지 않고서 보편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는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정립된 정통성을 중심으로 초기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전후하여 나타난 이단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에큐메니칼 공의회 전에도 이미 반정통적인 이단 종파들이 있었다. 소급해 올라가 보면 사도시대에 이미 나타났다(요일 1:13 ; 2:18 이하 ; 4:2, 6). 이들 이단 종파들은 두 가지 주된 근원으로부터 연유하였다. 첫째는 기독교 밖에 있던 것으로서 유대교와 이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것이었으며 둘째는 기독교 자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비온파(Ebionites), 영지주의(Gnosticism), 말시온(Marcion), 몬타니즘(Montanism), 그리고 독재론자(Monarchians) 등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이단 종파들에 대

하여 하나하나 논하기 보다는 정통성에 반하는 반정통적인 이단성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적, 그리고 인간론(죄론)과 은총론적 관계성에 입각하여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나. 기독교적 이단성

기독교가 다루어야 했던 최초의 신학적인 문제는 기독교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신앙의 종교이다. 신앙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그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불가피하게 야기되었던 것은 다른 아닌 신앙의 대상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문제이고 또한 삼위일체론적 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의 전제 아래에서 그리스도이신 그 존재는 한편으로는 성부와 서로 구별되면서도 성자로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神性)의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성(人性)의 문제 등이 곧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통하여 정통적인 기독교론과 삼위일체론으로 정립되기를 전후하여 이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대두되었음이 무엇보다도 주목할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성이라 할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성

일찍이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비온파(Ebionites)는 주장하기를 예수는 단순히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였으며 성령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처음으로 그에게 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은 예언자나 가르치는 자의 사명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더욱 엄격한 교훈으로 율법을 부연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에비온파는 5 세기에 이르러서야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끼친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론 형성을 촉진하였다는 점이라고 본다. 삼신론(三神論)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단일성 즉 유일신 신앙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던 독재론(Monarchianism)은 동적 독재론(Dynamic Monarchianism)과 양식적 독재론(Modelistic Monarchianism)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다. 여기서 동적 독재론을 혹은 양자론적(adoptionistic), 독재론 혹은 인성론적(humanitarian) 독재론이라고도 한다. 동적 독재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을 단순한 능력 혹은 세력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의 출발점이 된 것은 예수의 인성이었으며 그러한 인성이 결국 신격화 되었다고 한다. 동적 독재론이 에비온파와 어떤 역사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는 입증할 수 없지만 그들의 주장이 에비온파와 매우 비슷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는 양자(養子)라는 점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동적 독재론파는 동방에서 그 세력이 강하였고 끈질겼다.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대표적인 인물은 안디옥의 감독이었던(260-272), 사모사타의 바울(Paul of Samosata)이다. 그에 따르면 예수는 일종의 위탁된 신성을 받으셨던 분이다. 260년부터 269년 사이에 사모사타의 바울의 견해를 검토하는 세 번의 교회 회의(Synod)가 열렸는데 마지막 회의에서 그는 파문되었다.

독재론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서방교회에서 대두되었던 대

표적인 문제였다면 아리우스주의는 동방교회에서 제기된 서방교회에 못지 않는 교회사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문제이다. 아리우스(arius, 250-336)는 그리스도를 한 신화적 표상—반신(半神), 반인간(半人間)의 존재—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스승인 안디옥의 루시안(Lucian)은 사모사타의 바울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으며 그래서인지 그는 사모사타의 바울에게 힘입은 바가 많았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를 하나의 피조물로 보는 오리겐(Origen)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질의 존재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것 없이 무(無)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다. 비록 그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출생하였고 세상 창조의 대행인(代行人)이기는 하지만 영원하신 분은 아니다. 아리우스의 생각에 그리스도는 완전신(完全神)도 아니고 완전인(完全人)도 아니며 양자 사이의 제 3의 존재였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알렉산더(312-328)는 오리겐의 또다른 측면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그의 생각에 성자는 영원하시고 성부와 그 본질에서 동일하며 창조된일이 없는 존재이다. 이들 사이의 논쟁은 320년부터 시작되어 321년에는 알렉산더 감독의 주재 아래에 열린 공의회에서 아리우스와 그의 동조자들이 정죄되었다. 그 결과는 동방교회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결국 콘스탄틴 대제까지 간여하게 되었다.

마침내 콘스탄틴 대제는 325년 5월에 최초의 세계 종교회의인 제 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Ecumenical Council)를 니케아에서 모이게 하여 이 문제를 다루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리우스는 정죄되어 추방되었고 성자는 성부와 본질상 동일하다고 하는 그리스

도의 신성을 가결하게 되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결한 그리스도의 신성은 삼위일체론 해결의 바탕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적 발전의 첫 단계는 삼위일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만일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구속주 메시야라면 그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신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혹은 로고스와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혀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많은 토론과 논쟁의 결과로 마침내 삼위일체의 교리가 형성되었는데 한 분 하나님의 존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인격으로 구별되며 그들은 모두 동일한 신적 본질에 참여하고 단지 기능에 있어서만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첫 단계인 그리스도의 신에 대한 결정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삼위일체론의 형성에 의미심장한 일인 것이다. 반대로 이에 반하는 곧, 그리스도의 신성에 반대함은 삼위일체론 형성과 더 나아가 기독교 신학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며 기독교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이단 세력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회는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 싸워왔음을 본다.

2)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성

기독교론의 발전 과정에서 둘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문제였다. 인성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일이었다.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어야 함과 동시에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니케아 공의회 시대에 이 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제기하였던 사람은 아폴리나리

스 (appollinaris)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문제도 에큐메니칼 공의회 시대에 이르러 본격화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에큐메니칼 공의회 시대 이전 초기 이단 종파들에게서 이미 나타났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교(異敎)와 유래한 영지주의 (Gnosticism)이다.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종교적 혼합주의였으며 기독교를 그와 같은 혼합종교 가운데 하나로 첨가하려는 의도에서 기독교에 접근하였던 것이다. 영지주의는 이와같이 종교적 혼합주의이면서도 그 저변에 깔려있는 지배적인 사상이 이원론 (Dualism)이었다. 영지주의의 이원론은 조로아스터 종교의 영향 아래에 형성된 시리아 사상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페르시아의 이원론은 신화적인 것이었으며 두 가지의 상반되는 원리 즉 빛과 어두움의 신화적 이원론이 정신과 물질의 형이상학적 이원론으로 발전되었다. 즉 악의 원리에 따라서 지배되는 물질의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되는 정신의 세계와는 태초부터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이원론적 사상의 배경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 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가현설(假現說, Docetism)이다. 기독교는 성육(成肉)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면 어떠한 속죄의 교리도 인정치 않는다. 그러나 영지주의는 성육의 교리를 부인하였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는 도저히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절대적 존재는 유한한 존재와 진정한 결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 물질은 악하고 영적 세계는 항상 물질과 충돌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불리워진 심오한 영적 인간과 일시적으로만 결합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신성은 단순히 인간성과 일시적으로 병존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결합은 예수가 탄생할 때와 혹은 세례받을 때에 이루어졌으며 십자가에 처형되기 직전에 분리되었다. 그러므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의 수난자는 인간 예수였던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가현설을 주장한 영지주의는 구속자에게서 어떠한 참 인간성도 모두 박탈해 버렸으며 그리스도의 역사적 인격을 파괴해 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나사렛 예수와의 어떠한 참된 결합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참으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이단성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끈질기게 위협하는 경계해야 할 이단성이라 하겠다. 아폴리나리스(appollinaris, d. 390년경)는 한 때 니케아 기독교의 열광적인 옹호자였고 정통주의 수호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며 만일 그리스도가 인간만이라면 세상을 구속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만일 그리스도가 인간만이거나 하나님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아폴리나리스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느냐는 중요하고도 까다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아폴리나리스는 생각하기를 만일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과 결합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두 개의 주체 즉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인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적 통일은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한다면 그의 무죄함은 보증될 수 없으며 두 의지 사이의 조화를 이룰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폴리나리스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육과 영혼과 이성으로 삼분(三分)하는 아리스토텔과 고린도전서 5장 23절에 의해서 제시된 견해로부터 추론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은 육체와 영혼과 이성 대신에 로고스로 이루어졌다고 가르쳤다.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로마서 8장 3절과 같은 성경의 구절이 인용되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육체에 있어서만 인간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가 그것을 자기의 신성으로 흡수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높인 것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진정한 인성을 거부한 결과가 되었다. 아폴리나리스의 기독교론에 있어서의 잘못된 점은 그 당시의 정통적인 카파토키아의 교부들에 의하여 분명히 지적되었다. 첫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지러지게 만드는 아폴리나리스의 견해에 반대하여 지적하기를 아폴리나리스는 결국 가현설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로, 아폴리나리스가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구속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죄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뿐만 아니라 이성까지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는 자기의 육체로 우리의 육체를 구속하고 자기의 영혼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며 자기의 이성으로 우리의 이성을 구속하는 하나님이

신 동시에 인간이신 구속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짐으로써만 인간을 하나님과의 사귄드로 이끌 수가 있다. 아폴리나리스와 그 추종자들은 37년에 로마의 종교회의에서 38년에는 안디옥의 종교회의에서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제2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그리고 382년에는 다시 로마에서 정죄받게 되었다. 아폴리나리스는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단성론자들 (Monophysites)의 대열에 참가하였다.

결국 제 4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칼케돈 신조(451년)는 아폴리나리스를 배격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즉 그리스도는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가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이라고 하였으며 우리와 똑같은 성질의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독교론에 관한 논쟁은 제 2차 콘스탄티노플 에큐메니칼 공의회 381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제 3차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라는 것이 제 4차 칼케돈 공의회(451년)에서는 그리스도의 양성일인격에 대하여 결정을 보게 되었다. 삼위일체론과 연관된 기독교론에 있어서 가장 중시될 문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점 곧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처럼 무서운 기독교의 이단성은 없다고 본다.

다. 인간론적 이단성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독교는 신앙의 종교이다. 그래서 신학 발전과정을 보면 최초의 관심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기독교인이었고 그 다음은

신앙의 주체가 되는 인간론이었다. 이제 인간론적 이단성에 대하여 분량적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기독교론적 이단성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 성격상 약간이나마 언급하고자 한다.

인간론의 주된 내용은 인간의 본래 상태와 타락 그리고 그 결과이며 구원론과 은총론으로 연결된다. 이 문제는 성향상 사변적 경향이 강한 동방교회보다는 실천적인 서방교회가 주로 다루게 되었다. 이 문제는 교회사에 있어서는 펠라기우스 논쟁으로 알려져 있다. 펠라기우스(Pelagius, 418)는 영국 혹은 아일랜드의 수도사였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켈리스투스(Caelistus)와 줄리아누스(Julianus) 두 사람이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였다. 펠라기우스의 주장 가운데 인간의 죄와 자유의지 그리고 은총에 관하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죄는 인간 본성의 상태에서나 의지의 경향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은 그의 후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행위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펠라기우스는 원죄의 교리 혹은 대대로 전달되는 죄된 성향에 관한 가르침을 배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반대로 선택할 수 있는 힘 혹은 이른바 현실적 자유를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은 옳은일을 행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능력을 가진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옳은 율법을 부과하였은즉 인간은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인간이 죄된 생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일이 아니다.

펠라기우스의 은총에 관한 가르침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 및 자유의지에 관한 견해와 일치되어 있었다. 펠라기우스는 진정한 의미의 은총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은총은 영적 능력에 미치는 하나님의 세력이라 생각

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은총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을 계발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은총은 돕는 힘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인간은 그러한 도움 없이도 옳은 일을 행할 수가 있으므로 은총은 절대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적 의미에 있어서만 필요한 것이라고 펠라기우스는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役事)는 단지 인간 의지의 바른 행위를 도와주는데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자의 완전은 그러므로 개인이 덕성과 선행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며 참된 기독교적 생활의 필수적인 근거로 신생(新生)된 마음이 요구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어거스틴의 공격으로 벌어진 논쟁은 기독교에 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의 대립이었다. 결국 펠라기우스주의는 412년 칼테이지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펠라기우스의 추종자였던 켈리스투스가 파문당함으로써 교회에 의하여 배격되었으며 또한 418년에 열린 칼테이지 종교회의와 제 3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인 431년의 에베소 회의에서도 펠라기우스주의는 정죄를 당하였다. 인간론에 대하여는 펠라기우스 논쟁 이후에도 반펠라기우스(Semipelagius)논쟁에서 계속되었고 그 후에도 교회사를 통하여 줄기차게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은총의 필요성을 상대화하고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를 격하 혹은 무시케 하는 낙관적인 인간론은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엄히 경계해야 할 기독교의 이단성인 것이다.





2 장

/

니케아회의 박해

제2장 니케아회의의 시대

훈련 목적

- *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 역사를 이해한다.
- * 시대별 교회 역사를 이해한다.
- * 올바른 선교관을 이해한다.
- *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경을 읽는다.
- * 교회 역사에 관한 도서를 읽는다.
- * 교회 역사에 관한 영상물을 시청한다.
- *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 * 교회가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운 것임을 인식한다.

1. 니케아회의의 시대 (313-590년).

가. 니케아회의의 시대의 특징

- 1) 이 기간은 기독교 로마 제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니케아 회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후자처럼 부르는 이유는 최초의 세계적인 종교 대회인 니케아 회의가 그 기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이 시대에 와서 성숙되고 안정되어 통일된 하나의 제도적 종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의 장래

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점도 있다. 이 시대가 끝나면 중세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중세 이래로 새로이 유럽의 주인공이 될 게르만 민족의 개종은 벌써 이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2) 기독교 신앙이 자유를 얻음

325년은 교부시대 제 3기의 시작이며 총주교와 그리스도인 황제 시대가 열린 때이다. 이 기간에는 한 사람(배교자 줄리안)을 빼고는 모든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옹호했다. 이 시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를 니케아시대, 325년 이후부터 590년까지는 후니케아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후 313년부터 590년까지를 니케아시대라고 한다.

3) 교리의 논쟁이 심화됨

이 기간은 오랫동안 계속 되던 박해의 시기가 끝난 시기였다. 박해시대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언제 새로운 박해의 선풍이 일어날지 몰라 늘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었다. 따라서 박해 중에는(신학은 별로 없고) 오직 신앙만 있었다. 그러나 박해가 끝나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적 활동이 양지에서 행해지게 되었고 교회의 일도 많아지고 규모가 커졌다. 그러자 자연히 교리 논의가 왕성해지고 신학자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아타나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어거스틴)이다.

4) 세계 대회가 열림

교리와 신앙적 관심사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자 교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대회를 소집했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거의 제정되었다. 삼위일체 교리 논쟁과 니케아 회의, 그리스도의 二性 논쟁과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리스도의 인격 교리 논쟁과 에베소 회의, 그리스도의 일성론 교리 논쟁과 칼케돈 회의, 그후의 一意論 논쟁과 콘스탄티노플 회의 등이 그런 회의이다.

교회 정치 분야에는 {암브로시우스}이 유명하고, 설교가로는 {크리소스톰},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등이 유명하다.

5) 교권이 증진됨

당시 로마 제국의 힘은 쇠해지고 북방 야만족의 침입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제국이 쇠해지고 정치력이 쇠해질수록 복음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교회 지도자의 세력이 점점 강대해졌고, 특히 로마 주교(교황)의 세력이 강대해져 교회는 정치적으로 큰 세력을 가진 단체가 되었다. 마침내 기독교는 국교가 되고 관직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6) 수도원의 발전

이렇게 되자 교회는 현저하게 세속화되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금욕주의, 은둔주의가 성행하여 수도원이 생겼다.

나. 콘스탄티누스 대제

1) 콘스탄티누스 대제 역사

콘스탄티누스는 288년 나이시스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서부 지역 로마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였으며 어머니 헬레나는 경건한 여인으로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콘스탄티누스는 소년 시절부터 전투에 참가하며 용맹한 군인으로 자랐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로마의 서부지역에는 황제를 자칭하는 자가 6명이나 나타났는데 클로루스 직전의 서부지역 황제였던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센티우스가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와 싸워 이기고 313년 밀라노에서 동부지역 황제인 리키니우스와도 만났다. 이때 콘스탄티누스는 리키니우스에게 그의 누이를 왕후로 주었고 두 황제는 함께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 신자들이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후에 동부지역 황제 리키니우스가 이교의 편을 들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스스로 기독교의 옹호자로 나서서 323년 리키니우스와 싸웠다. 여기서 이김으로써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제국 전체의 황제 자리에 올랐다. 그는 337년 65세 때 유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고 죽었다.

2) 기독교를 옹호하게 된 동기

콘스탄티누스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믿을 결심을 하게 된 동기는 막센티우스와 로마 근교 밀위안 다리에서 전투를 할 때 태양 위에 빛나는 십자가를 본 경험을 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위에는 이것

으로 이기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는 이것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그 날 밤 잘 때 꿈을 꾸었는데 이때 주님이 나타나서 낮에 본 것과 같은 십자가를 보이면서 이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군기장(軍旗章)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했다. 그가 그대로 했더니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이로 인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기독교에 대해 배우고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독교에 들어온 후에도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은 세례 후 다시 범죄하면 다시 속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 업적

1) 기독교 지지와 보호

콘스탄티누스는 스스로를 기독교의 옹호자요 보호자로 자처했으며 또 자신은 기독교회의 외부적 감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그는 궁중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기도 했고 기독교 학자들이나 전도자들을 우대했다. 그리고 교리 논쟁이 심해지자 이단을 제거하고 교회를 통일하고 교회의 연합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로 니케아 회의를 열기도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단지 기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교로 채택한 기독교가 분열되면 로마 제국 전체의 안녕과 평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2) 법적 뒷받침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위해 여러 국법들을 개정하였다. 십자가 형벌을 폐지하고 검투를 금지시키고 축첩과 간음을 엄중히 금하며 이혼을 제한시켰다. 또 여자들도 토지 외의 재산은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켰고 죄인의 이마에 화인을 찍는 습관도 금지시켰다. 또 교회법을 국법과 마찬가지로 인정하며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해 교직자가 내린 결정은 국가가 그 효력을 공인하였다. 교회의 대회(大會議)의 판결은 그대로 로마 제국의 국법이 되었다. 또한 교회 건물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피난처)이 되었고 죄인은 그곳에 피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죄인을 위하여 사죄와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교직자에게 주어졌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법을 제정하여 이 날에는 법정을 닫고 시골에서의 농업 외의 모든 영업을 금지하고 군대의 훈련도 쉬게 하였다. 교직자는 병역과 세금 부담을 면제해 주었다. 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박해 시에 몰수된 건물과 토지를 돌려주기 위해 교회재산 관리법을 제정하고, 교회에 내는 기부금을 공인해 주었다. 이밖에 기독교 외의 종교에 대해 박해하지는 않았으나 잔혹하고 불결한 행동과 제사 및 우상 숭배는 금했다.

3) 천도(遷都)

콘스탄티누스는 332년 콘스탄티노폴로 수도를 옮겼다. 그것은 동유럽의 야만인과 페르시아인을 제어하는 목적과 아울러 이교적 전설과 흔적이 적은 기독교적 새 수도를 건설함으로써 기독교를

용호한 왕으로서의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콘스탄티누스는 권력의 증대와 함께 허영심과 점차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져갔다. 그는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왕위에 대한 집착에 빠진 나머지 자기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이유로 그의 처와 장남을 처형하고 조카까지 살해한 잔인한 행동을 했다. 콘스탄티누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의 세 아들, 장남 콘스탄티누스 2세와 차남 콘스탄스 및 삼남 콘스탄티우스가 로마 제국을 분할하여 다스리게 되었다. 그들은 전쟁과 살인, 음모로 자신의 왕위의 안전을 도모했으나 장남은 340년 동생 콘스탄스와 싸우다 죽고, 콘스탄스도 350년 프랑크인 마그네티우스와 싸우다 죽었다. 그 후에 동방 지역 왕이던 3남 콘스탄티우스는 마그네티우스를 멸하고 로마를 통일하여 353년부터 혼자 황제로 있다가 361년 세상을 떠났다. 콘스탄티우스가 죽은 뒤에는 그의 사촌 '배교자 줄리안'이 왕위에 올라 18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짧은 기간동안 기독교를 제어하려고 애썼지만 곧 죽고 말았다. 줄리안이 로마를 다스린 뒤에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인 황제들이 동방과 서방을 아울러 다스렸다. 이들은 처음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채택한 종교 관용 정책을 썼다. 그러나 황제의 후계자들은 차츰 안으로는 이단자를 박해하고 밖으로 이교도들을 박해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쓰기 시작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379-395) 때 이교 억압이 가장 심했다. 그가 죽은 후에 로마 제국은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져 각기 황제가 있게 되었다.

라. 니케아(Nicaea) 회의 : 1차 세계 교회회의

1) 날짜와 소집자

니케아 회의는 기독교회의 세계 대회의 효시였다. 이 회의는 당시의 최대 사건일 뿐 아니라 기독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회의가 교리 대 교리의 싸움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회의가 아니라 기독교 진리 대 사이비 거짓 진리의 싸움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회의였기 때문이다. 니케아 회의는 325년 5월 20일 콘스탄티노플에서 70킬로 정도 떨어진 소아시아의 작은 동네 니케아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했으며 여기에는 각처에서 300명 정도의 감독이 참석했다.

거기 참석한 감독의 대부분은 동방 교회에서 왔다. 언어(동방은 헬라어, 서방은 라틴어)가 다르고 거리가 먼 서방에서는 감독들이 별로 참석하지 못했다. 회원들 중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 당시에는 고난의 흔적이 없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 회의는 5월에 시작하여 7월까지 42일동안 계속되었다.

2) 소집 방법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각지 감독에게 안내장을 보냈는데 통지를 받은 각지의 감독은 장로 2명, 수행원 3명을 데리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를 위해 나라에서는 교통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여비와 체제비 및 회의 진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했

다.

3) 소집 동기

부활절 일자의 조정 문제 : 동방에서 지키는 부활절과 서방에서 지키는 부활절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모였다. 동방에서는 부활절을, 서방에서는 주일을 중심으로 날짜를 정하고 있었다.

더 중요한 동기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아리우스(Arius)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신학의 싸움터가 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될 우려가 높았다. 이를 그대로 두면 교회의 통일성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도 분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는 어떻게든 그것을 조정하고 정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3) 아리우스

- 아리우스(Arius)는 리비아 출신으로서 루키아누스(Lucianus)에게 사사했다. 루키아누스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성경 해석에 통달한 인물이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에 대항하여서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낳은 존재이며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창조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한 루키아누스의 제자인 아리우스는 스승의 원리에 찬동하였고 오리겐의 영향도 받았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장로가 되었으며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며 금욕 생활을 통해 추종자가 많았다.

- 아리우스의 학설 (그리스도관)

- 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그는 참 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성질을 가진 분도, 같은 格을 가진 분도 아니며 오직 은혜를 받아서 세계 창조의 중재자가 된 '사람'일 뿐이다. 그는 시작이 있는 존재이다.
- ② 그리스도의 영은 로고스로서 人性을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선한 사람이다.
- ③ 그리스도가 악을 택하셨다면 악을 행할 수 있었지만 그가 선을 택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 아들로 인정되었다.

- 논쟁의 발단

아리우스 논쟁의 발단은 알렉산드리아 감독 알렉산드로스가 삼위일체의 顯現을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을 때 장로인 아리우스가 이를 사벨리우스적이라고 공격함으로 일어났다. 아리우스는 신의 통일성과 자기 충족의 존재(하나님은 한 분으로 족함)를 강조했고 피조자이신 예수는 신의 본질과는 달리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무(無)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예수는 비록 첫 피조물이요 세계 창조의 대리자이지만 영원하지는 못하다고 했으며 신에게는 시작이 없으나 아들에게는 시작이 있다고 했다. 또 예수님은 그 본질상 영원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다르고 신보다 조금 낮은 존재라고 했다. 또 예수님은 성육신(成肉身) 때 로고스가 인체에 들어옴으로써 인간의 이성과 성령이 결합된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로스 감독은 아들은

영원하시고 아버지의 본질과 같으시며 절대로 피조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아리우스와 정면 충돌했다. 논쟁이 격화되자 교회는 32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지방 대회를 열고 아리우스와 그를 지지하는 애굽 감독들을 파면했다. 그러자 아리우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각지로 다니면서 반대 연설을 하고 지지자들을 많이 얻어내었다. 당시 유명한 니코메디아 감독의 유세비우스도 이에 합세했다. 이리하여 동방에는 아리우스 설이 일반적으로 유포되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리키니우스를 정복하고 동서 패권을 잡았을 때 동서 교회가 이처럼 어지러워져 있는 것을 보았고 교회 일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의 교회 고문인 스페인의 코르도바 감독 호시우스(Hosius)에게 친서를 주어 알렉산드리아에 특파하여 '무익한 논쟁을 피하고 화해하라'고 권고했으나 성공치 못하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니케아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이다.

4) 참석자들의 형편

- 유세비우스는 참석자의 수가 250명이라 하고 아타나시우스는 31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계산한 회의 일수의 차이 때문인 듯 하다. 서방에서는 거리가 멀고 헬라어를 몰랐기 때문에 단 10명만 참석했다. 이때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박해 때문에 눈멀고, 양손이 불구가 되고, 갇은 악행을 겪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
- 모인 회원들은 세 파로 나누어졌다.
 - ① 아리우스파 -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를 비롯하여 니케

아, 칼케돈, 에베소 감독이 이 파에 속했다. 아리우스도 장로로 참석했다. 그러나 유세비우스는 한 파별의 대표로서 싸울 역량과 품격을 갖춘 인물은 되지 못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처음에는 그를 보호하다가 후에는 그의 겁 많음을 책망했다.

- ② 중립파 - 대다수는 여기에 속했는 교회사의 시조로 유명한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논쟁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 ③ 정통파 - 소수였지만 유력한 인물들이 다 모여 있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드로스 감독, 코르도바의 호시우스 감독, 회의의 대세를 지배하게 될 인물이며 알렉산드로스의 수행원으로 참석한 아타나시우스가 이 파에 속해 있었다.

6) 회의

회의는 황제가 직접 참석하여 연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의장은 유세비우스나 호시우스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먼저 아리우스파에 속하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신조 초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자기 교회에서 지금껏 사용한 것으로서 이것으로 중립적인 화해의 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통파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 회의의 격렬한 논쟁의 논점은 그리스도가 동일 본질(homoousios)인가 아니면 유사 본질(homoiousios)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었다. 아타나시우스는 추상적인 사변을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 구원의 교리를 근본으로 하여 그의 주장을 펼쳤다. 그의 요지는 하나님과 인간을 결합시킬 수 있으려면 그 중재자는 피조물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님이라야 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교부들은 아들인 하나님의 신성을 천지 창조에 관여하는 측면에서만 설명했는데 아타나시우스는 이것을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던 것이다. 그의 합리적인 발언은 회의의 대세를 결정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으나 결국 정통파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논쟁은 정통파의 승리로 끝났다.

7) 결의

유세비우스가 제출한 초안은 수정되고 토론은 종결되었다. 이는 곧 아리우스설의 부정(否定)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장은 일어서서 신앙고백을 낭독할 것으로 선언하고 유명한 니케아 신조는 낭독되어 출석한 사람들이 거기 기명하게 되었다.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는 하루 생각하고 서명했고,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는 <이 문서에 동의치 않는 자는 처벌한다>는 마지막 문귀를 삭제하고 서명했다. 이집트의 감독 테오나스와 세쿤두스는 기명을 거절하였으므로 아리우스와 함께 일루리아 지방으로 추방되었다. 이것은 이단에 대해 형법의 처분을 내린 최초의 실례였다.

니케아 회의는 그 후 사도행전과 십계명에 기준하여 교회 정치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제정하고, 부활절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일을 기준으로 삼아 주일에 지키기로 했다. 모든 의식이 끝난 325년 7월 29일은 황제 즉위 20주년 기념일이었으므로 참

석자 전원이 초대되어 잔치를 벌인 후 폐회되었다.

8)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사상 비교

- 아리우스 / 아타나시우스
-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 유사함 / 동질임
- 아들의 신성 : 반신성(半神性) / 완전한 하나님
- 아들의 인성 : 특별히 주장 / 완전한 사람
- 아들의 창조 : 무로부터 창조 / 영원히 낳으심
- 아들의 영혼 : 영혼이 없음 / 로고스가 영혼

라. 기독교론 논쟁

1) 제2차 세계 교회 회의

- 제2차 회의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소집함으로써 열렸다. 안디옥의 감독 밀레티오가 회의를 주도했는데 그가 죽은 후에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의장이 되었다. 이 회의가 소집된 동기는 신인양성(神人兩性)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어떻게 서로 결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아폴리나리스가 하나의 학설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논쟁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 아폴리나리스는 플라톤의 심리학설 곧 인간은 몸(body)과 마음(soul)과 영(spirit)의 셋으로 구성되었다는 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인간의 영을 대신했고, 로고스와 마음과 몸으로써 하나의 인격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영이 없다는 말이 되므로 아폴리나리스(Apolinaris)의 주장은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 이러한 주장에 논박한 가장 유력한 신학자들은 갑바도기아의 두 그레고리우스 곧 닛사의 그레고리우스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였다. 이들은 로고스가 그리스도의 자아(自我)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로고스는 모든 인성을 섭취하고 동화하여 인간적인 행위와 감정의 주체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이 회의에서는 아폴리나리스 학설을 부정(否定) 기각(棄却)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고 결의하였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인양성(神人兩性)이 모두 완전하다는 사상은 자연히 예수님 안에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인(神人)의 양격이 있다는 말이 되어서 나중에 이 때문에 다시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2) 제3차 세계 교회 회의

- 제3차 회의는 431년 에베소에서 열렸는데 소집자는 테오도시우스 2세였다. 이 회의의 의제는 네스토리우스(Nestorius)의 양성론에 관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의 대감독으로 있다가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이 된 사람인데 그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명확히 구별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로고스가 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두 개의 격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 이에 대해 알렉산드리아 감독 키릴로스(376-444)가 적극 반대하고 항의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을 주장하였다. 키릴로스파는 동방교회의 회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틈을 타서 네스토리우스를 교회에서 추방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네스토리우스파가 도착하자, 그들은 그들대로 키릴로스를 이단이라고 결의하였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처음에 두 결의를 모두 비준하였는데 후에는 케릴로스에 대한 선고를 취소하고 네스토리우스를 출교하였다. 이로 인해 키릴로스는 점점 세력을 얻게 되고 435년에는 마침내 네스토리우스를 아라비아로 귀양가게 만들었다.

3) 도적 회의

- 이 회의는 449년 에베소에서 열렸는데 의제는 유티케스(Eutyches)의 일성론(一性論, Monophysitism)에 관한 논쟁이었다. 유티케스는 콘스탄티노플 부근의 수도원장으로서 열심히 키릴로스파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주장한 일성론이란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의 두 성질로 되어 있는데 두 성품이 합일한 후에 인성은 신성에 침범되고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다른 신비적인 몸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는 양성으로 있었으나 후에는 일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 콘스탄티노플 지방 대회는 이러한 유티케스의 일성론을 부정

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의 인성과 다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코루스는 이 논쟁에서 일성론이 득세하는 것이 자파의 세력을 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유틀케스에게 지지를 보내고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권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하였다.

- 알렉산드리아 감독 디오스코루스(Dioscorus)는 그 회의의 의장이 되어 군인들과 무뢰한들을 동원하여 반대파를 위협하는 가운데서 일성론을 반대하는 안디옥파 지도자들의 추방을 결의하고 이미 정죄받고 쫓겨난 유틀케스를 복직시켰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 회의를 <도적회의>라 부르고 정식 교회 대회에 넣지 않는다.

4) 제4차 세계 교회 회의

-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세계 교회 회의가 열려서 기독교론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었지만 교회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만 아니라 인간으로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신성뿐 아니라 완전한 인성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많은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였고 이의 조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였다.
- 결국 451년 니케아 근처 칼케돈(Chalchedon)에서 또 하나의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소집자는 마르키아누스(Marcianus)황제였고 600명 정도의 감독이 참석했다. 이 회

의에서 유명한 칼케돈 신조가 작성되었다. 이 신조는 니케아 신조와 마찬가지로의 중요성을 띤 신조이다.

- 이 신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완전한 신성}을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완전한 인간성}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두 성품, 곧 인성과 신성이 존재함을 고백하였다. 교회는 이 두 성품의 관계에 대해 두 성품은 혼동이 없고, 변함이 없으며, 분리가 없고, 불화가 없이,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고 말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는 두 성품을 가져도 한 인격이지 두 인격이 아니라는 고백을 한 것이다.

5) 제5차 세계 교회 회의

- 칼케돈 회의는 교리 논쟁에 있어서 일단락을 짓게 하였으나 싸움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527-565)는 즉위하자마자 곧 일성론자와의 타협을 꾀하고 또한 로마 감독에 대해서도 독립된 지위를 얻으려는 동기를 가지고 삼장령(三章令)이라는 발표하였으나(삼장령이란 안디옥파의 세 신학자, 테오도레트, 이바스, 테오도레의 주장을 반박한 것), 소득이 없고 도리어 소란만 일어나서 결국 콘스탄티노플에서 제5차 대회를 소집하였다. 여기서 칼케돈 신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정통 교리로 삼고, 일성론을 취한 교회는 분리하여 고립된 단체가 되었다. 이집트에 있는 콕트 교회, 이디오피아 교회, 알메니아 교회, 시리아 및 메소포타미아 근방에 있는 야곱 교회가 그것이다.

6) 제6차 세계 교회 회의

제6차 회의는 콘스탄티노플에서 680에 열렸다. 소집자는 콘스탄티누스 4세로서 세르기우스의 一意論(單意論, Monothelitism)과 그 주장을 지지한 로마 감독 호노리우스를 정죄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졌지만 오직 한 뜻 곧 神意만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이 주장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에게는 두 의지가 있으며 단지 인적인 의지는 신적인 의지에 복종할 따름이라는 이의론(二意論)을 채택하였다.

7) 제7차 세계 교회 회의

제7차 회의는 니케아에서 787년에 열렸는데 동방 교회 마지막 대회였다. 소집자는 콘스탄티누스 6세였는데 이 회의는 레오 4세 황제가 금한 성상(聖像) 사용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소가지 일으켰집되었다. 레오 4세가 성상 숭배를 금했을 때 많은 수도사들과 신자들이 반발했는데 레오 황제는 이들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6세가 즉위하여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고 거기서 성화 숭배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성화, 십자가, 복음서들은 존숭(尊崇)할 것이니 참 예배는 신성(神性)에 한하나 이상(以上)에 대한 존숭은 그 물질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표현하는 내면적 실재에 대한 존숭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 회의가 성상 숭배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근거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는 사실과 복음 사건들이 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데 두었다. 신성이 물질계에서 멀지 않다는 것과 성육신(成肉身)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질계가 하나님께 접근케 하

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이 승리한 것이다.

마. 기독교의 국교화 과정

- 1) 기독교에 자유를 준 콘스탄티누스가 전체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른 것은 그의 대적 리키니우스를 무찌른 324년이었으나 콘스탄티누스는 그 전에 이미 제국을 양분하고 있던 동방의 리키니우스는 협약을 맺어 모든 종교에 자유를 주기로 한 바 있다. 이것이 313년의 밀라노 칙령인데, 이로 인해 기독교는 오랜 박해를 벗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리키니우스는 콘스탄틴과 최후 대결을 할 무렵에 입장을 바꾸어 다시 잠시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얼마 안가 전쟁에 패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오래 가지 못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재위 기간 동안 비록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 국교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호의를 베풀며 장려 보호했다. 그러나 361년 콘스탄티누스가 죽은 후 제국은 일시적으로 소위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불리는 콘스탄티누스의 사촌 줄리안(율리아누스)에 의해 2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 그는 기독교를 편향적으로 옹호하는 조치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전처럼 교회를 박해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동등한 자유를 부여하는 중립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융합하고 번영케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콘스탄티누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줄리안은 불과 재위 2년만에 죽고 말았다. 그가 죽은 후 스페인 출신의 테오도시우스 1세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을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이교와 이단을 박해했다. 그들의 기독교 집회 외의 모든 집회와 의식을 금지하고 집회 장소와 재산을 몰수했다. 더 나아가 438년에 테오도시우스 2세 때에는 테오도시우스法이라는 법이 공포되었는데 이 법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예컨대 아리우스파 등)과 기성 교회를 부정하고 재세례(再洗禮)를 시행하는 자들(예컨대 도나투스파 등)에게 사형을 내리도록 하는 법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독교는 로마에서 허용되고 장려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로마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바야흐로 이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다.

3)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로마 제국의 사상적 변화도 있게 되었다. 줄리안이 등장하기 전에 콘스탄틴의 세 아들이 나라를 삼분하여 다스리는 동안 서방은 아다나시우스파의 니케아신조를 견지했고, 동방은 아리우스파의 견해를 견지했다. 그러나 동방을 다스린 콘스탄티누스의 셋째 아들 콘스탄티우스가 전체 로마를 다스리게 되자 로마 제국은 전체적으로 아리우스파가 득세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 등장한 줄리안은 이교를 비롯한 모든 이단 파들을 복권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제국 전반에 걸친 그동안의 아리우스파의 우세를 끝내고 아다나시우스파가 득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것은 유배되었던 정통파 주교들이 줄리안의 조치로 복권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 수도원의 발달과 영향

1) 발생 배경

-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 기독교의 세속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금욕 생활과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은둔 생활이 유행하게 되었고 수도원이 발달하게 되었다.
- 교회가 지나치게 조직화, 규율화 사회제도화 됨에 따라 좀더 단순하고 개인적이며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특수한 사회(곧 수도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 물질적인 가치보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물질적, 육적 생활로만 기우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떠나 물질과 상관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도모하게 되었다.

2) 기원

- 수도원은 이런 저런 이유로 도시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혼자 살게 된 은둔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수도원은 처음에 동방에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유명한 은둔자는 안토니우스(Antonius, 356년 사망)이다. 그는 이집트 사람으로서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조실부모하고 누이와 같이 살았는데 항상 속세의 일들이 번잡함으로 인해 고민하다가 마19:21에

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감동하여 전 재산을 팔아 정리하고 혼자 굴속으로 찾아 들어갔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추종자가 되었다. 안토니우스는 빈부귀천을 불구하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며 돌보았다. 그리고 박해가 있었을 때는 여러 번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신자들을 격려했다.

- 안토니우스가 가는 곳에 그를 사모하여 찾아가는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유명한 은둔자가 거처하는 곳 주위에는 초막을 짓고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고 때로 서로 만나서 기도를 같이 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둔자들의 독거 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위험과 시험들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수도원이 시작되었다.

3) 규칙

- 규칙 제정의 필요성

수도원에 엄격한 규칙이 제정된 것은 수행자들의 독단적 수행으로 인해 극단적 금욕 행위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게을리 지거나 자유 방종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조직의 유지를 위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 규칙 제정자들

수도원의 규칙을 처음으로 제정한 사람은 (파코미우스)이다. 그는 나일강의 타벤나이(Tabennae)섬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계획에 따라 수도 생활을 시작했다. 파코미우스 제도의 특징

은 금욕주의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한 권위자 아래서 복종하는 것이었다. 이전의 금욕 생활에는 단지 청빈과 순결만 요구되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복종이 첨가되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며 노동을 하였다. 규칙적인 의식을 어기는 자에게는 징벌도 가했으며 훈련은 군대식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또 가이사랴의 {바실리우스}(Basillius the Great)도 애굽과 팔레스틴의 은둔자들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자신도 그런 생활을 실천하다가 수행 생활의 결점을 발견하고 친히 수도원을 세워서 새로운 타입의 수사 제도를 발전시켰다. 그의 수도원 제도의 특징은 첫째, 개인적인 수도 생활보다 조직 안에서의 완전한 공동 생활을 주력한다는 것, 둘째, 수도원 건물을 사막에서 도시 가까운 곳으로 옮겨 세우는 것, 셋째, 수도원 생활이 지나치게 엄격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기도 시간(8시간 이내)이나 고행 시간을 줄이고 일상 생활이 정상적으로 영위되도록 했다. 넷째, 학문을 닦게 했다. 이로 인해 수도원이 신학의 산실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

수도원이 이집트와 동방의 여러 나라에서 유행되어 그 수가 증가하고 여성들을 위한 수도원도 생기자, 극단적인 금욕 생활의 위험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사들은 극단적으로 기도하며 거의 미친 사람처럼 생활하기도 했다. 콘스탄티노플의 아코메타이는 주야로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였으며, 시리아의 유케타이는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였다. 이러한 극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규율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4) 서방 수도원

- 원래 동방에서 시작된 수도원 제도는 4세기 중엽에 서방에도 전파되었다.

- (1) 마르티누스(Martinus)가 고을(프랑스)에 수도원 설립함.
- (2) 암브로시우스(Ambrosius)가 밀라노에 수도원을 설립함.
- (3) 카씨아누스(Cassianus)가 고을 남부 마르세이유에 수도원과 수녀원을 설립했다. 이곳은 서방 수도원의 중심지가 되고 카씨아누스의 글은 바실루스의 규칙 번역문과 함께 수도원 생활의 표준이 되었다.

(5) 서방에서 수도원 규칙을 세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베네딕투스}(Benedictus, 480-543)였다. 그는 이탈리아의 카씨아노 산에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 수도원은 서방 수도원의 전형이 되었다. 베네딕투스가 세운 규칙은 서유럽 수도원의 전형이 되었는데 그 규칙은 다음과 같다.

- * 수도원장은 수도원 전체 선거에서 일치로 선출. 선거가 원만히 안될 때는 그 지방 감독과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처리되도록 할 것.
- * 큰 일은 전체 회의에서, 작은 일은 원장이 수도사 연장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것.
- * 수도원장이 되려는 자는 일정한 기간동안 시험을 받은 후에 수도원에 정주할 것과 엄격한 도덕을 지킬 것과 규율에 복종할 것을 서약해야 함.

- * 명상과 수행으로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노동을 장려하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할 것.
- * 처음에 수도원은 세상을 멀리 떠나 은둔하면서 개인적 신앙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레고리우스 1세는 수도원에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리고 수도원을 학문의 중심지로 만드는데는 카씨오도루스(Cassiodorus)의 힘이 컸다. 그는 수도원에서 학문을 강의하고 저술을 하면서 수도원을 학문의 전당으로 만들었다.
- 수도원은 형식적으로는 세상을 떠나 있었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일반 교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며 서로 교류하였다. 수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교나 사제로 임명되는 일이 많아졌으며, 이들이 주교로 임명되면서 수도원적인 금욕적 규칙들, 특히 독신주의를 교회의 일반 성직자들에게도 강요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수사들은 교회를 섬기려 사회로 돌아오는 반면 주교들은 영적 충전을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감으로써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다.

마. 수도원 제도의 한계

- 1) 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교회를 성경의 정신대로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

고 몬타누스파나 도나투스파와 같은 무리들이 이러한 교회 개혁의 선봉에 서 있었다. 이들 상당수는 세속적 삶에서 자기를 지켜 거룩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을 추구하였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게르만족 등의 야만인들에 의하여 로마가 초토화되고, 교회들은 국가와 결탁하여 진리에서 벗어나 타락하는 것을 본 이들은 세상(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기존 교회의 틀 안에서는 바른 신앙 생활과 성도의 참된 교제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적 삶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찾지 않는 험한 광야나 산으로 갔으며 거기서 은둔자(隱遁者)처럼 살았다. 그들은 명상으로 자기 영혼을 맑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세속적 삶을 떠나 안식할 곳으로 수도원을 찾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약하고 곤고한 자들이 피할 곳은 수도원뿐이었기 때문이다. 야만인이 득세하고 모든 것이 혼란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학문이 보전되고 성경이 필사되고 번역되고 읽혀지는 유일한 곳은 수도원이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러한 수도원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마귀는 수도원들로 하여금 우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훈련에 더 관심을 두게 만들었다.

- 2) 타락하고 물질화된 교회에 대한 반발로 수도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수도원의 수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질은 악하다'는 당시의 철학적 영향을 받아서 영적 삶을 저해하는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서 극도로 검소한 생활과 금욕적 수양을 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육체 단련과 금욕적 수행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육체의 정욕을 꺾기 위해 고행을 하거나 세속적 삶을 피하는 것은 죄와 정욕을 처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시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주의하지 않은 수도자들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직 자신들의 고행과 금욕적 노력에 의지하였고 이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그들은 점점 더 심한 고행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기괴한 행위들이 다 나오게 되었다.

- 3) 교회가 세속과 권력으로 집착할수록 수도원은 하나님과 영적인 순수함을 추구하려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수도원 생활이 곧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곧 깨닫게 되었다. 수도원의 수립과 발전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교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세속화된 로마 교회를 떠나 수도원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안에서도 참 교회가 줄 수 있는 생명과 안식을 발견할 수 없었다. 수도원들은 점차 도저히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규율적이 되었으며 종교적이고 율법적이 되었다.
- 4) 이처럼 수도원의 영적 기초가 약화되자 이제 수도원의 외형적 경건도 무너지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가난과 절대적 자기 부인(조

認)에서 시작한 수도원들이 나중에는 점차 부와 권력을 축적하게 되고 자기들이 이전에 떠나온 교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타락하게 되었다.

- 5) 수도원이 잘못 끼운 첫 단추는 그들이 인간(수도자)의 연약함을 감안하여 수많은 규칙과 율법 및 그것에 따른 수행과 훈련이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와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성령보다 조직과 제도에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의식과 훈련에 더 관심을 가진 교회들이 타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보다 조직과 제도, 말씀보다 규율과 수행에 더 관심을 가졌던 수도원들도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수도원은 더 무서운 사탄의 공작을 받아서 견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내달았는데 그것은 수도원이 교황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도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교회가 박해를 받던 때에는 별로 타락하지 않다가 국가와 세상의 환영 속에서 지지를 받고 그것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타락하고 만 것처럼 수도원도 카톨릭 교회의 관심 밖에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교회의 관심을 얻게 되고 지지를 받아서 힘을 가지게 되자 곧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말았다. 세속화되기 전에는 수도원은 타락하고 왜곡된 교회들에게 신선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수도원 자신이 세속화됨으로 인해 그들은 타락한 교회들과 함께 참된 신앙을 갈구하는 민중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또 하나의 도구

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성령님은 암흑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계속 일으키셨다. 성령님은 도처에서 일단의 무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과 '성경'을 신앙과 신학의 유일한 근거로 삼게 하시고 개인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오직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능력의 원천으로 삼게 만드셨다. 이들은 타락한 교황과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으며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다.

바. 로마 교회의 교황권 강화

니케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로마 교회와 감독의 영향력과 권위가 현저히 강화되었다.

1) 교황권이 강화된 이유

-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수도(首都)에 있는 교회였으므로 자연히 타 지역 교회들에 대해 위세를 떨칠 수 있었고, 또한 대도시 교회라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전도와 구제 사업을 많이 하며 각처에 지어지는 교회당 건축비 등 재정적 부담을 많이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영향력이 커졌다.
- 로마는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지였으므로 로마가 신앙과 교회의 중심지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따라서 로마 교회의 감독의 권위도 높아졌다.
-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치적 수도를 동방의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한 후에는 황제나 기타 유력한 사람들이 로마에 있지 않

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감독(교황)이 상대적으로 로마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

- 레오 같은 유능한 감독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만인들이 침입하여 로마가 위기를 만났을 때 레오 감독은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이를 물리쳤다.
- 343년 불가리아의 살디카에서 지방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로마 교회가 교회의 본부 역할을 하도록 결정되었다. 또한 이 결의를 근거로 하여 그후의 몇몇 로마 황제들이 로마 교회의 지위를 더욱 격상시켰다.

2) 레오 1세

레오 1세는 440년부터 461년까지 로마 감독이었다. 그는 웅변가요 설교가였으며 문학적인 재질과 행정적 정치적 재질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로마의 교권을 장악하였으며 또한 그 교권의 근거를 밝히기에 노력하였다. 그가 제시한 근거란 마태복음 16:9 말씀인데, 로마 감독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베드로를 계승한 자라는 것이다. 레오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세운 것은 기독교를 위한 것이므로 수사도(首師徒;베드로)의 교위(敎位)가 있는 곳이자 제국의 수도에 있는 교회는 당연히 모든 교회의 수장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의 서로마 제국 황제 바렌티아누스 3세는 칙령을 내려, 로마의 감독은 서방 교회의 원수(元首)이므로 이를 거스리는 것은 국가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에베소와 칼케돈 회의는 레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방 교회에서 레오는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했다. 레오는 기독교론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유능한 사람이었으나 449년에서 451년 사이에 열린 회의에서 그의 정책은 배척을 받았다. 이때부터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사이에 대립은 커 갔으며 이것은 마침내 동서교회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사. 동방의 교부들

1) 알렉산드리아와 팔레스틴의 교부들

-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 (260-339년)

유세비우스는 가이사랴의 감독이며 교회사의 아버지로서 유명하다. 그는 260년 팔레스티나에서 출생하였고 신앙으로 인해 감금된 일도 있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팜필루스에게 배우고 315년에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 그는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온건파로서 니케아 신조의 원안(原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후에 그는 황제의 은총을 입고 339년 죽을 때까지 궁정 출입을 하였다. 그는 변증, 역사, 해석, 변론 등에 대한 책을 많이 썼으나 가장 유명한 것은 {교회사}(教會史)이다. 그의 교회사는 서방 교회사의 사료(史料)보다 동방 교회사의 사료가 많다. 그의 저서는 교회사 외에도 {기독교 변증론}(20권), {유대인 변호史}(15권), {콘스탄티누스 대제傳} 등이 있고, 고대 저술가들의 저술을 발췌하여 복음에 들어가는 길을 열고자 하여 쓴 {복음의 준비} 및 유대인을 위해 예언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변증한 {복음의 증명}(20권)이 있다.

유세비우스 감독 외에도 교회사에 나오는 유세비우스는 6명이 나 되는데 그 중에서 이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는 특히 훌륭한 변증가로서 그의 교회사 역시 역사적 사실로서 기독교회가 이교와 이단들과 싸워 훌륭히 이겼다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 쓴 것이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의 뒤를 이어 교회사를 쓴 유명한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5세기 초의 콘스탄티노플의 수사학자인 소크라테스(Socrates)이다. 그는 은퇴 후 유세비우스의 역사가 끝난 시대부터 439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소조멘(Sozomen)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 같은 곳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한 사람이었는데 같은 시대의 역사를 소크라테스와는 다른 시각에서 기록하였다. 또 하나는 테오도렛(Theodore)인데 그는 387년 경 안디옥에서 출생하여 부귀영화를 버리고 전도에 헌신한 사람이다. 423년 구브로섬의 감독이 되었으나 이단 혐의를 받고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후에 이단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는 428년까지의 교회사를 기록한 교회사를 남겼다.

- 아타나시우스 (296-373년)

아리우스를 반대하여 정통적 교리를 세운 교부로 유명한 아타나시우스는 당시의 신학계에서 가장 유능한 학자였다. 역사학자 샤프는 말하기를 '콘스탄티누스가 정치계와 세속에서 니케아 시대의 중심 인물이었다면 아타나시우스는 신학계와 교계에 있어서 중심 인물이었다'고 했다.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드루스가 죽으면서 그의 후계자로 추

천되어 326년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되었다. 그는 46년 동안 감독직에 있으면서 정통 교회의 간성(干城)으로서 끈기 있게 아리우스 이단과 대항하였다. 그러나 궁정의 방침이 자주 바뀌어 33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트리야로 유배되었으며, 342년에는 로마로 유배되었고 351년에는 사막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이처럼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으나 말년에는 평화롭게 살았고 그 동안 이단을 반박하는 글을 끊임없이 썼다.

그의 저서로는 <로고스의 성육신>, <아리우스를 반격함>, <콘스탄티누스에게 바치는 변증론>, <안토니오의 전기> 등이 있다.

- 키릴로스(Cyrl)

키릴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413-444)이었으며 네스토리우스와 논쟁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의 학설은 정통적이었던 성격이 과격, 포악했으며 당파심이 강하여 적을 대하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웠다.

2) 시리아와 소아시아 지방 교부들

- 테오도레 (Theodore)

테오도레는 길리기아의 몁스에티아의 감독이었는데 성경 주석자로 유명하다. 그 단편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는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폐단에서 벗어나 시대를 앞서서 역사적 언어학적 주석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 바실리우스(Basilus the Great, 330-379)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배출된 사람들로서 정통 신앙의 중요 옹호자요 아리우스 이단에 대항하여 싸운 세 명의 감독이 있는데 {대 바실리우스}와 그의 아우인 {넛사의 그레고리우스}, 그의 친구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이다.

이 중 바실리우스 형제는 부유하고 경건한 가문 출신으로서 그의 선조들 중에는 순교자가 많이 있었다. 바실리우스는 330년에 출생하였는데 할머니의 신앙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아테네에서 그레고리 나지안주스와 알게 되어 한 평생 친구가 되었다. 그는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아테네에서 수학했고 355년 고향에서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나 한 자매의 권고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365년에 가이사랴 교회의 부름을 받고 그 교회의 부목사가 되었으며 5년 후에는 감독이 되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의 총감독이 되었다. 바실리우스는 379년 50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병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도하여 아리우스 주의에 대항했다. 그는 신학자와 설교자로서도 유명하였으나 교회를 통솔하고 지도하는 행정적 정치적 지도력이 특출하였다. 그는 수도원 생활의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저서에는 <그리스도의 신성론>, <성령론>, 설교집, 서신 등이 있다.

— 넛사의 그레고리우스 (Gregorius Nassenus, 332-395)

바실의 동생인 넛사의 그레고리우스는 형과 마찬가지로 몸이 약했는데 수사학 교사가 되었다. 후에는 형의 감화로 수도원에 들어갔고 372년에 넛사의 감독이 되었다. 그는 감독으로

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380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신학 논쟁이 있었을 때는 총회에 참가하여 가장 탁월한 신학 자로서 활약하기도 했다. 그도 자기 형처럼 삼위일체 교리와 화신(化身)의 교리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는데 그의 사상은 모든 니케아 시대 교부들 중 오리게네스의 사상과 가장 가까웠다고 한다. 그의 저서로는 아폴리나리스를 반박한 글이 있다.

-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Gregorius Nazianzus)

그는 가바도기아의 교부 중 마지막으로 바실리우스의 친구였다. 331년 출생하여 390년 경에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논나(Nonna)인데 크리스소스톰의 어머니 안투사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교회사상 유명한 어머니 중 하나이다. 그레고리는 젊을 때 장로가 되었는데 374년 감독인 아버지가 죽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나지안주스의 감독이 되었다. 그는 380년 콘스탄티노플에 초청되어 신학 논쟁에 참가하고 강권을 받아 대교구장에 추대되었다가 이듬 해에 콘스탄티노플의 대회가 열리자 그 의장이 되었다. 그는 닛사의 그레고리우스와 함께 회의의 수뇌였다.

그레고리는 유능한 설교가였다. 동방 교회에서는 크리스소스톰 외에는 그를 따를 사람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설교와 편지 및 시(詩) 등이 남아 있다.

이 세명의 가바도기아 교부들은 다 자연을 매우 사랑하였다. 그들은 자연미에 대한 감흥과 그들의 영적 열망을 결합하였다. 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 간

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오리게네스를 존경하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아타나시우스가 밝힌 입장을 지켰으나 오리겐의 입장에서 아타나시우스의 교리를 해석하였다.

- 크리소스톰 (Chrysostomus)

크리소스토무스는 346년 안디옥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장군이었는데 일찍 죽었고 어머니 안투스(Anthusa)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이 칭찬받는 신앙인이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황금의 입]으로서 그의 후례들이 설교에 능한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그는 훌륭한 성경 주석가요 설교자요 또한 법률가였다. 그는 당시 유명한 수사학자인 리바니우스에게서 문학을 배웠다. 리바니우스는 안투사를 칭찬하면서 그의 아들 크리소스톰이 그리스도인만 되지 않았다면 그의 후계자로 삼았을 것이라고 하며 아쉬워했다. 크리소스톰은 잠시 수사학자와 변호사가 되었다가 안디옥의 감독 멜리티우스에게 신학을 배운 후 세례를 받았다. 그 후 그는 안디옥 근처의 산에 들어가 수도 행황을 하였다. 거기서 그는 깊은 신앙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금욕 생활을 한 결과 건강을 해치게 되어 380년 안디옥으로 가서 집사와 장로를 거쳐 394년 안디옥 감독이 되었다. 그리고 397년에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총감독)가 되었다.

그는 같은 시대의 교부들처럼 신학 논쟁에 참가한 적이 별로 없으며 사변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특히 설교와 성경 해석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설교는 대개 본문

을 해석한 것으로서 성경 각 권을 순서대로 해설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만 600여편에 이른다. 그의 설교의 특징은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한 것 외에도 고문학의 소양이 풍부한 것과 도덕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서 당시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당시 풍속이 문란하고 사치와 방종으로 흐르는 것을 공격하였다. 심지어 그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미망인인 황태후를 공격하다가 노여움을 사서 404년 길리기아의 한 시골로 추방되기도 했다. 그는 귀양가서도 전도에 힘쓰고 신자들을 가르치며 권면하는데 힘을 썼다. 그는 407년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한 전기 작가는 그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편협한 독단설과 격한 논쟁을 피하고 실행이 없는 정통설보다 실제로 경건한 생활을 더 강조하였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그는 자기가 믿는 바를 설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설교하고, 성경에서 금하는 바를 정죄하고, 성경에서 명하는 바를 권장하였다'고 했다.

아. 서방의 교부들

1) 힐라리우스 (Hilarius, 295-368)

이 시대에 나타난 서방 교부들 가운데 가장 초기의 사람은 힐라리우스이다. 그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 프와티에에서 출생했는데 철학과 문학에 뛰어났다. 그는 장년이 되어서야 예수를 믿고 처자식과 함께 세례를 받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350년에 고향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지방은 아리우스설이 왕성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통 교리의 투사로서 투쟁하여 [아리우스를 쳐부수는 방망이]라는 별명을 얻기에 이르렀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삼일일체 신론>, <신앙론>, <시편 주해> 등이 있다.

2) 암브로시우스 (Ambrosius, 340-397).

4세기 후반과 5세기 전반에 활동한 서방 교회 지도자로서 유명한 3인은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제롬,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이 세 명을 가리켜 라틴 교회의 교부들이라고 한다. 이 중 암브로시우스는 340년 고을(Goul)의 수도 토리에서 출생하였는데 그의 부친은 로마 정부의 고관을 지냈으므로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어려서부터 큰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의 재능으로 인해 그는 젊을 때(370년) 북 이탈리아 지역 장관이 되었다. 그의 거주지인 밀라노에는 많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있었다. 밀라노의 감독 악센티우스가 죽자 후임자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를 진정시키려고 회의장에서 암브로시우스가 연설을 하자 어떤 소년이 '암브로시우스는 감독이다'라고 외쳤다.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권위있게 받아들여져서 암브로시우스는 즉석에서 후임 감독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고 있었으므로 곧 세례를 받고 감독직에 취임하였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감독으로서 헌신하게 되었다.(374년)

암브로시우스는 니케아 신조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그는 아리우스파와 평생 싸웠다. 그는 많은 책을 지었으며, 위대한 교사, 학자로

불렸다. 그는 또한 성가(聖歌)를 많이 발전시켰으며 신학과 성경 연구에 힘썼다. 또한 그는 대단한 행정가로서 교회를 잘 통솔하며 교회의 권위를 유지시켰으며 신앙 생활의 높은 표준을 담대히 지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잔혹한 학살을 감행하자 암브로시우스는 격분하여 황제의 성만찬 참여를 거절하고 공식 참회를 받은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사면해 주었다. 그는 그의 훌륭한 설교로서 아우구스티누스를 회개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저서로는 〈설교집〉과 〈성경주해〉, 〈찬미가〉 등이 있다. 암브로시우스는 강인한 성격과 불굴의 정신, 정열과 고상한 인격으로 무너져가는 제국 속에서 교회를 지탱한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 불린다.

3) 히에로니무스 제롬 (Hieronumus Jerome)

제롬은 고대 서방 교회가 자랑할만한 가장 유능한 학자였다. 그는 346년 달마티아 근교 스토리돈에서 출생했다. 그는 20세에 세례를 받고 오리게네스의 번역자 루피누스를 만나 종교 문학에 뜻을 두었다. 그는 여행을 좋아해서 수년간 로마 제국 각지를 여행했는데 안디옥에서 병을 얻어 머무르던 중 꿈 속에서 주님의 꾸지람을 듣고 374년부터 5년간 칼키스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배웠다.

제롬은 교부들 중 수도원 생활을 가장 격려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전한 묵상과 종교적 근신에 헌신하기 위해 세상을 떠나 수도 생활을 했다. 평생 그의 생활은 수도자의 자세로서 책을 읽고 저술하며 엄격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냈다. 그는 385년 동

방 여행에서 애굽수도원을 보고 부유한 과부 파울라와 함께 베들레헴에 수도원을 여러 개 세웠다. 그는 수도원장으로 34년간 일하다가 420년에 죽었다.

제롬의 일생 일대의 사업은 신구약 성경의 라틴어 번역이었다. 당시에 라틴어 성경이 있기는 있었으나 그것이 거칠고 오역이 많았기 때문에 교황 다마수스는 제롬에게 새로운 번역을 권했다. 이에 그는 먼저 388년 경에 신약을 번역했는데 이것은 이전 번역에다 일부 수정을 가해 완성하였다. 그리고 구약은 처음부터 새로 번역하였다. 약 12년의 작업 결과 완성된 이 번역은 심지어 어거스틴의 의견까지 무시하며 70인 헬라어(LXX)를 버리고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번역하려고 노력한 산물이었다. 이 라틴어는 후에 불가테(Vulgate ; 통용)로 불리며 카톨릭 교회에서 범용되었다.

자. 제국의 변천

1) 서로마 제국의 멸망

서방에서 제국 정부는 콘스탄티누스 시대 이래로 끊임없이 변경으로 밀려드는 야만족들을 저지하는데 힘을 써 왔다. 갈리아는 주기적으로 프랑크족과 알라마니아족에게 위협을 당했고, 브리타니아(영국)는 픽트족과 스코트족에게 위협을 당했으며, 주변 해역은 색슨족에게 위협을 당했다. 다뉴브강 유역의 속주(屬州)들도 고트족에게 시달렸으며, 한 번 이상 그들에게 정복당했다. 동방 황제

들과 서방 황제들이 서로 다투는 동안 제국의 국력은 약해졌고 무거운 조세가 속주들의 힘과 충성을 약화시켰다.

5세기가 시작되면서 로마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고, 마침내 로마는 410년 알레릭이 이끄는 서고트족에 의해 처음으로 약탈당했으며 그 뒤 가이세릭이 이끄는 반달족에 의해 또 다시 약탈당한 뒤 로마는 마침내 거대한 세계 제국의 수도로서의 기능과 면모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476년 로마의 최후의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게르만 출신의 지휘관인 오도아케르에 의해 폐위되었으며 이로서 로마 제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2) 제2의 로마

서로마제국은 멸망했지만 로마 제국 황제의 칭호는 제2의 로마라 불리던 동로마제국 곧 콘스탄티노플(비잔티움)의 비잔틴제국 군주들에 의해 보존되었으며 로마 제국도 동쪽에서 부분적으로 지속되었다. 특히 6세기에 등장한 유스티니아누스(527-565재위)는 영토를 확장하여 옛 로마의 영광을 대부분 회복하였고 문화도 진흥시켰다. 그러나 그의 사후 국가 재정의 파탄으로 그의 후계자들은 서방의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고 겨우 동쪽 부분을 유지하는데 급급했으며 1세기 반의 암흑과 혼란의 시기를 거쳐 11세기 이후부터 비잔틴 제국은 크게 쇠퇴하였다.

3) 동로마제국 (Byzantine Empire)

동로마제국이란 콘스탄티노플(지금의 이스탄불)을 수도로 한 로마의 동방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서쪽의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

로마 제국이 망한(476) 뒤에도 나중에 비잔틴제국의 모체가 된 로마 제국의 동쪽 영토에는 1453년까지 그리스도교와 고대 그리이스 문화, 그리고 로마의 정치 체제가 지속되었다. 이곳의 언어는 헬라어가 공용어였다. 그리이스 정교(正敎)가 국교인 이 제국은 전 중세를 통하여 그리이스 정교권의 맹주(盟主)로 군림하였다. 특히 나중에 새롭게 탄생하는 슬라브계 여러 국가에게 있어 이 제국의 정치·종교·사회·문화 및 경제는 그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었으며 콘스탄티노플은 바로 [동로마]였다.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고전 문예를 가장 잘 보존·육성·발전시켜 이것을 서유럽 여러 나라 및 이슬람권에 전하였다. 또한 이탈리아 인문주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비잔틴 제국은 1453년 봄 회교 제국인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메메트 2세의 공격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그리이스 정교회는 오스만 투르크의 종교적 유화정책에 따라 존속이 허용되었다. 성화(聖畵), 교회음악과 교회건축으로 대표되는 종교 예술은 그리스정교회와 함께 오늘날까지 비잔틴문화의 계승자로 남아 있다. 비잔틴 제국의 정치·법률·문화를 수용하고 그리스정교를 국교로 한 슬라브의 여러 국가, 특히 불가리아·세르비아·루마니아·키예프·러시아(나중의 모스크바 대공국)에는 제국 멸망 후에도 여러 방면에서 그 영향이 계속되었다. 그 중에서도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반 3세는 비잔틴제국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재위 1449~53)의 조카 소피아와 결혼하였다. 그는 비잔틴황제의 즉위식을 본보기로 대관식을 거행하고 스스로를 비잔틴제국의 후계자로 자처하였다. 또한 모스크바를 [제2의 로마](콘스탄티노플)에 다음가

는 [제3의 로마]라고 선언하였다.

차. 어거스틴

1) 생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는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 354~430)은 고대 교회가 낳은 가장 탁월한 신학자,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로마 제국 말기의 라틴 교부로서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지금의 알제리)의 타가스테(Tagaste)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시의원이었는데 성질이 사납고 방종한 인물로서 거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Monica)는 독실한 신자였다. 그녀는 어거스틴을 어릴 때부터 열과 성을 다하여 신앙적으로 양육했다.

청소년기에 어거스틴은 카르타고 등에서 수사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라틴의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도시의 퇴폐한 풍속에 물이 들어 품행은 그리 좋지 못하게 되었고 신앙도 잃고 말았다. 어거스틴은 17세 때부터 한 여자와 약 14년간 동거 생활을 했고 한 아들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감각적 본성에 일찍 눈뜬 것처럼 지성적으로도 일찍 깨었다. 19세에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감동을 받았고 그 후에 진리 탐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했으나 그에게서 지적 만족을 얻지 못하자 당시 유행하던 동방(페르시아)의 신비 종교인 마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 그는 기독교에도 관심을 가졌으나 성서의 소박한 문체나 가톨릭 교회의 보수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라는 이원론(二元論)을 주장하는 마니교의 합리주의와 미적 종교성에 이끌린 것이다. 마니교는 기독교와 이교의 사상을 혼합한 이원론 사상이었다. 어거스틴은 8년간 마니교에 몰두했으며 그 중에 마니교적인 미학서 《미와 적합》을 썼다. 그러나 마니교에 깊이 들어가자 거기에 내재해 있는 지적(知的) 도덕적 불합리를 보게 되었고 마침내 마니교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마침내 어거스틴은 383년 로마에서 신아카데미아학파의 회의주의를 접하게 되어 마니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의 권유로 384년에 밀라노로 가서 수사학 교사가 되었다. 거기서 그는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으며 그러던 중 진리의 실재(實在)를 깨닫게 되었다. 그가 주로 읽은 책은 신플라톤주의의 학자 플로티누스의 작품이었는데 386년에는 [불변의 빛]을 보았다는 체험 곧 신플라톤주의의 신비적 황홀경 체험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회의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또한 마니교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영적 실재에 대한 확신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은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했다. 이 무렵이 그의 가장 암흑기였다. 그러던 중 함께 간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 모종의 변화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은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인해 어거스틴은 차츰 기독교 설교자인 암브로시우스의 인격과 메시지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바울의 편지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읽기도 했다. 그런 중에 그는 점점 빛을 향하여 인도되었으며 마침내 근본적인 회심에 이르게 되었다.

그의 회심에는 특히 빅토리누스(Victorinus)로부터의 영향이 컸다. 빅토리누스는 로마에 살고 있는 신플라톤 학파의 유명한 학자였는데 말년에 기독교를 믿고 신자가 된 인물이다. 그는 신플라톤 학파의 철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고 또한 바울의 사상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회심 후 그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밀라노 교외의 산장에서 토론과 명상을 하면서 《독어록(獨語錄)》 등 철학적 대화편을 저술했다.

그 무렵 어거스틴은 아프리카에서 여행하고 온 폰티티아누스(Pontitianus)라는 사람에게서 애굽의 수도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자신의 초라하고 타락한 생활과 너무도 차이가 나는 새로운 삶이었기 때문이다. 어느날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로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혀 정원 풀밭에 누워있었는데 그때 마침 담 너머에서 아이들의 민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내용은 "취하여, 읽으라(Tole, lege)"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즉시 일어나 성경을 집어 읽었는데 그 부분은 로마서 13:13,14이었다. 곧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투쟁과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386년 늦은 여름에 맞은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죄악을 이길 수 있

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해인 387년 그의 나이 34세 때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밀라노를 떠나 고향 아프리카의 타가스테로 돌아갔다. 가는 중에 그는 어머니를 여의었다. 어거스틴은 고향에서 수도원을 세우고자 했다. 그 무렵 그는 아들을 잃고 실의에 잠겼으나 영적 소망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수도원 건립 계획의 추진을 위해 hippo에 갔는데(391년) 거기서 그는 반 강제로 안수를 받아 성직자가 되었으며 4년 뒤 발레리우스 감독이 죽자 그의 뒤를 이어 그곳 감독이 되었다.(395년)

그는 북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hippo에 수도원을 세웠고 거기서 많은 성직자와 수도사를 배출했다. 어거스틴은 그가 관할하는 교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고 이웃에 대해 사랑의 손길을 많이 펼쳤으며, 말씀 증거와 새 신자를 위한 교육에 힘을 썼다.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은 계속 글을 써서 당시 기독교회의 신앙적 문제를 정통적 입장에서 잘 변증하였다. 특히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에 대한 그의 변증과 변호는 유명했다. 그는 게르만족인 반달족이 hippo를 포위했을 때인 430년 8월 28일에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어거스틴은 다방면의 성격과 능력을 소유한 비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바울과 같은 회심의 체험을 가지고 가장 바울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한 번 매료되었던 플라톤 철학의 흐름과 마니교의 색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도 있다. 그의 신학 사상은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빅토리아누스, 암브로시우스 등의 서방 신학자들의 사상으로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동방의 신학자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그는 라

틴 신학을 집대성하고 장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상의 근원을 마련하였다. 그의 사상은 포용하는 바가 크므로 자연히 모순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사상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개인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단체적이기도 했다.

민중들과의 접촉을 통한 어거스틴의 사색은 성경의 문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어 전달하려고 하는 '해석학적'인 방법을 취함으로써 더욱 깊어져 갔다. 그 동안 마니교도와의 논쟁, 타락한 성직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도나투스파와의 논쟁, 인간의 자유 의지로 죄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믿는 펠라기우스파와 같은 이단과 벌인 말년의 논쟁 및 로마 원로원의 이교주의(異敎主義)에 맞선 변증(辨證) 등을 계기로 그는 많은 신학적·철학적 작품을 발표하였다.

2) 사상

- 신론

어거스틴의 신론의 주요 사상은 신을 '인격적 체험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었다. 언제나 사람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고 선을 주실 수 있는 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을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플라톤 학파의 용어를 사용했다. "신은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순수, 절대자시요 모든 실존의 기반, 근원이다." 이런 관념에서 그는 삼위일체를 다룰 때도 신의 단일성을 강조했다. 그의 대작 [삼위일체론](On the Trinity)은 이후 서방 사상을 결정적으로 지배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그

는 자존하시며, 전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롭고, 자비하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에 속해 계시며 창조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삼위 일체는 구별될 수 없다." "삼신(三神)도 아니고 삼선(三善)도 아니고 오직 선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구별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로 일하신다." 터툴리안이나 오리겐, 아타나시우스는 성자와 성령이 성부께 종속된다고 가르쳤으나 어거스틴은 신의 단일성을 강조하여 삼위의 완전 동등함을 가르쳤다. "삼위는 너무도 동등하사 신성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보다 더 크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성부 성자의 합체도 성령보다 더 크지 않으시다." 그는 삼위(三位) 곧 위격(位格, person)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으므로 그 용어를 쓴다고 했다. 그는 "삼위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인간의 용어는 너무 빈약하여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쓴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비교법을 써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예로 기억(memory), 이해(understanding), 의지(will)로 표현한 것이나 lover, loved, love 등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

— 그리스도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두 성품을 똑 같이 강조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온 세계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세상의

사람이시다.....그러므로 그가 신(神)이신 점에서는 그와 아버지
 지와 하나요 그가 사람이신 점에서는 그보다 아버지가 더 크
 시다.....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니 그
 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일관성 있는 분명한 설명 없이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
 님께 드린 희생 제물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죄악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기 위한
 대속물이라고 했다.

- 은혜론

어거스틴에 의하면 사람은 선하고 바르게 창조되었고 자유 의
 지를 가졌으며 범죄치 않고 영생할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본성에 아무 충돌이 없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였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이런 상태에서 타락했는데 그 죄의 본
 질은 교만이고, 그 결과는 선(善)의 상실이었다. 하나님의 은
 혜는 박탈되고 그의 버림을 받은 영은 죽었다. 영의 지배에
 서 떠난 사람은 정욕(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아담의 죄
 의 결과는 온 인류를 포괄했으며, 만일이 아담 안에서 죄인일
 뿐 아니라 다 정욕에서 났기에 큰 죄인들이 되었다. 결국 온
 인류는 갓난 아기마저도 멸망할 자식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식이 되었다. 이처럼 어거스틴은 죄의 원인이 의지에
 있음을 말하였고 아담의 죄는 유전된다고 하여 죄의 유전설
 (traducianism)을 취하였다.

죄가 유전되고 의지는 죄 때문에 속박을 당하게 되었으니 인간
 은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죄의

절망 상태에서 은총은 구주밖에는 없으며, 구주밖에는 인간을 구한 이도, 구하는 이도, 구할 이도 없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주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형벌하시고 구원하실 자들을 '예정'하시는 것이다. 이 같은 그의 사상에서 예정론이 나타난다.

어거스틴의 은혜의 교리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자유 의지를 상실한 원죄의 인간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의해서만 속죄될 수 있으며,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구원받자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예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교회론

그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교회에서만 성령이 부어주시는 참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카톨릭 교회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교리와 조직면에는 정통이지만 배교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성례 집행을 허락한 카톨릭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부정한 도나투스파에 대해 '교회의 일치를 원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카톨릭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단들이 받는 것은 다 카톨릭 일치가 주는 특별 은사인 모든 죄를 가리우

는 사랑이다' 라고 말했다. 또 성례는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 아니므로 그 집행자에게 효력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고 하여 타락한 사제로부터 받는 세례나 성찬이 유효함을 말했다. 이를 통해 그는 인격(영)과 분리된 의식(儀式)의 의미를 인정하였다. 즉 의식은 그 자체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는 "성례는 카톨릭 교회밖에서 받은 것도 유효하나 그 결실은 카톨릭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니 이유는 거기서만 교회가 증거하는 사랑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요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성례론

어거스틴은 성례에 교회의 모든 거룩한 관습과 의식을 포함시켰다. 성례는 거룩한 것들이 의미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시이다. 그래서 그는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逐邪), 안수, 결혼, 세례후보자들에게 주는 소금까지 성례로 보았다.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은 특별 성례로 보았다. 그는 교회는 성례로 결속된다고 했다. "종교가 가짜건 진짜건 신자들을 뭉쳐 성례전이나 눈에 보이는 상징의 띠의 역할 없이는 종교 단체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더구나 성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 하여 "세례를 받지 않은 자나 성만찬에 참여치 못하는 자는 구원과 천국, 영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 인간론

젊은 시절 어거스틴은 《독어록(獨語錄)》에서 하나님과 영혼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때 그의 사상은 이미 고대 철학의 우주론적 관심에서 벗어나

인간학적 지평을 열고 있었다. 우주 속의 미소한 존재인 인간이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 그 은총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사상이 그의 철학의 근저를 이룬다. 또한 그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나누어진 존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된 통일체로 파악하였다.

어거스틴은 {利用}(uti)과 {누림}(frui)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저서 {행복한 삶}에서 그는 '행복이란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 교의》제1권 첫머리에서 누림(frui)이란 '이용(uti)'과 관계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자체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용한다'(우티)는 것은 事物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용이 아니라 누림의 유일한 대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나, 이용에 그쳐야 할 하나님 외의 모든 사물을 누리는 행위는 도착적(倒錯的) 사랑에 빠진 것과 같다고 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서도 이 세상을 적극 이용하는 그의 사상은 이렇게 탄생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사상은 대체로 명료하지만 모순적인 부분도 많다. 그것은 그의 사상이 당시의 교회 전통에다 그의 종교적 신플라톤 철학을 혼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구원은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라는 예정론을 가르치는 한편 성례전 특권을 가진,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진정한 경건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율법적 수도원적 금욕주의도 적극 지지했다. 이런 점에서 중세기는 어거스틴을 넘지 못했다. 그의 학설의 모순들을 조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후대의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3) 저술

어거스틴의 저서는 매우 방대하다. 철학적·신학적 저술 외에 일상의 목회 활동에 기초한 많은 설교집, 《시편 강해》, 《요한복음 강해》와 같은 성경 주해와 이단이나 이교도들과의 논쟁적 변증서 및 편지들도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자주 읽히고 있는 책은 다음과 같다.

- ①《독어록》(2권, 386~387) : 초기의 대표적인 철학적 작품이다. "하나님과 나를 알고 싶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라는 대화로 시작된다. 이 책은 그가 진리의 근본이라고 믿던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 탐구한 책이다.
- ②《그리스도교 교의》(4권, 396~427) : 성경의 내용을 발견하는 방법(1-3권)과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4권)으로서의 해석학적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 ③《Confession, 참회록》(13권, 397~400) : 가장 유명한 책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한 글이다. 11-13권은 창세기 첫머리를 둘러싸고 미래의 삶을 논하였다.
- ④《삼위일체론》(15권, 400~421) : 하나님의 삼위일체성(三位一

體性)과 인간 영혼의 삼위일체성을 비교하였다. 1-7권은 삼위일체론의 전통적 교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인 8-15권은 믿음의 세계를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주어진 삼위일체론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⑤《Civitas Dei, 하나님의 도성》(22권, 412~426) : 이 책은 어거스틴의 일생 일대의 대작으로서 412년에 쓰기 시작하여 14년 후에 완성되었는데 410년 야만인들이 침공하여 로마를 약탈함으로써 기독교의 도성 로마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쓴 것이다. 어거스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고찰하면서 결국 지상 나라를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다스리심)는 영구불변하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다. 10권까지는 이교도에 대한 반론, 22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나라의 관계를 역사신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어거스틴의 저술은 크게 다섯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성경 주석들이고, 둘째는 변증적 저술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셋째는 마니교, 도나투스파, 펠라기우스파 등의 교리에 대해 반박하는 논쟁적 변증서들이며, 넷째는 금욕적인 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독백과 명상으로 이루어진 책들이다. 다섯째는 자서전적인 책인데 그의 참회록 및 만년의 생애를 기록한 회상록과 270통의 서신이 있다. 이러한 방대한 저술에 대해 샤프는 이렇게 말했다. "어거스틴은 그의 풍부한 사상을 다 기록해 놓았다. 그가 이처럼 많은 저술을 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지식에 있어서 그는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 제롬 등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사상의 깊이와 풍성함에 있어

서는 모든 헬라 및 라틴 교부들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

4) 어거스틴의 잘못된 교회관

어거스틴은 서방 제국의 몰락을 보면서 자신의 유명한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비록 지상 최대의 위대한 도시는 몰락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도성인가에 대한 견해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낳고 말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카톨릭 교회를 그 신국(神國)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만 그리고 교회의 성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세주의 손에서 구원을 빼앗아 인간의 손에 맡긴다는 것, 구세주와 죄인 사이에 인간이 만든 체계를 끼워 넣는다는 것은 복음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제나 교회도 그 사이에 끼어들 권한은 없다.

교회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어거스틴, 특히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지 못하고 사소한 이유로도 분열되며 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던 것에 대해 혐오하던 어거스틴은 거듭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실체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지나치게 교회의 외형적 일치를 중시한 나머지 교회의 영적 생명력과 교회의 궁극적인 일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는 각 지역 교회들이 그리스도 및 성령님과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다른 교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하였다. 그는

교회가 성령 공동체임을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 그가 교회도 세상 조직의 일부라고 보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교회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며 또한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일치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징벌이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르침에 의한 깨달음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좋다. 그러나 가르침에 의해 더 좋은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대의 명분 때문에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베드로나 요한을 부르심같이 바울을 부르셔서 굴복시키기 위해 주님은 말씀(소리)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멀게 하시는 방법도 사용하셨다. 그러나 교회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강권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 어거스틴의 이런 사상은 로마 교황으로 하여금 이교도였던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했던 것과 유사한 잔혹한 박해를 교회들에게 행하도록 부추기고 독려했다. 비록 단순하고 정열적이며 온건한 기질의 소유자였지만 성경의 원리에 철저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였다 할지라도 광범위하고 잔인한 박해 조직에 연루되게 되었던 것이다.

카. 펠라기우스 논쟁.

1) 배경

동방 교회가 기독교론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서방 교회는 죄와 구원 문제에 대해 논쟁을 했다. 그것은 라틴인들의 특성이 이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문제보다 실제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헬라 교회는 主知的 성격을 띠었다. 종교는 하나님과 우주에 대해 옳은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 위에 세워지는 도덕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인간의 현 상태에 관한 견해는 일반적으로 낙관적으로 기울었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적극적인 반응에도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라틴 교회는 인성(人性)에 대해 것처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죄의 유전(遺傳)을 가르친 이후 암브로시우스나 힐라리우스 같은 학자들은 원죄의 관념을 기초로 하여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한다고 주장할만큼 철저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것이 어거스틴 시대에 와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상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이런 사상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더욱 분명하고 철저한 입장으로 확립되었다.

2)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는 영국인 수도사로서 5세기 초에 로마로 와서 도덕의 부패를 보고 이를 바로 잡기에 힘쓴 사람이다. 그는 성질이 온순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지식이 많고 총명한 사람이어서 어거스틴

조차 그의 인격을 인정했다. 그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노력에 더 의존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 그는 카르타고의 장로가 되려고 했으나 파울리누스의 반대로 되지 못하고 나중에 에베소의 장로가 되었는데 제자들에 의해 그의 학설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431년 에베소에서 열렸던 세계 대회, 곧 네스토리우스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한 회의에서 펠라기우스의 사상 역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 3)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 의지에 관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어거스틴은 생전에 펠라기우스(Pelagius)와 많은 논쟁을 벌였다. 평신도였던 그는 30세 경에 성경에 관한 책을 저술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펠라기우스는 일종의 개혁자였다. 신앙을 고백한 자들의 방탕하고 방종한 삶이 그로 하여금 인간의 책임과 자유 의지에 대해 강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진리의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졌다. 그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말았다. 펠라기우스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은 그가 어거스틴과 같이 인간의 죄와 무능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거스틴과 같은 깊은 영적 체험을 갖지 못했으므로 이 문제를 단지 원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 자신의 '선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적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거스틴은 인류의 시조 아담은 본래 죽지 않아도 되도록 지음 받

있지만 범죄로 인해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아담은 본래 죽을 인생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며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인류 전체에는 무관하다고 말했으며, 아담의 죄는 죄의 성질 또는 도덕적 부패를 자손에게 유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죄의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의 인류는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와 같은 상태에 있으며 다만 죄의 유혹하는 힘이 강해졌을 뿐'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원죄란 없고 모든 사람의 죄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였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선택의 힘}과 {실제적 선택}과 {선택한 바를 실제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첫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둘째와 셋째는 (일단은 첫째 것에 의해 성립되기는 하지만) 선택의 주체가 사람이며 실행하는 것고 사람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폈다.

또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는 유전이 되므로 유아에게도 원죄가 있음을 주장했다지만 펠라기우스는 어린 아이는 무죄의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말했다. 또 어거스틴은 인류의 죽음은 아담의 범죄와 죽음으로 인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온 인류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만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 선을 택하여 실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율법도 복음과 같이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주장했다. 또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무죄한 자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유아 세례를 가르치긴 하였으나 카톨릭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중생의

수단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어린 아이를 은총의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과 생명,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가르침은 카톨릭 교회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에 반대한 어거스틴은 회중들 앞에서 150년 전 키프리안이 쓴 글, 곧 '어린 아이들도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부분을 인용하여 펠라기우스에게 교회의 교리와 관례로부터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는 크게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널리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가 소집되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펠라기우스를 무죄라고 옹호하였고 서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였다. 서방 교회의 이런 입장은 하나님의 의지를 인간의 의지보다 앞세우는 라틴 교회의 어거스틴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회의는 로마 교황 인노센트(Innocent)에게 판결을 의뢰하였고,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낼 기회를 가졌다. 교황은 펠라기우스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정죄하여 파문시켰다. 그러나 그의 후임자인 조시무스(Zozimus) 교황은 그들을 다시 복위시켰다. 이로 인해 서방 감독들이 다시 카르타고에서 모여 펠라기우스파를 파문시키고 재산을 압류시켰다. 이를 본 조시무스 교황은 자신이 불리해짐을 느끼고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펠라기우스를 정죄하였다.

펠라기우스의 가르침 속에는 진실하고 유익한 부분도 많으나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의 전체적인 방향은 성경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과 죄

의 종된 상태를 스스로 알고 있으며 삶 자체가 그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우리가 첫 사람 아담과 생명과 본성을 공유함으로서 그의 죄를 지고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다. 우리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길을 찾을 수는 없으며, 오직 그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써 그런 길을 열어주신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민음으로써만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4)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신학적 차이

- 구원 : 하나님의 예정, 불가항력적 은총 /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 죽음 :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 / 처음부터 죽게 정해진 것임
- 죄의 유전 :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 / 아담만, 인류에게 유전 안됨
- 원죄 : 유아에게도 원죄 있음 / 유아는 타락전 아담처럼 무죄
- 방법 : 그리스도만이 구원 / 율법도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
- 오직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함 /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무죄한 자가 있었음

5) 반(半) 펠라기우스 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속에서 새로운 조화를 위해 반(半) 펠라기우스설이 나왔다. 이 설은 마르세이유에 수도원을 세운 카시아누스와 레이의 감독 파우스투스 등이 주장했다. 반펠라기우스설은 펠라기우스설처럼 인류의 죄악을 가볍게 보지는 않는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죄로 인해 의지가 속박당하고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거스틴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어 각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이것을 받든지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알미니안의 주장과 비슷함) 어거스틴의 주장과 차이가난다.

타. 니케아 시대의 생활상

이 시대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크고 웅장한 교회당 건물이 건축되었다는 것이다. 박해 시대에는 집회소로 모일 건물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하던 교회들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처럼 보호받게 되자 이제는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교의 사당을 개조하거나 일부를 수용하여 사용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건축은 바실리카 양식이 가장 많았다. 바실리카 양식이란 넓은 홀이 주랑(柱廊)으로 둘러싸여 있는 양식이다. 그밖에 원형, 혹은 다각형의 건축물들도 있었다. 이런 양식들은 세례당 혹은 순교자의 기념당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동방에서는 보통의 집회를 위해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동방에서 행해진 건축 양식은 비잔티움 양식이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길이가 같은 네이브(nave)가 그 중심을 교차하여 십자형을 이루고 그 위에 둥근 지붕이 있어서 하늘을 상징하는 양식이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교회당이 이를 대표한다.

굴 무덤의 벽 또는 석관의 외부에 조각을 하는 풍습은 이 시대에 널리 행해졌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인 성질을 띠었지 조각품을 경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기술은 5세기 중엽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림은 점점 더 많이 사용되었다. 순교자를 위해 세운 회당에 순교의 시종을 그리거나 성경의 사실을 그리는 일은 이전부터 있던 풍습이었으나 그리스도를 직접 그리는 것은 피하였다. 그러나 키릴로스가 네스토리우스파와 싸워서 승리한 후 예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화상을 사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오랜 초상은 440년 경의 것으로서 예배를 위해 그린 것이다. 그 후 6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의 초상을 회당 안에 걸뿐 아니라 집집마다 보관하여 모시게 되었다.

성자들을 숭배하는 풍습은 순교자를 숭배하는 풍습에서 시작되었다. 순교자의 무덤 앞에서 예배를 보는 풍습은 나중에 그곳에 회당을 세우는 풍습이 되었고 회당을 세울 때 순교자의 유골을 옮겨서 제단 밑에 간직하는 풍습이 행해졌다. 기도할 때 죽은 순교자들이나 사도 혹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도움을 구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는 성자들을 찬미하며 그들이 인류를 수호하며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자라고 했으며 암브로시우스나 제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순교자를 존중하는 풍습은 나중에 그의 유물과 유골까지 숭상하는 풍습으로 확대되었다. 그것은 그런 물건들에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자들의 유물이나 유골이 고가로 매매되기도 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다. 바실리우스는 마리아에 대해 그녀는 예수를 낳은 후 다른 자녀도 낳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에피파니우스에 이르러서는 그런 생각을 정죄하고 이단시하여 영구처녀설을 확립하였다. 당시에도 마리아를 성부 성자와 성령을 경배하는 것처럼 직접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원칙이 있었으나 마리아 숭배는 점점 보편적이 되어 갔다. 직접 경배는 않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리아를 불러서 도움을 받는 것은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시행되었으며 마침내 마리아는 인류의 구원에 참여하여 역사하는 힘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암브로시우스와 같은 사람은 창세기 3:15를 마리아 숭배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에베소 대회때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러도 좋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것을 직접 금하는 말씀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저하였으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면서도 행하였다. 이것은 점점 습관이 되어 성자들의 이름과 함께 이것을 섬기게 되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경계하였으나 암브로시우스는 이것을 피하지 않았다.

이 시대의 집회(예배)는 사도 시대의 형태와 많이 달라졌다. 이미 속사도 시대에도 그러한 경향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임은 말씀(설교) 중심이 아니라 거의 의식(儀式) 중심이 되었다. 설교는 서방보다 동방에서 더 왕성하였다. 서방은 일반적으로 설교보다 의식을 중시했다. 그러나 동방은 원래 수사(修辭)와 문장(文章)이 발달한 지역이었으므로 강론이 흥왕했으며 대 설교자들도 많이 나왔다.

부활절 풍습은 전 시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 시대에 들어서 나타난 변화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풍습이 생겼다는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성탄절 기원은 로마 감독 리베리우스 당시 (354년)에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정하고 축하한 것이다. 그후 379년에 이르러서는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에서도 축하되었고 이집트와 팔레스틴에도 전해졌다. 본래 성탄절 풍습은 로마의 이교 풍습에서 비롯되었다. 로마에서는 12월 말에 세 가지 축제가 행해졌다. 첫째는 사투르나리아(Saturnalia, 17-24일)인데 이것은 사투룬 신이 지배한 황금 시대를 기념하는 제사로서 이 절기에는 모든 민중들이 환락에 함께 빠졌다. 둘째는 시길라리아(Sigillalia)인데 12월 하순에 거행된다. 이때는 어린 아이에게 인형을 선사하며 아이들로 하여금 즐기게 한다. 셋째는 브루마리아(brumaria)인데 이것은 동지(冬至) 제사이다. 이는 태양 빛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모여서 다른 의미의 축하 행사를 가질 필요를 느꼈다. 이에 그리스도는 참 태양이니 이 무렵(동지)을 구주 탄생의 날로 축하하자는 아이디어가 실현되어, 성탄절이 이 로마 축제 기간 중에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에는 성경의 번역과 위경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50부의 신약 성경을 양피지에 복사하여 주요 교회에 기증했다. 여기에 포함된 성경들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성경들(베드로서, 계시록 등)일지라도 정경으로 확증되는 효과를 얻었다. 365년에 아타나시우스는 구약 22권과 오늘날 인정된 신약 27권을 열거하면서 여기에 더 보태거나 빼지 말라고 했

다. 그러나 363년 라오디게아에서 열렸던 지방 대회에서 제정한 규칙에는 신구약 66권 중 계시록만 빼고 나머지를 다 포함시켰다. 그러나 393년 히포와 397년 카르타고에서 열렸던 지방 대회에서는 신약 성경은 지금의 것과 같이 정했고 구약은 정경 외에 외경(Apocrypha)이 추가되었다. 제롬의 라틴역 성경의 목차는 지금 성경과 같다. 외경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추가되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대략 이 시대에 완전히 정해졌다.





3 장

/

중세시대 교회사

제3장 중세시대 교회사

훈련 목적

- *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 역사를 이해한다.
- * 시대별 교회 역사를 이해한다.
- * 올바른 선교관을 이해한다.
- *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경을 읽는다.
- * 교회 역사에 관한 도서를 읽는다.
- * 교회 역사에 관한 영상물을 시청한다.
- *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 * 교회가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운 것임을 인식한다.

1. 592년 이후 중세시대 교회역사

가. 서론

중세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눌수 있다.

초기시대는 592년 교황 그레고리 1세로 시작하는 교황권의 확대로부터 800년 신성 로마 제국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중세교회의 선교와 수도 원제도가 확립되었다. 이기간 동안에는 어거스틴 신학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으며, 반-어거스틴 신학의 정립으로 중세 전반에 걸쳐서 어거스틴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중세교회가 외부적인 침입을 받아서 기독교권의 침체와 축소를 맞

이하였던 기간이다.

중기 시대는 교황권의 확립을 이루었다. 교회의 세력확보는 내부적인 부패를 의미한다. 중세교회는 정치적인 결탁에서 오는 재력의 확보를 인한 시문주의, 교황권을 둘러싼 음란주의가 부패하는 개혁으로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오토 대제의 개혁운동, 수도원의 개혁운동 등이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제도권내에서의 개혁운동은 한계가 있었으며, 이 시기 동안에 제도권 교회에 대한 각종 반향운동이 있었다. 첫째, 제도권에 도전하는 개혁운동으로서 영국과 폴란드에서 일어난 운동, 둘째, 제도권을 떠나서 도피적인 입장을 취하는 수도원적 공동체운동, 셋째, 각종 이단운동, 그리고 넷째, 신비적인 미신신앙의 유행이었다. 교회는 이러한 운동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켜서 중세 교인들의 반발을 해외로 돌림으로써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다.

중세 후기 교회는 십자군전쟁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둘로 나누임으로 인해서 교권의 실추가 가속화되었다. 중세교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교회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유명론 신학 이론을 들여옴으로써 교회의 타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중세교회는 신학적으로 인간의 힘에 의한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하였으며, 교회가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대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교회는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부담 없이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위 말하는 문예부흥 교황들은 앞을 다투어서 화려한 교회당을 건축하였으며, 이것이 곧바로 중세의 패망을 가져오게 하였다. 중세는 여기에 덧붙여서 스콜라신학의 흐름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스콜라신학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세를 이론적으로 개괄하려고 한다.

나. 중세 초기의 신학

후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테오도릭 아래서 집정관과 궁정 자문관을 지냈던 보에티우스와 두사람이 세운 신학의 학문적 전통은 중세 초기의 신학적 전통을 확립시켰으며, 더 나아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신학의 두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 보에티우스

보에티우스는 로마의 안키라 출신으로서 로마의 새로운 통치자로 등장한 오스트로고트의 테오도릭 황제 아래에서 집정관과 궁정 자문관까지 지냈던 고위직 관리였으나, 말년에 이르러서 반란의 혐의를 받아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철학의 위안]을 기술해서 어떻게 영혼이 철학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가를 밝혔다. 즉 그는 후대로 하여금 학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주지주의적 신앙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기독교 신학에 관한 저서로는 [삼위일체의 통일성에 관하여]과 [그리스도의 위격과 두 본성에 관하여]등을 고전적인 용어로 기술함으로써 중세 초반의 신학적 흐름을 정립시켰다., 보에티우스의 학문적 역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라틴어로 번역함으로써 중세의 학문적 기초를 세운 점이며, 동시에 보편 논쟁을 일으킴으로써 중세 전반에 걸쳐서 학문적 연속이 이어지게 하였다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위- 디오니시우스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도행전 17:34에 등장하는 디오니시우스의 저작으로 알려진[하늘의 계층구조에 관하여],[교회의 계층구조에 관하여], 그리고 [신비신학에 관하여]등의 책들이 중세 초기에 널리 유행하였다. 중세에서는 세 가지의 신학의 길이 있었다. 첫 번째는 긍정신학이다. 두 번째는 긍정신학의 부족을 부정신학으로써 끊임없이 시정한다. 마지막으로 신비신학이 완성한다. 신비주의적 신학이 언제나 밑받침을 이루었으나 너무나도 지나치게 흐를 때에는 광신적인 열광주의로 흘러서 종말을 예언하는 등 사이비적인 면을 지니기도 한 반면에, 논리적 신학은 언제나 지배층의 이론신학이 됨으로써 교회와 국가의 타락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다. 중세 초기의 선교

중세는 3가지 방면으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기독교권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 1) 영국의 선교 : 켄트족의 개종 율리우스 시저가 기원전에 정복하기 시작하였던 영국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기독교 국가로 성장하다가 410년 로마의 멸망과 함께 로마군이 철수하자 색슨족, 앵글족, 쥬트족등의 침입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일으킨 사람은 교황 그레고리 1세 였다.

영국의 선교와 개종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성직자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가져왔으며, 로마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위성국이 되었다.

2) 아일랜드와 북유럽의 선교

아일랜드는 431년 교황 카일레스틴이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나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성패트릭의 선교로 기독교의 개종이 이루어졌다.

아일랜드는 또 다른 선교의 거점이 되었으며, 중세 수도원에 성경 복사, 학문적 전통, 그리고 선교의 정열을 심어 주는 좋은 전통을 수립하였다.

라. 중세초기의 신학전쟁;기독론 논쟁의 계속

451년 니케아회의의 결정은 제국에서 원하는 대로 온전한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칼케돈신조의 신학적 흐름은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쪽에 더욱 유리하였기 때문에 안디옥 계열에서는 자연적으로 안디옥 신학적 흐름에 서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특히 칼케돈신조를 전체적으로 반대하면 제국의 통일을 반대하는 위험스러운 인물이 된다는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신도의 내용 가운데에서 '두본성으로 된'이라는 부분을 싫어 하였다. 이들은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유티케스를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공존체라고 고백하였다. 황제 찬탈자 바실리스쿠스는 엠시아클론]을 출간해서 칼케돈신조를 무효화시키려 하였으나, 그가 쫓아 낸 황제 제노가 다시 복위함으로써 그의 계획은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황제 제노는 제국의 통일을 위협하는 칼케돈신조를 드러내 놓고 반대하지는 않

았으나, [통일칙령] 혹은 [헤노티콘]을 482년에 발령하였다. 헤노티콘은 실제적으로는 말씀 - 단성론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었으나 칼케돈신조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인 언어적 의미의 장벽을 제대로 밝혀 내지 못하였다. 헤노티콘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칼케돈신조를 옹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성론을 보호하였다.

마. 회교의 발달과 기독교권의 축소

570년 메카에서 출생한 모하메드는 부모를 잃고 삼촌의 손에서 자랐다. 622년 7월15일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하였는데, 이 날을 회교도에서는 헤지라라고 부르며 또한 회교도의 기원 원년으로 삼는다. 이렇게 출발한 회교도는 한 손에는 코란을, 한손에는 칼을 들고서 칼리프 아부 바크르가 아라비아 전역을 점령하였으며, 칼리프 오마르는 635년 다마스커스를, 638년에는 예루살렘을 각각 점령하였다. 동시에 또 다른 회교도들은 이집트를 침공해서 오늘날 카이로로 알려진 도시를 건설하고 642년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였으며, 647년에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을 따라서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651년에는 페르시아까지 완전히 점령하였다.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시작한 회교도들은 695년 카르타고를 점령하고서 그때까지 존속하였던 모타누스 교회, 도나투스 교회, 아리우스파 교회, 그리고 단성론파 교회들은 모조리 회교도화 시켰다.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스페인을 점령하기 시작하였으며, 732년에는 피에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까지 침공하다가 투르에서 프랑스의 망치왕 찰스를 만나서 퇴격당한 이후로 스페인의 코르도바에 독립적인 칼리프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들 칼리프

제국은 유대교도들과 기독교도들에게 회교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거주를 허락하였으며, 이렇게 스페인에서 회교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거주를 허락하였으며, 이렇게 스페인에서 회교도 밑에서 잔존하였던 기독교도들을 '모자람'이라고 부른다.

기독교권은 회교도들을 맞이해서 유럽의 동쪽과 남쪽에서 축소 되었다.

바. 신성로마제국의 건설

신성로마제국의 건설은 게르만족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첫출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지금까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야만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여 왔던 게르만족들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는 이러한 학문적 부흥의 기간을 카롤링 문예부흥이라고 부르며, 이 기간동안에 언급되어야 할 중요한 사건은 성찬 논쟁, 예정론 논쟁, 사고백제도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필리오케 논쟁 등이다.

1) 성찬 논쟁

성찬 논쟁은 프랑스의 코르지 수도원의 원장을 다같이 역임하였으며, [주님의 몸과 피에 관하여]라는 동일한 제목의 책을 저술하였던 두 사람의 견해에 얽힌 사건이다.

중세는 라드베르투스스의 견해를 추종하고 라트람누스의 견해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거의 잊혀져 있었다가 쾰빙글리리 추종자들에 의해서 다시금 거론됨으로써 트론티회의에서 금서목록에 삽입되고 알았다.

2) 예정론 논쟁

중세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대로 어거스틴의 은총론과 예정론을 어거스틴이 말하였던 원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렌지회의에서 결정된대로 방아들임으로써 순수한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배격하기에 이르렀다.

3) 사면고백제도의 발달

고대로부터 교회는 공적인 참회제도를 유지 했었다. 그러다가 박해로 인한 배교자들의 재입교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서 대립을 벌이다가 온건파가 승리하게 되었다. 314년 안키라회의는 참회자의 사면에 이르기까지를 이렇게 규정하였다.

제 1 단계 : 우는 자의 단계.

제 2 단계 : 청문자의 단계.

제 3 단계 : 무릎 꿇는 자의 단계.

제 4 단계 : 서 있는자의 단계.

참회기간은 통상적으로 3-4년이 소요되었으나 정상에 따라서 단축되기도 하고 연장되기도 하였다.

4) 필리오케 논쟁

필리오케 논쟁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가 서방교회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었다. 논쟁의 발단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조가 성령에 관해서 "아버지로 부터 발출하신다." 라고

단순하게 언급한 데 있었다

결론적으로 신성로마제국의 설립 자체가 다분히 교회와 정치 양쪽 측에게 정치적인 속셈이 있었다. 로마는 410년 이래로 위축되었던 옛 로마 교회의 영화를 되찾으려는 마음에서 정치적인 힘이 더 요구되었다. 또한 게르만족 출신이었던 살리안 프랑크 왕조는 자신들의 야만성을 은폐시키려면 기독교라는 문화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호 이익적인 입장에서 출발하였던 신성로마제국은 살레만뉴가 죽은 이후로 왕권이 축소된 반면에, 교권은 교황들의 재치 빠른 활동으로 더욱 확고히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교황권의 증대가 가속화되었으나 반면에 교회의 부패가 또한 초래되기도 하였다.

사. 교황권의 증대와 교회의 부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위기를 극복한다. 본장에서는 교황권의 증대와 부패,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황권 증대를 위한 문서들

- 콘스탄틴 증여문서

이문서의 목적은 교황권이 살레만뉴의 황제권보다도 최소한 5세기 앞에서부터 세속권까지 보유 하고 있었음을 밝혀 보자는 데 있었다.

- 이시도르의 거짓 교령집

이 교령집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디오니시우스의 모음집에서 발췌한 50개의 사도적 교회법을 정리한 다음에,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로부터 멜키아데스에 이르기까지 발표되었다고 여겨지는 60개의 거짓교령을 싣고 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콘스탄틴 증여문서'를 싣고 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교황 실베스터로부터 그레고리 2세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교령을 싣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35개가 거짓이었다. 이 거짓 교령집의 목적은 교황 중심적인 신정통치를 밝히려는 데 있었음이 분명하다.

2) 교회의 부패

중세교회의 부패의 두 가지 요인을 일반적으로 니콜라주의와 시몬주의라고 부른다. 니콜라주의는 교회의 음란을 말하는데, 중세의 성직자들이 고백해야 할 부끄러운 면모였으며, 시몬주의는 교회가 치장과 사치에 빠져서 재정적인 필요를 메꾸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추문이었다.

- 니콜라주의: 1139년 제2차 라테란회의에서 성직자의 결혼은 불법이며, 또한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트렌트회의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교회법이 되었다.
- 평신도 서임권 논쟁과 시몬주의: 문제의 핵심은 중세는 살레만뉴 이후로 토지를 근간으로 한 봉건 영주제도에 의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토지를 경작하는 시민들과 이들을 지키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봉건군주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유럽을 지탱시켜 주는 기반이었다. 서임권 논쟁은 결과적으

로 교황청의 승리라고 할 수 있으나, 교황청은 이 승리로 인해서 내부적인 부패에 빠져서 결국은 중세교회의 멸망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아. 수도원의 부패와 개혁

중세 수도원 제도는 성베네딕트에 의해서 기초가 잡힌 이래로 경건과 학문, 그리고 선교와 사회봉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었다. 바로 이 장점이 또한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 수도원이 내부적으로 부패할 수 있었던 원인은 크게 볼 때에 금전과 권력에 관한 부분이었다.

수도원 세속화에서 생긴 자금으로 학교를 건설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로서 우리는 영국의 월시 추기경이 설립하였던 그리스도 대학을 거론할 수 있다.

개혁은 새로운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개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자. 중세의 이단들

1) 카타리파

이단들의 출현은 제도권에 대한 도전이며, 동시에 제도권으로 하여금 제 길을 가도록 신선한 자극을 주기도 한다. 이들의 이론은 마니교와 매우 비슷한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육적이며

물질적인 창조를 악의 창조로 보았다.

그들은 성례전을 부인하였고 지옥, 연옥, 몸의 부활 등도 부인하였다. 1208년에는 교황청 특사 카스텔나우의 피터가 살해되자 십자군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십자군은 1218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학살과 전투 등으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알비파들의 영토를 프랑스에 귀속시키려는 영토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종교재판의 결과로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었으며, 더 나아가서 모국어로 된 성경을 휴대하거나 읽을 수도 없었다.

2) 왈도파

왈도파는 프랑스의 리용에 거주하였던 피터 발데스에 의해서 12세기에 형성된 '리용의 가난한 자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왈도파들은 사회의 저급층에서 급속도로 번졌다.

차. 중세교회의 대처

1) 교권의 강화

교회의 위상과 교권을 세운 사람은 우리가 흔히 개혁자라고 부르는 추기경 호버트, 교황 레오 9세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 7세에 이르는 세 사람이다.

그레고리 7세가 주장하였던 교황권은 중세 전반에 흐르는 교권 옹

호의 원천이었다. 그레고리7세의 주장은 중세 전반에 흐르는 교권의 우위를 다지는 이론으로서 인노센트 3세에 의해서 반포된 '우남쌍탐'의 기초 이론이었다.

2) 신학의 발전

중세신학은 카롤링 문예부흥 시대에 영국 계열의 신학자들을 -예를들면 알쿠인, 라바누스 마우루스, 에리게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1세기 이후로는 대륙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였다.

- 란프랑과 베렝가: 란프랑과 투르의 베렝가에 의해서 재현된 성찬 논쟁이 중기 신학의 서곡이었다. 화체설을 확립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켄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름은 롬바르드의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1060년에 노르만디에 있는 벅 수도원에서 수도사 서약을 하였다. 안셀름은 신학적 명제를 제시하고서 교부들이나 여타의 교권적 권위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서 오히려 이성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 안셀름은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분'이 곧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안셀름의 속죄론은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셀름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성을 사용하면서도 정통적인 교회의 이론을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더욱 높여 주었으며, 스콜라신학의 발전을 크게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 피터 롬바르드: 피터 롬바르드의 문장론은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는 중요한 사실과 더불어서 성례전 이론의 확립에 있었다. 바로 여기에서 종교개혁은 시작한다. 사제와 교회의 억압으로부터 중세인들에게 자유를! 바로 이 과업을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서 이루었다.

3) 새로운 교단의 창설

- 어거스틴파: 어거스틴파의 규범은 재산의 공유화에 있었다.
- 카르투스파: 이들은 특히 자아 학대를 통한 수도에 전념하였다.
- 카르멜파
- 걸식교단: 중세교회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 종단이 바로 걸식교단으로서 프란체스코파와 도미니크파였다. 프란체스코는 가장 섬세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수도원출신의 성인이었다면, 도미니크는 냉철하고 조직적이며 근엄한 성격이었다. 프란체스코는 인격으로 종단을 이끌어 갔다고 한다면, 도미니크는 훈련의 대가로서 종단을 엄격한 규범으로써 이끌었다. 프란체스코는 사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도미니크는 교회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프란체스코의 필생의 사업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 있다면, 도미니크는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있었다. 프란체스코는 겸손의 표상으로서 존경을 받는다면, 도미니크는 이단을 물리치는 망치와 같았다.

* 프란체스코파: 성프란체스코의 본명은 지오반니 프란

체스코 베르나르도네로서 1182년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서 태어나서 1226년에 죽었다. 프란체스코는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면 창피를 느꼈다. 이렇게 해서 프란
체스코는 가난과 결혼하였다. 프란체스코파는 창설자 프
란체스코의 지시를 끝까지 따르려는 순수파 혹은 엄격파
와, 교황 그레고리 9세가 된 추기경 우골리노가 세운 규
범과 재산소유를 인정하는 완화된 온건파로 나누었다.

* 보나벤투라: 보나벤투라의 본래 이름은 지오반니 디피단자
였다. 그는 아시시의 성자를 따르는 데 있어서 양대 세력
으로 나뉘어져 있는 위기상황에서 중도 노선을 취함으로
써 위대한 신학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교회 행정가로서
이름을 날렸다. 이러한 면에서 그는 교단의 제2의 창시
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나벤투라의 신학적 업적은 그
의[롬바르드의 문장론 주석]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나 있다. 그의 신비주의적 경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
혼의 순례]에 잘 나타나 있다. 피조된 우주가 창조자에
게 이르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대한 관조에 있
다. 보나벤투라의 신비주의는 또한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관조하는 데 있다.

* 도미니크파: 도미니크 혹은 도밍고는 스페인의 칼라로가에
서 1170년에 태어나서 볼로냐에서 1221년에 죽었다. 학
문과 영혼구원이 도미니크 교단의 주된 강조점이었다.

*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프랑스의 왕가와 인척
관계에 있는 아퀴노의 랜돌프 백작의 막내아들로서 로카

세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세의 보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보편은 "스스로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 안에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즉 보편은 사물 안에 구체적인 사물로 존재한다. 여기에서 토마스는 존재유비의 타당성을 말한다. 토마스는 존재론적인 신 증명방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부정할 수 없는 운동을 사실로 삼고 출발한다. 두 번째는 인과율이다. 세 번째는 필연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 사이의 구별이다. 네 번째 방법은 존재들이 완성되는 각종 단계로부터 출발한다. 다섯 번째 방법은 우주의 질서로부터 출발하는 전통적인 목적론적 논증이다. 이상과 같은 토마스의 하나님 존재증명 방법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인간의 단순한 생득적인 인지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점에서 철학의 한계를 뛰어 넘어 섰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토마스는 13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1567년 교황 피우스 5세는 '교회의 완전한 박사'라는 칭호를 '천사박사님'께 하사하였다.

카. 회교도에 대한 공격과 유럽교회의 몰락

십자군 전쟁과 스페인의 회교도에 대한 공격은 중세 유럽의 불만의 입김을 아시아로 배출케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교회의 권위

를 세워 보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술책이었다.

1) 십자군전쟁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의 필요성은 일찍이 그레고리 7세 때부터 제기되어 있었다. 1096년 8월 15일 승천기념일에 출발한 제1차 십자군 원정단은 우르반 2세가 지명한 푸이의 주교인 아드헤마르가 총사령관으로서 이끌었다.

제2차 십자군운동은 제1차 십자군들의 외곽 거점이었던 에돔사가 터키족에게 재탈환 당하자, 십자군을 지원하자는 운동이 클레르보의 버나드를 중심으로 유럽전역에 퍼지기 시작해서 드디어 프랑스의 루이 7세와 독일의 콘라드 3세가 제2차 십자군 200,000명의 군대를 동원했으나 곳곳에서 패배를 당하였으며, 예루살렘은 1187년 이집트의 술탄인 살라딘에게 재탈환 당하였다.

황제 프레데릭 바르바로사,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 그리고 프랑스의 필립2세 아우구스투스가 제3차 십자군을 동원하였다.

제4차 십자군은 교황 인노센트 3세가 출군을 명령하였다. 제5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의 왕이 이집트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했다. 제6차 십자군은 술탄과 협정을 맺고서 예루살렘, 나사렛, 베들레헴을 관할하고 동시에 성지로 잇는 도로들을 양도받음으로써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제7차 십자군은 프랑스의 루이 9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끌었으나 대실패에 그쳤으며, 제 8차 십자군도 루이 9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7차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이 튀니스에서 열병으로 사망함으로써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

2) 스페인 재정복

이때로부터 스페인은 대양탐험과 신대륙 발견, 그리고 무적함대를 이끌고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위성국가로 만들었으며, 특히 교황청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었다.

3) 회교도들에 대한 공격의 결과

정치적인 면에서 유럽의 기독교는 살레만뉴의 부흥 이래로 내적인 타락을 겪었으며, 일반인들의 불만이 쌓이자 이를 밖으로 터뜨린 해결책이 성지 회복이라는 명분을 가진 십자군 전쟁이었다. 지금까지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십자군전쟁으로 인해서 회교도들에 대한 전도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십자군운동의 힘은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러한 기사단들은 유럽의 기사전통을 수립해 주었으며, 소위 말하는 신사도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유럽인들은 이 시기를 즈음해서 동양인들의 화약, 유리와 안경, 나침반, 종기와 인쇄술, 연금술과 의학을 수입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군운동에 참전한 동기는 순수한 신앙적 동기도 작용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황이 발표한 완전 면죄부의 수여가 더욱 매력적이었다.

십자군 전쟁은 곧바로 십자군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중세의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개혁으로 끝맺음을 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2. 영국의 종교개혁(16-17세기)

가. 영국 종교개혁의 의의.

제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마지막 활동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개신교의 한 형태인 영국 국교회(the Anglican Church)의 성립으로 세계 교회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영국이 개신교 신앙의 수호국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달과 함께 대영제국을 이루게 됨으로, 마치 초대교회를 로마 사람들이 중세교회를 독일인들이 주도한 것처럼, 현대교회는 영국사람들이 주도하게 되었다.

나. 영국 종교개혁의 예비적 단계.

(1) 종교개혁의 불씨가 오래 전부터 계승되어 왔다. 제10세기 던스탄(Dunstan 908-988)의 수도원 개혁운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에 반기를 든 던스 스코투스(Duns Scotus C. 1264-1308)와 윌리엄 오캄(William of Occam C. 1300-1340)의 신 스콜라 신학의 발달,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의 선구자 요한 위클리프(John Wycliff c. 1320-84)와 그의 “롤라드 운동(Lollards)들이 벅쳐 제14세기에 개인적 신앙, 절대적 권위를 가진 성경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로마 교황과 신부들의 종교행사가 비성경적임을 가려내어 공격하였다. 한동안 폄박을 받았으나 제15세에 이르러 큰 사회적, 동교적 세력이 되었다. 제16세기 초에는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중

교개혁의 길을 열게 되었다.

(2) 1531년 토마스 빌네이(Thomas Bilney C.1495-1531)는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에 힘입어 개혁을 주장하다가 순교하였다. 루터의 저작이 케임브릿지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읽혀졌고, 에라스무스의 희랍어 성경과 라틴어 역본이 영향을 미쳤다. 휴 라티머(Hugh Latimer C. 1485-1555)는 빌네이의 감화를 받아 영국 종교개혁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3) 1536년에는 유명한 성경 번역가인 윌리엄 틴테일(William Tyndale C. 1494-1536)이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그는 대륙에 건너가서 신약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는데 (첫 출판은 1525년 콜론느와 보름스에서 함) 신약은 에라스무스의 라틴역, 루터역, 벌게트역을 참고로 하고, 구약은 70인역과 루터역을 참고하여, 원어에서 직선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영어로 번역하였다. 이것이 나중에 흙정역 성경(the Authorized Version)의 기초가 되었다. 루터의 이신득의 교리와 성경의 최고 권위성을 가르쳤으며, 성찬론은 쾰링글리의 주장을 따랐다.

다. 영국 종교개혁 당시의 튜더 왕가의 계보.

영국 종교개혁에 튜더왕가(the House of Tudor 1485-1603)의 역할이 컸다.

- (1) 헨리 7세(Henry VII, 1485-1509)
- (2) 헨리 8세(Henry VIII, 1509-1547) : 종교개혁을 주도한 왕이며 6명의 왕비를 차례로 맞았다.
- (3) 에드워드 6세(Edward VI, 1547-1553) : 왕비 진세무어(Jane Seymour)의 아들로 개신교인이다.
- (4) 메리여왕(Queen Elizabeth 1558-1603) : 둘째 왕비 안 볼레인의 소생으로 개신교도이며,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였다.

라. 영국 왕들의 종교개혁

- 1) 헨리 8세의 종교개혁과 영국 국교회의 독립
 - 영국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특성은 국가교회가 한 단위가 되어 로마 카톨릭교회로 부터 독립한 것이다, 따라서 루터나 칼빈의 개혁운동이 민중에서 시발이 되었음에 반하여, 영국의 개혁운동은 교회와 정치의 수장인 왕으로부터 시발되었다.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신하여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계승하며, 교리와 교회 제도를 성경의 규범에 따라 새롭게 하려 하였다.
 - 성립과정: 국왕 헨리 8세의 정치적 야망과 개인적 경건이 크게 작용하였다. 본래 성직자가 되려고 옥스퍼드에서 신학공

부를 하였으나, 형 아서의 죽음으로 1509년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아버지 헨리 7세의 정력으로 교황의 제가를 얻어 형 수 캐더린과 결혼하였다. 캐더린은 신성 로마제국 황제로 선임된 (1591년) 찰스 5세의 고모로서 강력한 카톨릭 세력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 영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헨리 8세는 스페인 세력의 견제를 위하여, 아들을 못낳는다는 구실로 캐더린 왕비와 이혼을 원하였다. 당시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영향하에 있던 교황 클레멘트 6세가 이혼 허가를 보류하자, 헨리 8세는 토마스 크렌머(Thomas Cranmer 1498-1556)를 기용하여 영국 교회 독자적으로 캐더린과의 결혼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영국 교회의 수장은 왕 자신이며, 국교회의 독립을 이루었다. 1530년에 켄터베리 대회(the Convocation)를 열고 국왕의 최고권위(the Royal Supremacy)를 선언하고, 1532년에는 의회가 로마 교황청에 납부하는 성직 수입세(the annates)를 폐지하고, 1532년에 크렌머가 켄터베리 대주교가 되자, 1533년에 헨리 8세는 총회 안 볼레인과 정식 결혼하였다. 이때 교황은 캐더린의 결혼이 유효함을 선언하고 헨 리를 파문시켰다. 1534년에 의회는 피팅설를 폐지하고 국화를 “교회의 최고 수장” (the Supreme head of the Church)임을 공포하였다.

- 로체스터의 감독 존 피셔(John Fisher)와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끝까지 국왕의 교회 수장권에 반대하다가 처형당하였다.

1) 헨리 8세의 개혁 내용

- 왕권 대리자(Vicegerent)인 토마스 크롬웰(Thomas Cromwell)은 1540년까지 모든 수도원 을 폐쇄하고 순례 행위를 금지할 목적으로 더함의 쿠틀버트(Cuthbert at Durham) 와 켄터 베리의 성 베케트의 무덤을 헐어버렸다. 수도원 제산을 대학교육, 새교구 설립, 수도사와 수녀의 재할기금으로 사용하고, 또 한편 귀족들과 국왕의 수입으로 삼았다. 영국 교회의 오랜 전통이며 사회구조의 중요한 제도이었던 수도원의 붕괴와 더불어 회의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종교생활은 교구(Parish) 중심이 되고, 수도원의 경제활동은 시민의 수준으로, 교육 및 사회구제 활동은 국가의 활동으로 이관되었다.
- 헨리 8세 시대의 종교 개혁중 교리적인 문제를 루터교리가 절충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 1536년 10개신조(Ten Articles)에는 성례의 종류를 성찬, 세례, 참회(Penance) 등 세 가지로 정하고, 믿음과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였다. 1539년에 공포한 6개신조에서는 화체설을 다시 주장하였다.
- 이 시대에 카버데일역 성경이 출간되고(소위 Coverdale Version), 매류설을 개역한 대 성경(the Great Bible)이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비치되고 사용되었다.

3) 에드워드 6세의 종교개혁

- 1547년 9세의 어린 나이로 등극하였으나 개신교도인 외삼촌 소머셋 공작(Duke of Somerset)의 섭정으로 영국 종교개

혁 운동이 실질적으로 결실하게 되었다. 6개신집를 철회하고, 우상제거, 평신도에게도 두가지(떡과 포도주)성찬을 주고, 신부들의 결혼을 허용하였다. 대륙에서 피터 마티(Peter Martyr), 오키노(Ochino), 마틴부서(Martin Bucer)등의 개혁파 신학자를 초청하여 개혁신앙을 교회의 신학으로 받아드렸다. 지금까지 영국교회의 신학은 개혁신앙(Reformed faith)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 에드워드 6세의 “제일 기도서” (the Book of Common Prayer, 1549)를 작성하여 의회의 통일령(the Act of Uniformity)으로 모든 교회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1552년의 개정판 제2 기도서에서 “제단” (altar)이란 말대신에 “상(table)” “신부”(priest)란 말대신에 “성직자 또는 목사”(minister)등으로 고쳐 쓰고, 통일령으로 평신도의 주일성수를 명령하고 어길때에 엄벌하였다. 크렌머는 1553년에 42개신조(the Forty-two Articles of Reoigion)를 작성하고 왕명으로 공포하여 그 당시 영국 국교회의 공식 신조가 되었다. 에드워드 6세의 종교개혁은 개혁파 노선을 따랐으며 독특한 영국적 성격이 가미되었다.

4) 메리 여왕(여왕)(Queen Mary 1553-1558)의 반동정책.

에드워드 6세가 재위 6년만에 죽자 캐더린의 소생인 메리가 여왕이 되었다. 이에 카톨릭 세력의 복귀로 신교도들은 대륙으로 피난가서 쾰리히, 스트라스부르그, 바젤, 네바, 하이델베르그 등지에서 신교 “종교교육”의 수련을 쌓게 되었다. 피난을 가지 않

은 신교도들이 유명한 라티머(Latimer), 리들리(Ridley), 크렌머(Cranmer)등과 함께 순교하였다. 이 대 박해 때에 라티머는 리들리에게 “리들리 선생,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영국에 아무도 끌 수 없는 촛불을 켜게 되었고” 하며 순교하였고, 크렌머는 1556년에 화형을 받을 때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7번이나 개혁신앙을 저 버리는 문서에 서명한 자기 오른손을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 넣어 태우면서 불신을 회개하였다고 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궁중에 다시 로마 카톨릭 예배의식을 회복시키고, 감독들을 복권시켰으며, 의회는 몰수한 재산은 변상하지 않았으나, 여왕의 뜻대로 통일령의 철폐, 공동기도서의 사용금지, 신부의 결혼 금지 등 카톨릭 종교법을 재활용하였다. 그러자 교황청은 영국국교회를 세계의 카톨릭교회로 복귀시킨다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5) 엘리자베스 여왕(Queen Elizabeth 1558-1603)의 종교정책.

- 엘리자베스 여왕의 병사후, 엘리자베스가 계승하여 이후 반 세기간의 집정으로 영국 국교회는 다시 개신교회로 확립되고, 종교 문제의 안정과 함께 국력이 신장되고 문화가 발달하여 그의 치세기는 영국, 역사상 황금기를 이루었다.
- 종교정책은 개혁신앙을 기초로 하되 국내의 카톨릭적 요소와 신교적 요소를 조화시켜 가장 현실적으로 유용한 형태인 영국 국교회를 제도적으로 확립시키었다. 아버지 헨리 8세의 정치적 종교적 이상을 구체화시킨 “아들보다 귀한 딸”이었음을 증명하였다, 1559년에 수장령(the Act of Supremacy)을 선포하고 교황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교황청에 대한 세금

과 고소를 금하였으며, 다시통일령(the Act of Uniformity)을 내려 개정판 공동기도서 사용과 주일성수, 성직매매 금지, 성상 성화 파괴, 신부 결혼을 명령하였다.

- 영국 국교회는 처음으로 교회의 임명대신, 주교(감독)들이 모여 파커(Mathew Farger)를 켄터베리 대주교로 성별시키고 사도적 계승에 따른 영국 국교회의 대감독으로 임직케 하였다. 로마 교회는 1896년에야 영국 국교회제도를 불법이라 정죄하였다.
- 신조로서 39개신조(the Thirty-nine Articles)를 영국 교회의 신조로 공포하였다.
- 리차드 후커(Richard Hooker c.1554-1600)등은 감독제도(Episcopatism, / Anglicanism)를 찬성하였으나 아직 소수이긴하나 청교도들(puritans)과 독립교회 교인들(Incependents)은 엘리자벳의 국교주의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종교적 안정을 원하였으며, 다른 서구 제국에 비하여 안정세격을 빨리 구축하여 근대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마. 리차드 후커의 감독제도 옹호론.

- (1) 1559년 엘리자벳 여왕의 종교문제 확정을 계기로 영국교회의 감독제도는 확립되었으나, 로마(Rome)와 제네바(Geneva)의 반발을 받게 되었다. 이때에 리차드 후커등은 소위 “중도론”(Via

Media /the Middis Way)을 펴 감독교회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특히 청교도들은 감독교회정치(감독주의, Episcopatism)가 완전한 개혁에 미치지 못하는 미완성이라고 비난을 가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감독주의 변증가들은 성경, 교부들의 저작, 전승(tradition), 역사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타당성을 변호하였다.

- (2) 후커의 선배, 존 주월(John Jewel 1522-1571)은 “영국교회 변증”(Apologia Ecclesia Anglicane, 1562)을 써서 일반적 종교개혁의 필요성과, 교부들에 근거하여 감독제도의 합법성을 변증하였다. 여기에 힘입어 후커는 “교회정치법에 관한 논설”(Treatise on the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 1594-1662)을 통하여 감독정치를 옹호하였다. 여기에 깊은 철학적 신학이 전개되고 있다.

(a) 청교도들의 성경주의에 반하여, 자연법, 즉 하나님의 이성에 근거하고 세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 법칙이 최고의 권위이며 여기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형태와 제도는 불변의 것이 아니며 역사적 형편에 따라 변화한다. 교회도 사회와 같이 시대적 형편에 따라 교회법을 제정할 수가 있으며, 가장 합리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비록 영국교회가 개혁은 되어도, 중세교회와 기본적인 연속성은 있다고 하였다.

(b) 청교도들이 장노정치(Presbyterianism)가 성경적 원리이며 교회형태의 규범임을 주장함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후커는 감독임직(episcopal ordination)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등 감독주의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다만 역사적 편
의와 개체교회의 교회실증법 제정 권리를 주장하였다.

바. 엘리자벳기의 청교도들의 성격.

(1) 발생: 메리 여왕의 박해서, 대륙으로 피난갔다가 돌아 온이들이 엘
리자벳여왕의 종교문제 해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제네바개혁의
모형대고 영국 국교회를 완전히 정화(purify) 하여 모든 비성경적
요소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2) 종류: 청교도들은 특정한 조직을 갖추지 않았으며, 국교회 내부에
서 철저한 개혁을 시도 하였다.

(a) 성복논쟁(Vestiarian controversy)을 통하여, 신앙양심에
어긋나는 성복 착용을 간제합 에 반대하는 청교도들이 있었
다. 이것은 만인제사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b)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게 하는(kneeling)예배의식에 대하
여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 었으며

(c) 마지막으로 장노 정치제도가 성경적이라 하여 감독주의를 반
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교인들의 목사 선출권을 주장하고
감독, 신부, 목사의 직분의 동등성을 주장하였다.

(3) 신학: 철저한 성경주의를 취하고 문자적, 일상적 해석을 하였다.

신학체계는 칼빈주의이며 점차 계약신학과(covenant theology /

또는 Federal Theology) 경향을 취하게 되었다. 은혜계약과 행위 계약을 구분하였으며,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duty)를 항상 강조하였다. 거기에 따라 인간상호간의 계약과 의무이행, 국민과 국가간의 계약관계까지 생각하였다. 실천을 강조한 신학이며, 생의 전영역에 미치는 “신앙생활”을 강조하였다.

(㉔후기에는 엄격한 칼빈주의보다 중도적 칼빈주의로, 그 다음에는 알미니안적 신학을 받아 드리는 이들이 많아졌다. ㉕ 행위를 강조하다가 교리를 소홀히 해서 알미니안주의가 일어났다.)

(4) 초기의 청교도들:

(a) 토마스 카트라이트(tomas Cartright 1535-1603):

16세기 청교도들중에 가장 유능한 인물이었다. 켄브리지의 신학교수로 있으면서 엘리자벳의 감독주의를 비판하고 의회에 대하여 장노체재를 택할 것을 건의하였다.(1572) 추방, 투옥 등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으나 엘리자벳 사후(사후) 제임스 1세의 왕위 계승시 천인청원(the millenary petition 1602)을 작성 하였다

(b) 왈터 트레브스(Walter Travers):

켄브리지 교수였으며, 대륙에서 배자와 교유한 후 귀국하여 영국교회의 개혁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39개신조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설교권을 얻지 못하고 대륙에 가서 화란 영국교회 담임모교사가 되었다. 그의 주저(주저) “교회 권징”은 장로제를 변증한 청교도들의 지침서이었다

(c) 윌리엄 퍼킨스(?-1602):

캠브리지의 교수, 영국 청교도의 사도.

사. 제임스 일세의 종교정책과 킹제임스성경

1) 제임스 일세의 종교정책

- 보래 장노교회에서 교육을 받아 제임스 6세로서 스코트랜드의 왕이 되었으나 1603-1625 까지 영국 왕을 겸하게 되자 수많은 청교도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국 국교회의 감독주의 노선을 취하여 “감독없이는 국왕도 없다” (No bishop no king)는 원리를 따랐다.
- 로마 카톨릭측에서 왕과 왕자를 폭살시키려는 “폭약음모”(Gunpowder plot)가 있는 이후, 국민 감정이 반 카톨릭으로 점차 굳어지므로 정책적으로 카톨릭에 보인 호의를 포기하고 1640년 신부를 추방하였다.
- 청교도들이 점차 세력이 커지게 되고, 국왕이 1618년 유희서(the Book of Sports)를 발표하여 주일에 춤추고 경기하며 민속놀이를 권장하자 국왕의 비성경적 문화정책에 반대하였다. 청교도들은 “일요일 강의”(Lecturships for Sunday afternoons)를 통하여 주일 성수, 성경 읽기, 가정예배 깨끗한 도덕생활을 가르치고, 시편찬송가를 애창하게 하였다.

2) 흠정역 성경

- 흠정역 성경(the Authorized Version)또는 제임스 국왕역 (King James Version)성경은 1604년 청교도들과 감독들이 햄턴궁에(Hampton Court)모여 새왕의 취임과 교회 정화를 의논하던 중에 공동 성경번역에 합의하게 되었다.
- 국왕 제임스 일세가 54명의 성경학자를 임명하고 6대로 나누어 번역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14명의 위원이 검토하여 출간하게 하였다. 번역은 1607년에 시작하여 1611년에 출판되었다. 루터설과 달리 어느 한 사람의 번역이 아니고, 54명의 학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번역한 것이며, 기존의 감독성경(Bishop's Bible)제네바 성경(Geneva Bible), 루터역 등 수많은 번역본을 참고하고, 새 시대를 위한 참신한 성경을 원어에서 번역해 내었다. 문체는 장중하고 음울적이며, 그 당시로서는 현대적이며 일상적 언어로 역출되었다. 그 후에 개역이 있었으나, 영국교회의 표준성경이 되었다. 기독교회의 보물이 되었다.

아. 침례교회(Baptist Churches)의 설립

(1) 제임스 일세 치하에 1612년 처음으로 침례교회가 섰다.

먼저 화란 암스텔담에 영국인 존 스미스(John Smyth ? -1612)가 처음 침례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회중교회에 속한 분리주의자로서, 회중교회가 엄격한 칼빈주의 노선을 따르고 유아세례를 실시하자 거기서 분리하여 알미니안 교리를 따르며 성인세례를 주장

하는 독립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1612년 그가 죽자 일부는 화란의 메노파와 합하고, 일부가 토마스 헬위스(Thomas Helwys)의 지도로 영국에 돌아와 런던에 교회를 세웠다.

(2) 알미니안 교리를 가진 침례교인들을 “보편” 침례교인(“General” Baptist)이라 부르며, 이와 별도로 영국 내에서 회중과 교회에서 분립하여 계속 칼빈주의 교리를 따라 특별 선택을 주장하는 “특별” 침례교인(“Particular” Baptists)들의 교회가 생겨났다. 그러나 모두 성인 세례와 독립교회(free churches)를 주장하는 점은 같다.

자. 청교도 혁명.

(1) 청교도 혁명(Puritan Revolution 1642-1649)의 발단 :

(a) 역국내부에는 종교개혁이후 두 개의 사상이 발달하였는데, 하나는 영국 국교회의 감독 주의를 따르고 국왕의 절대권(Absolutism / 또는 Divine Right)주장에 동정적인 보수적 사상과 : 하나는 주로 청교도들과 독립파들의 사상으로 정치 및 종교적으로 공화적 민 주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영국은 불란서와 달리 온전한 절대군주 사상과 함께 전통 적으로 계약에 의한 통치라는 계약사상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찰스일세가 고교회 정책과 절대권(Absolutism)를 강력히 행사하여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제

도와 절대 군주국으로 영국을 이끌어 가려 하자, 이미 의회내에 다수 세 력을 차지한 청교도들과 독립교인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b)또 한편 137년 찰스 일세가 스코트란드(Scotland)에 감독제도와 공동기도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도록 강요하자 스코트인들이 국민계약(the National Covenant, 1638)을 맺고 찰스 일세에 대한 무력 한쟁을 벌려 이것이 내란(civil war)으로 변하였다.

(c) 찰스 일세는 영국 의회를 불신하여 1629년에서 1640까지 의회를 소집하지 않다가 스코트란드 반란을 진압할 목적으로 소위 “단기의의회(the Short parliament, 1640)를 소집하였다가 해산하고, 다시 소집된 ” 장기의의회“ (the Long parliament 1640-1653)는 오히려 국왕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중에는 혁명을 주도하였다. 1640-1653년 기간동안은 의회의 최고 통치자이며 행정수반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장기의의회는 1642년에 올리버 크롬웰의 시민군을 조직하여 국왕과 대항하게 하고, 1643 년에 스코트란드의 “신성동맹”(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 조약을 받아드리고, 올리버 크롬웰은 스코트군대와 함께 찰스 일세의 군대를 격파하여 (1645-1646) 청 교도 혁명을 성공시켰다. 찰스왕은 나중 1649년에 처형되었다.

(2) 결과: 장노제가 승리하고, 감독제도와 공동기도서 사용금지, 올리버 크롬웰의 공화정치 시대가 되었다. 교회적으로는 웨스트민스

터 신앙고백서와 대 소 요리문답서 및 정치조례가 채택 되고, 종교적 자유가 선포되었다.

차. 웨스트민스터 총회.

(1) 웨스트민스터 총회(Westminster Assembly, 1643)는 장기의 회가 영국교회 rour을 위하 여 수집하도록 명한 종교회의이었다. 30명의 평신도와 121명의 목사들이 모이도록 되 었는데, 목사들 중에는 장로교인이 다수이고, 국교회 목사들은 소수 이였으며, 그 외 소 수의 독립교회의 목사들이 있었다. 1643년 7월1일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국교회 목사들은 찰스 왕에 대한 충성 때문에 참석을 거부하였다. 늦게 스코틀란드에서 8명의 위원들이 참석 하였다. 1643년에서 1649년까지 계속되었는데 무려 1163회의 회의를 하 였으며, 그 후에도 간혹 교회 재판을 열기도 하다가 공식적인 폐회 없이 끝났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1646) : "신성 동맹“ 의 조건에 따라 영국 스코트란드 아일랜드 삼국에 맞는 공동 신앙 고백서를 제정할 필요를 느껴 1643에서 1646에 이르기까지 27개월간에 작성된 신앙고백서이다. 전문 36장으로 되었 으며 칼빈주의 신학이 기초가 되고 있다. 선택교리와 계약교리, 그리고 교회론이 특출 하고, 신앙행위로는 주일 성수와 휴식이 강조되고 있다. 영국 의회는 1648년에, 스코트 란

드 장노교회 총회는 1647년에 공식교리로 인정하였다.

(3) 웨스트민스터 대 . 소 요리문답(Westminster Catechisms, 1647) : 주로 웨스트민스터 신 앙고백서의 내용을 간결한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여 기독교 교육에 사용하였다. 대 요리문답(Larger Catechism)보다 소 요리문답(Shorter Catechism)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요리 문답 제일 문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전 장노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명구이다.

(4) 웨스트민스터 공중 예배서(Westminster Directory for the Public Worship of God, 1645) : 영국 국교회의 예배서인 공동 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를 대치하여 장노교 원칙에 따른 예배서를 작성하였다. 일반적 원칙만 설명하고 정해진 형식이나 의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예배는 기도로 시작하여, 두 번의 교훈(또는 공부), 시편노래, 설교 순으로 하며, 오전 예배 후에 성찬을 필요에 따라 행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세례, 환자 방문, 그리고 결혼 예식에 관한 지시를 하며, 장례는 의식 없이 행하도록 하였다. 주일 외에는 다른 종교절기를 다 폐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였다.

카. 크롬웰 공화정치와 영국교회의 형편

(1)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 : 지방귀족 출

신(토마스 크롬웰의 후손)으로 어릴 때부터 청교도 교육을 받고 1628년에는 광신에 가까운 정도의 격렬한 경건 생활을 하였다. 1628 하원의원이 되었으며, 1642 시민군의 총수가 되었다. 스스로 기독 시민군을 정병화하여 내전에서 승리하고 이어 군대의 힘으로 혼란기를 수습하였으며, 의회가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하기 힘든 차제에 독립군의 지지로 1653년 장기의회를 해산시키고 호민관(호민관 Lord Protector)이 되었다.

- (2) 크롬웰은 엄격한 장노주의 보다 열렬한 독립교회를 좋아하였으며, 1653년에 장노주의자들이 다스를 차지한 장기의회를 해산시키고, 독립파(Independents)의 경건한 사람들(수위“saints”)을 국회회원으로 임명하였다. 크롬웰의 정치에 ”아멘“ 으로 협조하였다 하여 ”성자 의회“ (Parliament of saints)또는 ”마른 뼈다기 의회“ (Barebone Psrliament, 1653)라 불렸다. (참고의원중 한 사람의 이름이 Praise-God Barebone이었다 함)

크롬웰은 전노주의자들의 불관용성과 국교적 태도(state-church mentality)를 싫어하고, 종교의 개인적 성격과 개신교 교단 간의 융화를 강주하였다. 그 결과 영국에는 종교적 관용주의(Tolersnce)와 교단 주의(denominationolism)가 확립되었다. 장노교, 침례교, 회중교회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천주교, 영국 국교 및 광신적인 신교종파에 대하여서는 제제를 가하였다.

- (3) 크롬웰의 공화정치는 그 자신의 개인적 신앙양심과 경건에 따른 사실상의 일인 독제정치이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즉 하나님의

뜻)과 국가적 이익이라는 목적이 독재정치의 근거이었다. 이것은 찰스 일세의 왕권신수설을 신념으로한 전제와 큰 차이가있다. 그러나 영국국민들은 권력이 한 개인과 그의 양심에 집중되는 것을 불안스럽게 생각하였다. 크롬웰은 한개 국가적 차원에서 “?정”(Theocracy)을 시도하였다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4) 공화정 시기에 영국은 대륙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크롬웰은 모든 면에서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였다. 국민 도덕의 향상을 위하여 음란한 유흥을 금하고, 주일성수, 예배참석을 법으로 명명하였다. 사회개혁도 급진적 개혁을 반대하고 점진적인 생활향상을 도모하였다.

(5) 크롬웰이 대외적으로 강력한 신교보호자가 되었다.

타. 크롬웰 시대

1) 크롬웰 시대에 발생한 신교과격파들.

크롬웰의 혁명성공과 함께 개신교내의 과격한 종교사상이 혁명의 열풍과 함께 대두하였다. 이것은 신비적이고, 열광적(enthusiastic)이고 재세례파(anabaptistic)적 성격을 띄었다. 크롬웰은 이들을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로 보고 강력히 단속하였다.

- 평등주의자(the Levellers) : 런던의 소상인들이 존 릴번(John Lilburne)의 지도로, 주권재민(주권재민)과 만인평등

(만인평등)사상을 가졌다. 의회는 계급과 재산여하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중에서 그 의원을 선출하라하고, 연임을 금하고, 의회의 기능은 행정과 경찰력 행사 뿐이라 하였다.

- 제 5왕국주의자(the Fifth Monarchy men) : 다니엘서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여 천년간 계속될 것이라 하여, 무력으로 왕국건설을 주장하였다. 그 중에 일부는 자연적 도래를 기다렸다.
- 웨이커 교도(Quakers) : 정식 이름은 형제회(Society or Friends)로서 1650-1690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신비적 경향을 띤 종교운동이다. 지금도 성하고 있다.
- 창시자 조지 파кс(George Fox 1624-1691)는 청교도들의 영향으로 자랐으나 이미 후기의 청교주의가 침체에 빠져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음을 느끼고 19세에 구도의 길에 나섰다. 1647년 어느 날 “자기 현 ” (his condition)에 찾아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적 경지에 들어갔다. 자기 속에 있는 “육적 광명” (the Inner Light)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접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악을 이길 수 있고,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웨이커의 주요한 주장들 : 절대 평등의 민주 정치, 호칭의 단일화(“thou”) 종교자유, 전쟁반대, 검소한 의복과 생활, 정직한 언어, 여자의 설교 허용, 맹세를 금함 등이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파스와 제자들은 수없이 투옥되고 추방되며 순교하였다. 공화정 시기의 제일 열렬한 운동이었다.
- 제 이 지도자로 윌리엄 펜(William Penn, 1644-1718)은 미

국 펜실바니아 주를 창설하고 핍박받는 웨이커 교도들을 이주시키고, 대륙의 개신교도들과 나중에는 스코트랜드 장노교인들까지 대거이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식민지 안에서는 유일신을 믿는 한 누구에게나 종교자유를 허락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 대속 교리, 칼빈주의가 설명하는 의인교리등을 반대하다가 수 차례 투옥되었다.

- 로버트 바클레이(Robert Barclay, 1648-1690)은 웨이커 신학자로 “내적 광명”은 곧 “내재하는 그리스도” 리도 하였으며, 성도들은 설교가 필요없으며 내적 광명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성에 대하여 무관심하여 성례에 무 관심, 역사적 예수 교리와 신앙고백서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2) 크롬웰 공화정시기의 대표적 청교도들

- 존 오웬(John Owen, 1616-83) : 청교도 목사(Puritan divine)로서 후기의 청교도들이 엄격한 칼빈주의 노선을 버리고 점차 알미니안적 경향으로 나아감에 반하여, 가장 공정하고 관용적 입장에서 알미니안주의와 대결하여 정통교리를 보수하였다.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교회적으로는 독립교회에 속하였다. 크롬웰 정부에 협조하였다. 의회에서 여러번 설교도 하고, 크롬웰의 군목으로서 고문(adviser)으로 일하였으나 크롬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다가 그와 멀어졌다. 그는 리처드 맥스터(Richard Baxter, 1615-1691) : 유명한 청교도 목사이자, 비국교도(Dissenter)이었

다.

-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 :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로서 1641-1660동안 약20년간 키더민스터(Kidder minster)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였다. 장노교, 국교회, 독립교회 사이의 중요하지 않는 차이점들은 극복하면서 목회의 협동을 도모하였다. 백스터의 신앙과 생활은 “온건”(Moderation)이 중심적 태도이었다. 과격한 장노주의와 크롬웰의 종교적 견해에 반대하였고, 왕정 복구 후에 국교회 감독직을 거부하여 목회지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의 신학은 엄격한 칼빈주의를 떠나 “온건”한 알미니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백스터에게 기독교신앙은 실천적 종교이었다. 교구내의 도덕을 향상시키고, 교인들의 생활을 성경말씀의 원리대로 지도하였으며, 경건생활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성도의 영원한 안식" (Saints' Everlasting Rest) : 신앙서적 “개혁교회 목사론”(Reformed Pastor) 기독교인 지침(Christian Directories)등 수많은 저작을 남겼다.
-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 : "천로역정"의 저자는 청교도 혁명 때 의회군으로 참하였다.(1544-1646), 가난하고 무식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으나 성경과 신앙서적을 탐독하여 훌륭한 베드포드 독립교회 설교자가 되었다(1657). 왕정 복구후에 투옥되어(1660-1672까지) 옥중에서 천로역정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주요저작 :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 1678), 거룩한 전쟁(Holy War, 1682), “넘치는 은혜”(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enners, 1666)

등이 있 다.

- 존 밀턴 (John Milton, 1608-1672) : 올리버 크롬웰정부의 라틴어 비서로 공화정의 대변인이 되었다. 혁명이전부터 시적 재능이 나타났으며, 혁명 기간중에는 주로 영국 국교회의 감독주의에 대한 반론과 장노체제를 찬성하는 글을 쓰거나, “이혼론(Docrine and Discipline of Divorce)”“출판 자유론”(Areopagitica, 1644)등을 저술하였다. 왕정 복구 후에 일시 투옥되었으나 풀려 나온 다음에 1658-1665에 걸쳐 “실락원” (Paradise Lost, 1667)을 쓰고 이어서 1671년 “복락원(Paradise Regained)”, 그리고 “투사 삼손(Samson Agonistes)”를 저작하였다. 밀턴은 처음 장노교 사상을 가졌으나 나중에 독립교회로 기울어지고, 신학적으로는 점차 알미니안적 요소를 가지게 되었다. 인간의 자유와 독립의 옹호자이었으나 질서와 조화를 모색하였다.

파. 독립교회의 성립.

독립교회(Independents)는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ircjes)라고도 불리어지는데, 교회정치형태상으로 개 지방교회(each local churoh)의 자율과 독립을 주장한다. 교회정치원리는 민주정치를 원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그리스도 교회의 수장으로 삼는다.

분리주의자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e)이 개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적 행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이후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뒤에 크롬웰 시대에 와서 교회들은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중요한

종교세력이 되었다.

1658년 120처의 개 교회들이 사보이 궁(Palace of Savoy)에 모여 온건한 형태의 회중교회 교리와 정치원리를 선언하였다. 이것이 “사보이 선언문”(The Savoy Declaration, 1658)이며 회중교회의 기본문서이다. 여기에 교리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일부 수정하여 받아드리고, 그들의 정치조례를 첨가하였다. 선언문에는 개혁교회의 제 분파가 획일적인 로마 카토릭에 비하여 활기 있는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변증을 하면서 회중교회 형태를 장노교회 형태와 같이 공인해 달라고 하였다.

이후에 수많은 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 잉글랜드지방은 회중교회의 영역이 되었으며, 영국에 남은 교리들은 18세기 차츰 지방 법의회(Associations)를 남들고 1832년에는 “영국과 웨일스의 회중교회 연합회”(The Congregational Union of England and Wales)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입법기구는 아니고 교회간의 연락 조정협력기구이며 첫 사업으로 “신앙과 예배 선언”(A Declaration of Faith and Order)를 작성 공포하였다.

하. 크롬웰 시대 이후 영국

1) 왕정복구(the Restoration)와 감독주의의 부활

- 크롬웰의 사후(1658), 그의 아들 리처드가 호민관직을 승계하였으나 군대를 통할하지 못하여, 군대의 요구로 사임하고 자유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양 의회에서 폴란드에 머물고 있던

찰스 2세를 불러 왕으로 모시었다.(1660년).

- 의회가 감독제도를 부활시키고, 종교 집회령(the Conventicle Act, 1664)을 내려 공동 기도서를 사용하지 않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1665년에는 “5마일 령” (the Five Mile Act)을 내려, 비국교회 목사가 정부와 교회전복을 꾀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없이는 어떤 마을(town)이나 도시(city)에 5마일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1670년에 “제 1 집회령” 1673년 “시험령(Test Act)”를 내려 일반 시민에게 관리가 될려면 국왕에게 선서하게 하고 국교회 의식을 따라 형찬을 받게 하였다.
- 왕정 복구로 말미암아 수많은 청교도들과 독립파들이 해외로 이주하였다. 이 무렵 윌리엄 제이 펜실바니아에 퀘이커 교도를 이주시켰다.

2) 명예 혁명(the Glorious Revolution, 1688)의 교회사적 의의.

- 로마 카톨릭 정치세력의 최종적 저지가 이루어졌다. 불란서 왕 루이14세가 대륙내의 신교세력을 파하고 (독일 팔라티네트를 로마세력권에 넣고, 스위스 왈도파 교인을 박해하고, 1685년에 낭뜨칙령을 철회하여 불란서 개혁신교도를 추방시켰음)

영국의 제임스2세를 통하여 카톨릭 세력을 확장하려 하였다. 그러나 장노교인인 화란의 윌리엄삼세와 메리가 개신교의 종교적, 정치적, 세력의 회복을 위하여 영국 희회의 간청을 수락하고 영국에 진주하여 왕위에 올랐다. 제임스2세는 불란

서로 도피하였다가 나중에 아일랜드에 건너가서 아일랜드의 왕이 되려하다가 1690년 보인(Boyne)에서 패하고 재차 불란 서로 도망하여 일생을 마쳤다. 그는 찰스 2세의 아들로써 영국을 재차 로마교회로 이끌어 가려하다가 명예혁명(1688)으로 왕위에서 축출당하였다.

- 1689년 종교 관용령(The Tolerance Act)을 발표하고 비국교도(Non-conformista / 또는 Dissenters)들에게 법적보호를 보장하였다. 국교회는 형식적으로 제국교회이나 실제적으로는 대교단으로서, 비 국교도들의 교회와 동등 지위에 있게 되었다. 국가는 종교문제와 신앙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 관용령으로 인하여 종교적자유사상이 대두하고, 더욱 검열제도가 폐지되자 자유로운 문화활동이 전개되었다.
- 윌리엄과 메리(The Presbyterian Kirk of Scotland), 1707년에는 영국과 스코트랜드가 연합하여 대영제국이 되었다. 따라서 한 영국왕이 스코트랜드에서는 장로교인이 되고, 영국에서는 수장이 되는 전통을 세우게 되었다.

3) 비 국교도(Non-conformists)들의 영국사회에 미친 영향.

- 비 국교도 또는 국교 반대자(Dissenters)들은 예민한 신앙양심을 통하여, 도덕율에 근거한 시민사회 형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들이 “양심”을 하나의 정치, 사회세력으로 등장시켰으며, 이것이 영 . 미 정치의 도덕적 성격을(Political moralism)형성하게 하였다.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강한 준법정신으로 근대 시민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굳게 하였다. 따라서 비 국교도의 정신적 유산은 정치적 민주주의이며, 미국 독립운동(1774)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 “비 국교도 양심”은 경제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근대 자본주의 발달과 근대 기업정신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근면, 정직, 정확, 적당한 이윤, 실용주의, 개척정신 등). 그들의 교리 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신앙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의 기업 활동에 자신과 확신을 주었다.

비 국교도에게 관계 진출의 길이 막히고 국교회 성직자의 진로가 없으므로, 자연 상업과 산업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이 직업을 심각한 삶의 현실로 간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 하란, 미국등지의 이들 칼빈주의자들은 17,18세기에 걸쳐 상업과 기술을 독점하다시피 하게 되었다.

- 비 국교도들은 관학(관학)보다 실용학문을 강조하여 런던 대학 등 실용학문, 즉 자연과학, 수학, 각종 전문학과(법율, 의학)를 가르치는 대학을 세우게 되었으며, 또한 “국교 반대자 학원”(Dissenting Academy)을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한 보다 실제적인 교육을 시켰다.

3.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16-17세기)

가. 스코틀랜드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

(1) 스코틀랜드는 영국 북쪽의 소국으로 아일랜드에서 건너간 스코트족과 원주민 픽트(Picts)족이 살고 있었으며, 처음으로 성니니안(St . Ninian)이 4세기 전도하고, 563년에는 성 콜롬바(St . Columba 521-597)가 아이오나(Iona)섬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도를 하였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영국의 세력에서 독립을 유지해 왔다.

종교개혁이전에 성 안드류스 대학(St . Andrews, 1411), 글라스고 대학(Glasgow 1450-1), 에버딘 대학(Aberdeen, 1494)이 설립되고 : 1472년에는 세인 안드류스가, 1492년에는 글라스고가 대감독교구가 되었다. 그러나 개혁 전에는 교회가 힘을 잃었다.

(2) 지리적으로 좋지않는 환경에 놓여있으며 북쪽은 고지대(High Land)이며, 남쪽에 수도인 에딘버러, 새인 앤드류스, 글라스고 등의 도시들이 있다. 민족적으로 스코트인들(Scote)은 독립심이 강하고, 근면하며, 인색할만큼 근검절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씨족 관념이(Clan)이 강하여 각 씨족별로 특이한 색깔과 옷을 착용하였으며(옛날에) , 씨족간에 분쟁도 많았다고 한다.

(3) 1707년 스코틀랜드가 영국과 연합(Union) 하기 이전 왕의 세계는 다음과 같다.

- (a) 1513-1542 : 제임스 5세
- (b) 1542-1567 : 메리 스트아트(Mary Stuart 1542-1567) *소위 "Queen Scots"
- (c) 1567-1625 : 제임스 6세. (1603에는 영국왕을 겸하게 되어, 제임스 일세라는 용칭을 가지게 됨. 이 이후로 1707년까지 영국왕은 자동적으로 스코틀랜드 왕이 되었음)

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예비단계.

- (1)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위크리프의 설교자들(Lallards)이 스코틀랜드에도 일어나 가능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레스비(Resby, 1406)와 크라와(Crawar, 1433)가 순교하였다.
- (2) 독일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자 루터의 저작이 밀수입되고, 패트릭 해밀턴(Patreck Hamilton)이 루터의 저작에 감명을 받고 독일에 건너가서 개혁자들을 만나 개혁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귀국하여, 진리를 전하다가 1528년에 스코틀랜드 장노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
- (3) 영국의 종교개혁운동이 영향을 미쳤으나, 반영감정(反英感情) 때문에 스코트인들은 제네바의 개혁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존 낙스(John Knox, 1513-1672)가 순교자 위시아트(G. Wishart)를 이어 개혁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다. 존 녹스

(1)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 해 딩턴(Haddington)출신이며, 그도 처음 신부가 되었으나, 고향에서 법률가로 일을 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다가 위시아트의 영향으로 개혁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1547년에 확신을 가지고 체인 안드류스에서 진리를 전파하다가, 불란서 함대가 성을 점령할 때 붙잡혀 19개월간 노예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다. 1549년 방면된 후에 영국 에드워드6세 궁실의 목사 중 한 사람이 되었으며 메리 여왕의 집권 후에 제네바로 피신하여 칼빈을 만결정적인 스코틀랜드 교회개혁의 방향을 잡았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

(2) 1555-1556, 귀국하여 설교와 저각에 힘을 다하였으며, 그의 영향을 받은 반불파(反佛派) 귀족들과 “가장 복스러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교회”를 설립하기로 계약(Covenant / 또는 (Covenanting)을 1557년에 맺게 되었다. 이 귀족들이 나중에 “회중(교회)의 존귀한 者”로서 개혁운동의 정치적지지 자가된다.

(3) 1560 영국의 도움으로 불란서 군대가 물러가고, 스코트란드 의회는 녹스의 신앙고백서(Scottish Confession, 1560)을 채택하였고, 스코틀랜드 교회는 개혁교회가 되었다.

교황의 법적 권위를 무효화하고, 로마 카톨릭 미사를 금지시켰다.

같은 해에 제일 권징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 1560)를

저작하여 장노교회정치 원리를 확정하였다. 이 치리서는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교회의 총회(the General Assembly)에서 인준하여 교회의 독립을 확정시켰다.(그후 1564에 총회는 녹스가지은 the Book of Common Order를 채택하였다.)

- (4) 1560년에 섭정이었던 기즈家の 마리아가 죽은 뒤에, “스콧트인들의 여왕”이라 불리워지는 메리 여왕이 1561년 불란서에서 귀국한 이후로 1567년 그의 아들 제임스6세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낙수는 에딘버러 성 질스(St . Giles)강단에서, 메리 여왕은 왕좌에서 서로 불호령으로 공박하였다고 한다. 낙수는 생전에 개혁교회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1572년 11월 24일에 죽었으나, 개신교도로 양육 받은 제임스 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안심하였다고 한다.

- (5) 그의 성품은 편협한 점도 있고, 과격하고 거침없이 말을 함으로 적을 많이 만들었으나, 대담하고 직선적이어서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왕실에 틀고 앉은 “마녀들에 대한 선전나팔”(the First Blast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 1558)이란 소책자의 표제가 나타내 보이는것 같이 선동적이고 열렬한 개혁운동가였다.

그의 신념은 “예정론 연구”(Treatise on Predestination, 1560, 제네바에서 출간)에서 보이는 엄격한 칼빈주의 신학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1587, 1644완간)로 사후에 출판되었다.

라. 녹스의 후계자 멜빌

- (1) 안드류 멜빌(Andrew Melville, 1542-1622)은 녹스의 후계자로써 스코틀랜드 교회를 장노교회로 조직하였다. 1577년 출회에서 제 2권징서(Second Book of Discipline, 1577)를 채택하고 목사, 감독, 성직자(minister)는 같은 말로 썼으며 시찰장(Superintendents)의 임무를 노회(Presbytery)로 이관하고, 감독직은 교회재판(ecclesiastical courts)에서 담당하였다.
- (2) 그는 베자의 친구이었으며, 학자요 스코틀랜드대학교육 개혁가이기도 하였다. 글라스고대학장으로서 어학, 과학, 철학, 신학등의 새로운 교과과정을 도입하였다. 제임스 왕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수 차례 교수직을 잃었으며, 국교회 예배의식을 풍자하는 시를 써 런던탑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특징.

- (1)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교리는 개혁신앙(Reformed faith), 정치인 장노주의(Presbyterian system)를 취한다.
스코틀랜드의 국교로 확정된 것은 1690년이나, 그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2) 제임스6세기 영국왕이 된이후로 영국왕들이 스코틀랜드에 감 독제를 강요하였다. 단일 군주, 단일교회정책을 취한 것이다. 스코트인들은 정치적, 종교적자립을 위하여 1538년 국민계약 (National Covenant)을 맺어 장노제를 유지하기로 맹약하고, 영국왕 찰스1세에 반란을 일으켰고, 1643년에는 청교도들이 우 세한 영국의회와 “신성동맹 및 계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을 맺고 국왕과 싸우게 되었다.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예배서를 교회 의 규범서로 받아들였으 며, 명예 혁명 후에 정식으로 스코틀랜 드 영역에는 장노교회가 국교로 선포되었다.

- (3) 예배는 질서와 위엄(order and dignity)이 있으며 단순하다 .고 교회파(High Presbyterisns)는 예배의식에 예식서를 사용하나, 대부분 정한 예배 의식서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의 중심을 설교에 둔다. 사도적 신앙과 보편 교회적 예배에 충실하려 한다. 성찬은 번번하지 않고 장노들이 수종한다. 권징을 실시한다.

바. 계약파(Covenanters)

- (1) 16세기,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로서 종교적, 정치적 맹 세로 결속하여 그들의 종교적이상을 성취하려하였다. 1556에서 1562사이에 수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1638년 찰스1세에 대항 하여 맺은 국민계약(the National Covenant), 1643년 신성동맹

및 계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을 정점으로 계약을 종교 및 정치투쟁의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계약 파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1661-1688년사이에 또 다시 장노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새로운 계약이 생겨 났고, 명예혁명으로 장노주의의 승리로 계약목적이 이루어졌다.

- (2) 그 이후에 일부의 과격파는 1690년의 장로교회설립에 불만을 가지고 “개혁 증노교회 교인” (Reformed Preabyterians)이 되었으며, 계속 “계약파” 전통을 이어왔다. 그후에 스코틀랜드 장노교회에서 분리한 “자유교회” (Free Church, 1876)에 합세하였다.
- (3) 리차드 카메룬(Rechard Cameron, ?-d. 1680)은 과격파의 대표이며, 1661-1688년 왕성복구시대에 찰스이세에 대한 무력항쟁을 펴고, 국교회에 동조하는 동족에 대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열혈설교가이며 스코틀랜드교회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1680년에 국와의 군대와 교전중 전사하였다. 그를 따르는 과격한 계약파를 “카메루니안”(Cameronians)라 부른다. 지금도 미국에 개혁 장로파가 있다.

4. 루터의 종교개혁

가. 초기 생애

1) 어린 시절

루터는 1483년 독일 작센안할트주 아이슬레벤에서 광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 한스 루터(Hans Luther)와 어머니 마가레테 린데만(Margarethe Lindemann) 사이에서 출생했다. 중산층 가정으로 생태계에 지장이 많았지만 상당히 버락하여, 모친은 다른 동네 부인들처럼 장작을 주웠다. 부친은 교회의 타락을 묵인하지 않는 신념의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2) 루터의 부모님

루터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장에 부담을 느낄만큼 엄격한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랐다고 한다. 그래서 진로문제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정해야 했는데,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을 법률가가 되게 하여 사회적 성공을 하게 하려고,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입학시켰다. 그곳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법률가들만 모이는 단체다. 계몽사에서 출판한 《만화 세계사》(계몽사)에서도 루터의 아버지가 루터를 안고 "나는 고생하더라도 아들은 출세시켜야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으니 루터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욕심을 투영했는지를 짐작할만하다. 루터는 교양학부에서 삼학(三學, 라틴어: trivium)과 사학(四學, 라틴어: quadrivium)을 마치고서 1502년 9월 문학 학사학

위, 1505년 1월 17명 가운데 차석으로 시험에 통과하여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루터는 예비학교를 마친 5월에 본격적으로 법 공부를 시작했다

나. 회심

- 1) 루터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하던 중, 집에 갔다가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7월 2일 슈토테르하임 인근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 루터는 땅으로 떨어지면서 광부들의 수호성인을 큰 목소리로 불렀다. 성 안나(성모의 어머니)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 3) 수도원에 들어가려는 생각이 이미 무르익었던 터라 루터는 뇌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루터는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아들의 진로변경에 좌절을 느낀 부친의 분노어린 반대에도, 1505년 7월 17일 에르푸르트(Erfurt)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 “검은 수도원”에 입회하여 수사신부가 되었다.
- 3) 루터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수도회에서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요한 폰 스타우피츠 교수는 루터가 성서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면 평안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루터를 성서학 교수 사제로 임명했는데, 이로 인해 루터는 신앙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루터는 로마서, 시편,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 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확립하게 되었다. 칭의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로 인정받는다는 교리다. 하나님의 의란 수동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의이며, 대표적으로 다음 구절을 들 수 있다.

다. 종교개혁

1) 95개조항 발표

-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강제적인 면죄부 판매는 루터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할 수 없었고, 나아가 침묵할 수도 없었다. 루터는 자신이 가르치고 돌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목회적 양심과 책임에 의해 설교 중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전혀 개선됨이 없자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만성 교회(de)의 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 교회와의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다. 다만 루터가 물리적으로 논제를 교회에 게시했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는 없다. 반박문은 루터가 수기한 후 인쇄되어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며, 책으로 발간한 후에도 교회의 문 또는 인근에 이를 게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8] 교회 벽 게시에 대해 최초로 거론한 사람은 필리프 멜란히톤이며, 루터 사후 자신의 저서에서 루터에 대해 언급한 것이 반박문을 벽에 게시한 일을 기록한 최초의 것이다.[8]
- 1515년 루터는 10개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감독하면서 서신 교환과 방문 등을 통하여 새로 발견한 복음의 씨앗을 전

파할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깨우침이 얼마나 급진적인지 알지 못한 채 계속 성서 연구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면죄부 논쟁을 계기로 그것이 공공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 면죄부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일곱 성사들 가운데 하나인 고해성사와 연관된 것이다. 사제는 통회하는 고해자의 죄고백을 듣고 죄사면을 한 뒤 죄책에 대한 보속으로 순교, 시편 낭송, 특별 기도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면죄부는 이러한 보속을 면해주는 증서였다. 그런데 면죄부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교회는 면죄부 영업에 열을 올렸는데, 실제로 요한 테첼은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 천국 향해 올라가리라”고 신자들을 기만하였던 것이다. 그는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가 작센 영내에서의 면죄부 판매를 거부하자 경계 근처에다 면죄부 판을 벌여 놓았으며, 성서도 적절히 인용하고 연옥에서 당신들의 부모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감정도 호소함으로써 순진한 신자들을 현혹하였다. 이러한 타락에는 교인들도 원인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중세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지한 신앙생활보다는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 죄의식을 면하려는 손쉬운 신앙생활을 좋아하였으며,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교회의 주장이 과연 성서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
- 교구민들의 영혼을 염려하는 목회적 책임감에 움직여 루터는 이미 이전에 행한(1516년 10월 31일과 1517년 2월) 설교에

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였었다. 그러나 고해 문제의 재고 요청들이 결국 실패하자 루터는 공개 논쟁을 요청하기로 결심하여 1517년 10월 31일, 제성기념일 전야에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의 만인 성자 교회(de)의 문에 내걸었다.

- 루터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논제(제1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복음의 재발견을 면죄부 문제에 적용하여 “교회의 참 보고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제62조)이라고 역설하면서,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자비에 비할 바가 아님을 천명하였다(제68조).
- 마지막 논제(제95조)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와 같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결론내린다.

2) 천주교 탄압

- 카예탄 추기경과의 논쟁과 칭의론 주장

루터가 자신의 주장 포기를 거부하자, 교황은 그를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 로마로 소환 지시하였다. 그러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와 대학이 이것에 반대하면서 대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추기경 토마스 카예탄(Thomas Cajetan)이 그를 심문하도록 주선하였다. 토마스 카예탄은 1518년 10월 12일 - 15일에 소환당한 그에게 면죄부에 대한 교황의 교령(Unigenitus, 1343년)을 가리키면서 면죄부를 승인한 교황

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위협하였다. 루터는 교황보다 공의회가 더 높으며, 모든 인간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교회가 아닌, 성서가 가진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주신다는, 루터의 표현대로 수동적인 의인 칭의론(이신칭의)도 굽히지 않았다. 카예탄은 결국 루터로부터 ‘나는 뉘우친다’(revoco)는 말을 얻어내지 못하자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에게 편지를 써서 루터를 ‘로마로 넘기거나 영지로부터 추방’하라고 위협 섞인 강권을 하였지만, 선제후는 루터를 보호하였다.

(1519년 1월) 교황청의 특별한 호의의 징표인 황금 장미를 가진 밀티츠(de:Karl von Miltitz)가 선제후에게 나타났다. 그는 선제후가 루터를 추방하라는 카예탄의 요구를 이미 거부한 것을 모르고 루터를 추방하거나 로마로 압송할 경우 선제후에게 있을 유익을 선전하였다. 그리고 루터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요청에 따른 만남은 허락되었다. 회합을 가진 두 사람은 이제 이후로는 피차 공적으로 침묵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 선고, 파문을 당함

라이프치히 논쟁은 루터에 대한 기대도 증대시켰고 그에 대한 공격도 가속화 시켰다. 엑크는 라이프치히 논쟁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루터의 출교에 대한 교황의 교서를 이끌어냈다. 1520년 6월 24일 발표된 교서 《Exurge Domine》(주여! 일

어나소서!)에서 교황 레오는 뉘우칠 수 있는 60일간의 말미를 주고 이 기간 안에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와 동료들을 모두 파문할 것이라 위협하였다. 교서는 루터의 작품 중에서 41개 발언들을 열거하면서 ‘이단적이고 위법적이며 거짓’이라고 단죄하고, 루터의 모든 저서를 불태울 것을 명령하였다. 루터는 자신의 책들이 뢰벤에서 불탄 사건 이후 그리고 파문 위협을 담은 교서가 아직 비텐베르크에 도착하기 전, 성(城)의 엘스터 문앞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황의 교서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법전의 화형식을 12월 10일 거행했다. 이로써 루터와 로마 사이의 모든 다리도 불에 타 버렸다.

- 교황의 화형영장은 루터를 분개하게 했다. 그는 "나의 이 말은 진리의 말, 진실한 말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한 충실히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장려하고 인간의 영혼을 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현세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인이 라면서 사형 집행인과 화형으로 대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에게 전하려한 까닭으로, 나와 내 진리의 말을 화형에 처하려는 것인가? 그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악마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대의 교서라는 것은 종이를 더럽힌 거짓말이다. 그것이나 태워버려라. 그대는 그대가 하고 싶은대로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며 교황의 화형 영장을 태워버린다.
- 루터를 최종적으로 파문하는 교황의 교서 《Decet Romanum Pontificem》(로마 교황은 이렇게 말한다)는 1521년 1월 3일 로마에서 공포되었다. 자신에 대한 파문은 루터의 영혼 깊숙

이 상처를 내었다. 사실 루터는 면죄부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에도 교황에 전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그는 면죄부의 오용들로부터 로마 교황을 보호하는 일이 바로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교황청이 로마교회를 적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다는 확신이 서게 되자, 그때 루터는 비로소 교황청에 반격을 결심한 것이었다. 따라서 루터가 과거와의 관계를 끊은 것은 급작스레 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 관계에서 돌아선 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자기는 철저히 외면을 당하였으며 세 번이나 출교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라. 루터의 신학

1)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오직 믿음

-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의 종교개혁 작업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 위에 자신의 종교를 쌓아가려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었다. 사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해서 성서의 권위와 성령의 감도(영감)에 대해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또한 선행(先行)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믿음의 중요성에 무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급진적이었던 것은 이 말들 앞에 붙은 한 작은 단어, “오직”(sola) 이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것들을 말하면서도 실은 그 밑바닥에는 인간 중심의 종교가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서의 권위를 말하면서도 성서를 해석하는 교황의 권위를 그 위에 세웠으며,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인간이 율법의 의를 쌓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능력’으로만 이해하였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처음에는 시작하다가 어느덧 ‘선행(善行)으로 형성된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다.

- 그러나 루터는 성서는 그 문자가 자명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서,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해석자도 중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성서만으로!), 은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신앙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주시는 ‘호의’(신학용어로 이를 ‘칭의’라고 한다.)로 이해하였고(은총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단번에 모든 율법을 성취하며 인간을 의롭게 한다고 하였다(믿음만으로!).
- '오직 성서'(Sola Scriptura)는 교권주의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신학과 교리의 최우선의 권위는 성서라고 주장함으로써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2) 오직 그리스도

- 하나님 중심의 원칙 하에서 나온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의 구호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만으로’의 원칙이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끈이다. 루터는 신·구약성서를 통틀어 성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여, "그리스도를

성서에서 빼보라. 그리하면 성서에서 무엇을 더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은총만으로’는 대속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절대적 중요함과 또한 충분함을 주장하였고, ‘믿음만으로’는 율법의 종결자로 오시며 그 요구를 ‘텅 비게’ 하시는 신인(神人)즉,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은 교리뿐만 아니라 윤리, 문화, 정치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루터는 이 조항 위에 교회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고 그 중요성을 강변하였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를 드릴 필요가 없다. 대신 그는 그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베푼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calling, 부르심) 안에서 충실할 때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율법의 완성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5. 17세기 독일교회

가. 웨스트팔리아 평화(1648)이후 독일교회의 발전.

- (1) 정통주의시대(the Age of Lutheran Orthodoxy) : 17세기 전반에 걸침.
- (2) 독일 경건주의(German Pietism) : 보편적운동은 아니나 1690-1730대까지 전성기를 이루었다.
- (3) 독일 계몽신학(German Rationalism) : 1730-1750대의 신학문(Neology)의 발달.

나. 독일 정통주의 신학.

- (1) 협정신조(the Formula of Concord, 1577)이후, 30년 종교전쟁(1618-48)을 거쳐, 웨스트팔리아 종교협화로, 로마교회와 개혁신교회(칼빈주의)가 루터파 교회와 대등한 위치에 서리게 되자, 루터교회는 (1) 자파의 정통성에 대한 변증과 (2) 정통신학의 정립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후 17세기 전반에 걸쳐 정통신학시대가 전개된다.
- (2) “순수 교리” (reinen Lehre, l pure doctrine)의 수호와 “조직신학의 체계화”를 기치로 추구된 정통신학은, 루터의 교리를 스콜라 철학의 방법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었다. 루터+아리스토텔레스). 방법론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따라 경직된 형식주의를 취하고, 전통적교리를 준거로 하는 엄격한 보수주의 태도를 취하였다.

(3) 성경을 교리의 법전으로 삼아, 특정교리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폐단도 있었다. 축자 영감설(Plenary Inspiration of the original texts)을 믿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의 기본교리가 체계화 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 점도 있어 나중에 경건주의가 일어나 그 결점을 보충하려 하였다.

(4) 이 시대에 훌륭한 정통신학자들이 배출되었다.

(a) 켐니츠(Martin Chemnitz-d. 1586) : 신학 논제(Loci Theologici)와 트렌트 공회 비 등의 저자이며, 정통주의의 원조이다.

(b) 게르하르트(Johann Gerhard ?-d. 1637) 예나 대학교수로 루터정통파 신학의 대표적 신학서인 신학존제(Loci Theologici)저술.

(c) 칼로프(Abraham calov -1686) : 루터파 변증 신학자.

다. 조정주의자

(1) 조정주의자 또는 화평주의자(Ireniker)는 정통적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에 조정 역할을 하였다. 특별히 개혁파 쪽에서 이러한 노력이 현저하였다.

특히 하이델베르그 신학교수 유니어스(Franciscus Junius)와 파로이스(David pareus)는 신앙고백의 자유를 위해 조정 역할을

하였다. 영국인 존 듀리(John Durie 1596-1680)는 대륙의 루터파와 칼빈파의 연합을 주장하였다.

(2) 17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조정주의자는 게올그 칼릭스토스(Georg Calixtus, 1586-1656)이다. 헬름슈테트 대학 신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루터파의 엄격한 고백주의를 버리고 혼합주의 신학노선을 걷게 되었다. 자신은 정통교리를 가지지만, 각 교파간에 가장 공통성인 범 基督敎的 교리를 찾아내서 교파간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루터파 개혁신파 심지어 로마 카톨릭까지 연합 할 수 있는 근거로 (a) 성경 (b) 사도신경 (c)빈센트율(vincentian canon, 보편성, 역사성, 만인의 동의)에 근거한 초대교회 5세기 까지의 신학을 들었다. 1646년에 혼합주의 논쟁이 크게 일어났고 칼로프는 칼릭스터스를 공격하였다.

(3) 루터파와 개혁신파의 화해 노력은 계속 되었으며 베를린 종교회의(1662-63)는 그 한 예이다. 이러한 노력은 프로시아에서 연합교회의 설립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4) 요한 안드레(Johann Andreae, 1586-1654)는 기독교 이상사회(Christianopolis)를 통해서, 그로티우스는 “교회 평화안”을 통하여, 각기 교회의 연합을 모색하였고, 심지어 로마 카톨릭 측에서는 노이슈타트의 주교 스피놀라를 통하여 개신교와 연합 가능성을 찾기도 하였다. 또한 라이프니츠(G . W . Leibnitz, 1646-1716)는 프로시아의 연합교회 성립에 공헌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불란서 카톨릭 감독인 보수에(J . B . Bossnet, 1627-1704)와 교회 연합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서구의 방향은 점차 교파간의 차이를 조정하려는 목표로 움직이게 되었다.

라. 엄격한 정통주의에 대한 또 다른 반발.

(1) 극단적 신비주의가 발생하였다. 야곱 뵘머(Jacob Bohme ? -1624)는 환상적이며 신비한 神知學(Theosophy)의 체계를 세웠다. 1612년 예명(Aurord)이란 저작을 출판하였다. 또한 신비주의자들의 비밀결사인 장미 십자단(Rosicrucians)이 생겨났다.

(2) 경건 문학이 나타났다. 요한 안드레와, “진정한 기독교”전 사권을 저작한 요한 아르트 (Johann Arndt -1621)는 기독교인 생활을 강조하여 신비주의자로 물렸으나 나중에 18세기 경건주의의 선구자가 되었다.

6. 17세기 서구 개혁파 교회

가. 개혁파 정통주의(Reformed Orthodoxy)

- (1) 개혁파 정통주의는 노르트 공회(Dordt Synod, 1618-1619)이후 알미니안 주의를 배격하고 푸티어스(G. Voetius-1676)고마러스(Francis Gomarus, 1563-1641)등의 역격한 칼빈주의가 정통으로 득세하였다.

신학적인 방법은 루터파 정통신학과 같이 스콜라 신학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학체계 정립에 힘을 □다.

- (2) 화란 개혁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역격한 칼빈주의를 취하였으나 정부는 여러 가지 자유사상을 허락하였다. 그 결과 도덕적 엄격주의는 퇴조하고 소수의 무리에 국한되었다.

- (3) 정통적 칼빈주의에 대한 하나의 교정적 신학 방법으로 카시어스(Cocceius 1603-1699)의 “계약 신학”(Covenant theology 또는 Federal theology)이 각광을 받았다.

순수한 성경 신학(Biblical theology)임을 표방하고 아꼈다. 그의 주저는 1648년 출간된“계약 교리론”이다(Summa doctrinae de Foedere et Testamento Dei)영국 청교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나, 정통파에게서는 비 정통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나. 알미니안 주의의 영향.

- (1) 1609년 알미니우스의 사후, 에피스코푸스(Simon Episcopius,

1583-1643)와 그로타우스(H. Grotius)등이 이 파를 지도하였으며, 1618-1619년 도르트 공회 직후에 국외로 추방 되었다가 1630년 종교관용령에 따라 제한적 자유를 허용받았으며, 1795년 완전한 법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 (2) 그러나 알미니안 주의의 영향은 컸다. 본래 화란의 에라스무적 종교관 및 신학방법의 전통이 있었으므로, 알미니안 주의는 그러한 전통에 영합하여 자유로운 성경해석과 본문에 대한 비평을 하였다. 이것이 18세기의 계몽신학의 시발이 되었다. 과격한 알미니안들은 소시니인파와 합세하여 일위론자(Unitarian)로 전신하게 되었다.

다. 아미로 주의

- (1) 모이즈 아미로(Mouse Amyrault)는 17세기 불란서 유그노 신학교인 소무르(Saumur)신 학교의 교수로서 선택교리의 설명에서 후속설(後贖設 Post-redemptionism)또는 가정적만인구원설(Hypothetical Universalism)을 주장하였다. 이 학설은 특별구원설(particularism)과 보편구원설(Universalism)의 조화책으로,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원을 가정하시고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도 설정하셨으나, 실제로 그 공로를 힘입어 구원함을 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나, 예정된 사람들만 믿게 되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 (2) 이 학설에 대하여 스위스 제네바의 마지막 정통신학자 투레틴(Turretin)과 츠리히의 하이텍거(Heidegger)가 헬베틱 협정신조(Formula concensus Helvetica, 1675)를 작성하여 정통적 구속도리와 예정론을 수호하였다.

7. 17세기 프랑스 카톨릭교회

가. 루이 14세의 절대군주권(Absolutism)과 불란서 교회의 관계.

- (1) 루이 14세(Louis XIV, 1643-1715, 1661이후는 독제)는 절대권의 신봉자이며, 교회를 그 의 지배하에 두었다.
1685년 낭트 칙령을 철회하고(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1685) 위그노를 국외로 추방시키고 개혁신교회는 불법 단체로서 1789년 불란서 혁명시 까지 지하교회가 되었다.
- (2) 그의 독재는 불란서 카톨릭 교회에도 철저하게 미쳐, 1682년 불란서 공의회(National Council)를 열고 “불란서 성직자의 4개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a) 통치자는 교권에 대하여 독립한다.
 - (b) 영적 문제에 대한 교황의 권한도 공의회에 의하여 제한된다.

- (c) 교황권은 불란서 관습과 법에 의하여 제한된다.
- (d) 교회가 확정하지 않는 한 영적 문제에 대한 교황의 판단도 틀릴 수 있다. 1693년에 왕은 교황과 합의한 후 四個安을 철회하고, 왕은 공석중인 주교 임명권과 수입을 취하였다. 불란서 교회는 영국처럼 독립한“불란서 교회”(Gallican Church / Gallicanism)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다만 루이 14세가 교황청을 견제하는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나. 잔센파(Jansenists)의 사상과 활동

- (1) 잔센(Cornelius Jansen, 1585-1638)은 로마 카톨릭교도로, 이쁘르의 감독(Bishop of Ypres)이었다. 쌍시랑(St Cyran)의 영향으로 어거스틴을 연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란 연구서(사후 1640에 출판됨)를 저작하였다. 그의 주장은 칼빈의 은혜론과 흡사하였다. 즉
 - (a) 하나님의 특별한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 (b)은혜의 역사는 불가항력이다.
- (2) 잔센의 후계자인 상시랑이 뵘로알(Port-Royal)수녀원을 중심으로 잔센파의 가르침과 행위를 힘썼다. 그는 사랑에 동기를 둔 진정한 회개와 사죄를 강조하였다. 이것이 형식주의적인 예수회와 마찰하여, 그는 투옥되기도 하였다. 상시랑 다음에 아르노

(Anton Arnauld)가 후계자가 되어 예수회의 도덕신학인 개연주의(Probabilism)에 반대하고 : 도덕적 엄격함과 권징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다.

- (3) 잔센주의는 17세기 카톨릭 교회의 일종의 개혁운동이었으며, 깊은 종교성과 심각한 도덕관념으로 중산층, 시골신부, 지성인, 하급귀족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쳐 회개하고 참된 신앙생활에 힘쓰는 이들이 많이 생겼다. 교황과 예수회(the Jesuits)는 1653, 1656에 이들을 정죄하고, 루이 14세는 1709년 뽀르 로알수녀원을 폐쇄하고 죽은 이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마지막으로 1713년 교황은 칙서“우니게네투스”(Unigenitus)를 발표하여 정죄하였다.

이후 잔센파는 화란으로 피난하여 우트레히트에서 로마 교회와 분리하여 1723년“화란 고 카톨릭교회”(the Old Roman Catholic Church of Netherland)를 세우고 19세기에는 교황 무오설에 반대하는 카톨릭 교도와 합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다. 파스칼의 생애와 신학.

- (1)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은 유명한 프랑스 신학자, 수학자, 철인이다. 1646년 자센파와 접촉이 되어 첫 개심을 하였다. 1651년 부친의 사망으로 누이동생 자크린이 뽀르 로알 수녀원에 입소하였고 그는 계속 파리에서 과학과 수학연구에 몰두하다가 1654년 완전히 개심하고 뽀로 로알에 가서 신앙생활에 전념하며

남은 8년의 여생을 살았다.

- (2) 1656년 소르본느 신학자들이 잔센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정죄하자, 빠스칼은 익명으로 “프로방스 서간집”(Lettres prbvinciales, 1656-1667)을 써서 로마 카톨릭교회(특히 예수회)의 은혜론과 도덕신학을 비판하였다. 문화적으로도 불란서 고전시대의 명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서한에서 초대교회의 근엄한 생활과 행위를 모본으로 한 잔센파의 엄격한 신앙생활을 변호하였다. 그의 사후에 정리되어 출간된 “명상록(pensees)”은 위대한 기독교 신앙 변증서이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종교적 세계는 믿음으로 알 수 있을 뿐이며, 이 세계에 대해서는 “기하학적 정신”으로 오직 추론할 뿐이며, 이 세계를 마음(Coeur)으로 느낄 뿐이라 하였다. 그는 유명한 “노름 원”(Wager theory)로 신앙에는 하나님을 따르든지 않든지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과학자와 철학자 하나님”은 아니었다. 위대성과 비극성의 틈바구니에 낀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성을 초월한 신앙의 실제적 경험적 세계를 변증하였다.

라. 정숙주의(Quietism).

정숙주의는 17세기 불란서 카톨릭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불건전한 신비

주의로서 특히 물리노(M. de Molinos C. 1640-1697)와 귀용(Mme Guyon), 페느롱 감독(Archbishop Fenelon)등이 보편화 시켰다. 근본 원리는 인간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완전케 이르려면 완전한 수동적 태도와 자의지(字意志)의 소멸, 심지어 자기의 구원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정도로 전적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해야한다. 그리하여 기도케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랑, 덕성, 삼위일체에 대한 흠모와 같은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게 된다. 이런 완전케 이르면, 자연히 외부로 도덕적인 행동에 흘러나온다고 하였다. 이것은 “완전주의”이다. 완전한, 신비적 상태에 이르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한다. 자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파쇄 되었으므로 마귀의 유혹을 받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행위도 완전 상태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조심할 것은 산심(散心)으로 “정숙”을 깨뜨리는 일이다. 정숙주의의 도덕적 결과는 거의 범신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1687년 교황 인노선트 11세의 정죄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주의 경향은 대륙 각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경건주의와 관계가 맺어 지기도 하였다.





4 장

/

근대시대 교회사

제 4 장 근대시대 교회사

훈련 목적

- *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 역사를 이해한다.
- * 시대별 교회 역사를 이해한다.
- * 올바른 선교관을 이해한다.
- *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경을 읽는다.
- * 교회 역사에 관한 도서를 읽는다.
- * 교회 역사에 관한 영상물을 시청한다.
- *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 * 교회가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운 것임을 인식한다.

1. 18세기 교회사(1700-1800년)

가. 제 18세기의 교회사적 특성.

- 1) 영국에 윌리엄과 메리의 등극으로 종교자유(Tolerance)가 허용되고, 종교와 정치의 투쟁은 일단락이 된다. 개신교 신앙영역과 구교의 영역이 확정되고, 교파주의가 확립이 되었다.
- 2) 제 17세개의 종교 전쟁이 끝나고 정통주의(Confessionalism)가 퇴조하자, 즉시 인간사에서 이성의 활용으로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고, 또 한편 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한 주관 적이며, 개인적인 내면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일어났다. 정치적으로는 절대군주권이 약 화되고 시민사회의 형성, 경제적으로는 근대산업사회와 초기 자본주의의 발달, 사상적 으로는 계몽철학이 나타났다.

- 3) 신학적으로는 정통시대-알미니안주의-계몽 신학(Enlightenment theology)으로 진전하였다. 합리적 경향은 합리주의 신학을 낳고 극단적으로는 이신론(자연신론Deism), 무신론에 이르고, 경험적 경향은 좋은 면에서 경건주의와 웨슬리의 때 부흥운동(Evangelical movement)을 낳게 하였다.

나. 독일 경건주의(German Pietism)

1) 제 18세기 초 독일 경건주의 성격.

- (1) 경건주의 운동은 제 17세기 정통주의 신학과 종교생활에 대한 반동이다.
 - (a) 독일 지방교회의 속파,
 - (b) 형식적인 신앙생활,
 - (c) 교리적 경화에 대한 반발이다.
- (2) 경건주의 운동의 기본 요강은
 - (a) 경건 생활(praxis pietatis)
 - (b) 종교적 개인주의(personal religion)로서 개인의 종교적 경험을 심화시키려 하였다.

- (3) 실제 행동 목표로서 세상과 세상의 오락(춤, 카드놀이, 극장, 세속서적)을 멀리하는 실제 적 금욕주의(practical asceticism)를 실천하며, 경건 생활을 힘쓰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 절제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 (4) 특히 독일 경건주의는 하나의 교파를 형성하지 않고, 루터파 교회 내에서 정통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신앙운동으로 그치게 되었다.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소집회(召集會, Conventicle), "중생"의 경험을 가진 신자들만의 모임을 가졌다. (예컨데, 구역예배, 경건회, 성경연구회, 특별집회등)

2) 스페너(philip Jaclb Spener, 1635-1706)의 경건주의 강령.

- (1)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시발자이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하는 중에 교회개혁에 힘을 기울이고, 그 방안으로 진실한 교인들로 구성된 “경건회” (Collegia pistatis)를 열어 말씀을 가르치고 실제적 신앙 생활을 지도하였다. 최후에는 베를린에서 감독목사(provost)로서 일하였다.
- (2) 그는 독일의 화평주의자 아른트(Arndt)의 “진정한 기독교”(Ture Christianfity, 1605-1609)를 읽고 감명을 받았으며 : 영국 청교도들의 저작중에서 루이스 베일리(Lewis Bayly ?-1631)의 “경건 연습”(practice of pietie, 제3판, 1613)백스터의 “자기부정론” (Trestise on Self-denial, 1659)등을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다. 1675년에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획기적 소논문 : “경건한 열망(pia desideria / pious Longings)을 출판하여 독일교회의 조용한 개혁을 주

도하였다.

(3) “경건한 열망”에서 제창한 6個 항목은 다음과 같다.

- (a)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해석, 공중예배도 말씀중심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가정단위로 성경을 많이 읽게 할 것.
- (b) 만인의 영적 제사장 직분의 활용. 평신도 각자의 신앙 생활을 강조하고, “상호 영적 치료”(mutual cure of souls)를 실행 하도록 할 것.
- (c)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특히 이웃에 대한 사랑)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칠 것.
- (d) 종교적 분쟁을 하지 말 것. 어쩔수 없을 경우에는 사랑으로만 할 것.
- (e) 목회자 야성방법을 개혁하며,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영혼속에 베어 들게 할 것. 아퀼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타올러의 저작들과 “독일신학”등의 경건서적을 읽게 할 것.
- (f) 설교는 학식자랑과 웅변보다 교훈적일 것.

(4) 독일 경건주의의 세파.

- (a) 할레 경건파(Halle Pietism) : 독일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경건운동인데 그 특색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과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복지 기관설치에 있다.(학교, 고아원, 보건소, 선교회등), 그 대표자는 아우그스트 프랑케(August H. Francke 1663-1727)이다.
- (b) 뷔르템베르그 경건파(Wurtemberg Pietism) : 남부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 운동으로 자유주의적 색채를 띠었

다. 엄격한 회개보다 절제 생활과 자기 성찰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기의 활용을 권하였다. 요한 벵겔(Jonann Albert Bengel, 1687-1752)은 이 운동의 대표자이며, 유명한 주석가요 성경학자이었다. 성경을 학적으로 연구하는 전을 세웠으며, 나중에 이 계통에서 고등비평가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제믈러(Semler - 1793)가 배출되었다.

- (c) 헤른후트 경건파(Herrnhut Pietism / 또는 진젠도르프 파) : 감정적이며, 신비주의 경향이 있는 파로서 대표적 지도자는 진젠도르프 백작(Count Zinzendorf 1700-1760)이다.

4) 프랑케의 경건주의 운동

- (1) 프링케(1663-1727)는 스페너를 만나서 이전에 독자적인 개심의 경험을 하였고(1689), 라이프찌히 대학에서 “성경 애호회”(Collegia philobiblica, 성경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스페너의 도움으로 할레대학의 교수가 되어, 거기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관들을 세우며 능력있는 일을 하였다.

- (2) 독일은 30년 전쟁후에 그 여파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폐한 상태이었으며 선진 열국의 해외 식민지 활동에 가담하지 못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하였다. 할레 대학 주위에 “버려진 군중” 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영 육의 양식”을 주어, “살아 계시고 능력 많으신, 사랑하시고 참되신 하나 님의 은혜로운 발자취”

를 따르려 하였다.

(3) 프랑케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대한 사업을 하였다.

(a) 불우 학생을 위한 학교 설립. (큰 아이가 작은아이를 가르치게 함.)

(b) 고아원(1696)

(c) 기숙학교 설립, (철저한 교육과 생활 지도, 자비와 장학금)

(d) 김나지움(1697, 특수교육기관)

(e) 페다고지움(pasdaggium, 사립학교 : 부자들의 자제교육)

(f) 모자원 설립(House of Widows, 1698) : 디모테전서 5 : 3-16을 모델로, 국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였으며, 전속 관리인, 목사, 의사, 가정부가 있음.

(g) 김나세움(Gymnaeceum) : 미혼 처녀들이 자비로 교육 받음.

(h) 교사 양성소(Teachers training institute, 1704) :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i) 보건소 설치 : 할레 신학생들에게 의학 지식 보급.

(j) 책방

(k) 성경 출판사 설립 : 경건 서적 출판. 이 모든 기관들은 순전히 프랑케의 기도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 그의 저서가 영국에 소개되고 온 구라파에 소개되었으며, 특히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프랑케의 사

회기관들이 영국에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 (1) 프랑케의 지도로 할레 신학생이 덴마크 왕 프레데릭 4세의 요청으로 인도 크란크바알 (Tranquebar) 선교사가 되었다. (1705)

5) 진젠도르프 백작(1700-1760)

- (1) 헤른훗트 경건파의 지도자이다. 그는 할레 페다고지움에서 공부할 때 프랑케의 경건주의 사상을 배웠다. 14세 되던 해에 친구들과 한 모임을 창설하여 “전인류를 사랑한다”고 삶의 목표를 정하였다고 한다. 갈 곳을 잃은 후스와 피난민들을 규합하여 헤른훗트 형제회(Herrnhut society of friends)를 창설하고(일명 the Moravian Church, 모라비아교 회)세계 선교를 도모하였다.
- (2) 그의 사상은 “성령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주장하며 교회의 연합을 추구하였다. 원시 기독교 풍습을 좇아 발을 씻기고 애찬을 실시하고 화평의 입맞춤,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등 실제적 생활을 강조하고, 또한 믿는 이들의 공동생활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진젠도르프의 사상은 그외 신비적이고, 고도의 감정적인 예배와 신학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성애적인 흠모와 그리스도의 수난을 예찬하는 신학을 발전시켰다. 주의 피, 땀 상처, 고통을 실감 나게 묘사하는 찬송시를 지어 불렀다. 한때 그는 성부 성 모 성자를 삼위로 보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과격한 사상을 회개하였고, 그의 후계자인 슈광겐베르그(August Gottlieb

Spangenberg)는 모라비아 교회 의 신학을 재정비하여 정통 노선에 세웠다.

- (3) 진젠도르프는 미국, 영국, 화란, 발틱해 연안 등지에 모라비아 교도들의 공동체를 세웠으며,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에 새로운 감정적 요소를 도입하므로 공헌한 바도 크다. 슈라아어막허(Schleiermacher)는 그의 영향을 입었다. 또 한편 요한 웨슬레도 모라비아 교도들의 열렬한 신앙과 전도열에 큰 감명을 받아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6) 청교도(Puritan)와 경건주의자(Pietist)의 차이

청교도들은 신앙과 생활의 기본 입장이 칼빈주의이고 : 경건주의자들은 루터파 신학의 산물이다. 청교주의(Puritanism) - 경건주의(Pietism) - 복음주의(Evangelicalism)로 시대적 이행과 각기 특성의 공동점과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계몽주의(the Enlightenment)

1) 계몽주의의 특색.

- (1) 교회의 권위에서 벗어난 인간 이성과 경험에 근거한 자율적 세계관과 인생관의 정립과 추구이다. 인간이 가치 측정의 표준을 자기에 두었다. 자율(自律 Autonomy)의 주장이 모든 사상과 활동의 특색이다.
- (2) 르네상스 이후 “自我의 발견”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되었으나

종교개혁, 정통주의, 종교 전쟁 등으로 각광을 받지 못한 채 저류를 이루어 오다가. 신학적으로 암미니안 주의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나타나다가(제 17세기), 30년 종교 전쟁이 끝나고 상업경제의 발달과 함께 하나의 사상적 체계를 세우고 등장하여 제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가 되고 말았다.

(3) 이 계몽주의 운동은 나라마다 그 특색이 다르다. 종교개혁과 같은 단일성을 이루지 못하였다.

(a) 영국의 경험론

(b) 독일의 합리주의 -나중에 이상주의(Idealismus)

(c) 불란서의 자연주의이다. 그러나 다같이 이성을 최고의 규범(Norm)으로 삼고, 모든 인문과학을 자연적 체계로 정비하여, 종교, 도덕, 헌법, 시민법, 경제질서의 근거를 이성 또는 자연법에 두려 하였다.

2) 네덜란드의 계몽주의

(1) 네덜란드에서 계몽주의는 시발되었다.

1630년 종교관용(Tolerance)정책과 상업경제 발달과 시민계급의 형성등으로 문화가 발달하였다. 알미니안이었던 그로티우스의 자연법사상, 성경주석, 자연신학적 경향은 별 써 자유로운 학문 활동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베일 등이 일찍 활동하여 계몽주의의 기초를 쌓았다.

(2) 데카르트(1596- 1650) : 데카르트 학파를 세웠다.

“의심”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존재의 근원을 밝히려 하였다. 최후로 남아서 의심할려해 야 할 수 없는 “의심하는 자

기”(그의명제 :Cogito, ergo sum)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서양 철학과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자율(human autonomy)의 발견이다. 이성인 현실의 전부와 과학적 방법 문제를 해결한다는 합리주의를 낳게 되었다.

데카르트의 신의 존재에대한 논의는 결국 인간의 인식의 확실성을 증명하는데 이용되었다. 존재론적 증명(Ontological argument)으로 완전한 존재는 “존재” 까지 포함한다.

인간의 분명하고 똑똑한 관념들이 타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 완전한 신이 사람을 “속일” 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분명하고 똑똑한 제 관면들이 오류를 범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적 연역(logical deduction)은 타당할 수밖에 없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철저한 “세상” 中心의 사상가였다.

- (3) 스피노자(Benedictus de Spinoza, 1632 - 1677) :그는 스페인에서 피난은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으나 자유사상 때문에 출교 당하였다. 그의 철학은 합리주의적 범신론(rational pan-theism)이다.

그는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철학자이었으나 후세에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며 지금까지 그 영향은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는 자연신학의 아버지요, 자연주의의 사상적 원천이요, 계시종교의 파괴자이다.

그는 “신학적-정치적 논문”(Tractatus Theologico-politius 1670)과 윤리학(Ethica, 1677)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혁명적 형이상학을 전개하였다 : 실체(Substance)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자신을 통하여 인식되어 진다”고 하였다. 다시말하면 그 자체에 대한 관념의 구성은 그 자체의 (外)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체는 “신 또는 자연”(deus sive natura)이며, 다만 신은 자기원인(causa sui / 생산하는자연 Natura naturans)이며, 자연은 그의 나타난 것(Natura naturata)이다. 이 실체는 무한하며 수많은 속성중에 생각(cogitatio)과 연장(extension)만 사람에게—알려져 있는데, 모든 개체들은 이 두 속성의 양태(modes)들이라 한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란 필연에 따라 움직이는 비인격적인 신의 지능(Intellect)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인격의 영원성이나 영혼 불멸도 부정한다.

최고의 인간활동이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의 필연성을 정관(靜觀 conremplation)하는 것인데, 이는 겸손과 참회를 통하여 인간의 걱정을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의 영향 : 스피노자가 이와 같이 단일 영적 실재(a single speritual reality)라는 기본사상을 가지고 데카르트의 영과 육의 분리, 하나님과 세계의 분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므로, 후에 독일 이상주의(German Idealism)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쉴라이어막허(Schleiermacher)셸링(F . W . J Schelling), 헤겔(G . W . F Hegel)에 영향을 주었다. 지금도 폴틸리히(Paul Tillich)같은 이가 하나님을 초월자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자연 개물의 창조적 근거”(the Creative ground of all natural

objects)라 생각하는 것은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4) 뻘에르 베일(Pierre Bayle, 1647-1706) : 계몽철학의 화약고라고 불리워 지는 “역사적 및 비평적 사전”(Dictionaire histirique et Critique, 1695-1697)을 저작하였다. 성경에 대한 합리적 연구를 주장하고 모든 이적을 부인하였다.

3) 영국 이신론(理神論 Deism)의 발달.

- (1) 1688년 명예혁명, 1689년 관용령, 1694년 출판 자유등 일련의 자유화 기운이 일자,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안 주의와 스피노자의 철학등에 영향을 입은 영국인들이 속속 귀국하여 계몽사상이 퍼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영국 내에 이신론(Deism)이 득세하였다. 이신론은 독특한 영국적 계몽주의 종교 사상으로 벌써부터 허버트 경에 의하여 주장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상도 1750년에는 벌써 세력을 잃게 되고 영국은 웨슬레의 대 부흥운동의 종교적 역기에 휩쓸리게 된다.

- (2) 이신론의 내용은 허버트 경(Lord Herbert of Cherbury 1581-1648)이 저작한 “지리론”(De veritate, 1620)과 “만민의 종교” (De religione gentilium 1645)에서 모든 종교에 공통되는 5개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

- (a) 유일신
- (b) 예배
- (c) 도덕과 경건생활

(d) 인간의 의무는 회개와 악을 멀리함

(e) 현세와 내세의 보상이다. 기독교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관
념에서 출발하였으나 타락하여 비 합리적 제도와 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 (3) 존 록크(John Locke, 1632-1704)는 비록 자신은 이신론
자가 아니라고 부정하였으나 기독교는 가장 합리적 종교임
을 “기독교의 합리성”(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1675)이란 저술에서 변증하고 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였다.
그러나 항상 이성으로 미신과 신비주의를 가려내고, 이성으
로 계시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경험론적 인식론은 모든 선험적 지식을 부정하고 다만 경
험에 의하여 지식이 발생한다. 즉 감각과 회상을 통하여 이
성작용으로 지식이 생겨난 뿐이며, 본래 인간의 마음은 백지
(tabularasa)와 같을 뿐이라 하였다. 이렇게 감각과 이성 작
용으로 얻은 지식이 자연계시(Natural revelation)라고 하
였다. 이런 사상의 결과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시 종교
가 자연 종교에게 밀려나게 된 것이다.

록크 이후, 본격적인 이신론자들이 나타났다. 18세기 이신론
자들은 대답하게

(a) 계시종교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자연종교로 격하시키었
고,

(b) 하나님, 영혼불멸, 윤리등 합리적 요소만 기독교신앙에서
수용하고, 비합리적이라 생각 하는 삼위일체 교리와 성

육신 교리를 부정하였다.

(c)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부정하고 우주의 기계적 운행과 진행을 믿었다. 그 대표자는 톨란드(John Toland, 1670-1722), 클린스(Collins 1676-1729), 틴달(Tindal, 1656-1733)등 이다. 톨란드의 저서 “신비하지 않은 기독교” (Christiamity Not Mysterious, 1736)는 자연종교가 기독교의 원형이며 : 유대교, 희랍 밀교, 플라톤 철학의 악 영향으로 타락하였다고 지적한다. 틴달의 저서 “창조만큼이나 오래된 기독교” (Christianity as old as the Creation, 1730)에서도 自然宗教가 모든 종교의 근본이라 하고 있다.

(4) 1750년대에 오면 이신론은 그 세력을 벌써 잃어 버리게된다.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에 의하여 이신론의 근거가 무너지고, 조셉 버틀러(Joseph Butler, 1692-1752)의 기독교 측 반격으로 영국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불란서 자연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4) 흄의 회의론(Scepticism)이 기독교 사상에 미친 영향.

(1) 록크(Locke)의 경험론은 아직도 이신론자들 가운데 합리적 초자연주의(rational Supernaturalism)를 가능하게 하였다. 계시와 이성을 조화시키려 하였기 때문이다. 많은 이신론자들이 구약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거 하려 하였다.

(2) 흄은 그의 회의론(Scepticism)으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인

식가능성을 부정하였다.

“이적론(Essays on Miracles, 1748)이란 저서에서, 철저한 경험론의 입장에서 이적을 부인하였다. 그의 논리는 이러하다 : 죽은 자의 부활을 회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경험상, ” 인간의 증언이 잘못되었을 경우가 많은 것은 경험에 배치되지 아니하나, 이적 이 참되다는 것은 경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간의 인식 능력은 경험의 한계를 절대로 넘어 설 수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존재, 영혼불멸, 보편 타당한 진리는 알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흠에 이르러 합리적 기독교(이 신론)과 합리주의 자체까지도 파국에 빠져버렸다. 이성이란 경험의 소산일 뿐이며, 심 지어 자아도 지각의 묶음(다발)에 지나지 아니하며, 모든 지각은 경험이 얻은 인상들이 아니면 인상의 모조품인 관념일 뿐이다. 따라서 관념관(觀念間)의 관계는 확실히 알 수 있으나, 실재의 사실들은 그러리라하는 개연성이 상 더 증명할 수 없다.

인과율도 논리의 개념이 아니며, 인간의 구상력에 인상지어진 습관과 연상의 결과일 뿐이다. 그는 여기에서 형이상학의 가능성도 부정하였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가전적 우주에 대한 신념도 부정하고, 도덕생활도 사실은 의지와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에 따라 지배될 뿐이다.

- (3) 이러한 철저한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은 흠이후 새로운 시대 곧 낭만주의, 자연주의, 유물주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였고 : 독일의 라이다리스(Reimarus)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칸

트로 하여금 시천 이성의 비판을 받게 하여 자유주의의 근거를 쌓게 하였다.

종교적으로는 철저한 인본주의에 빠져 기독교 신앙의 침체를 가져오게 허였고 그 기에 대항 반동(反動)으로 급선회하여 “대복음 운동”을 낳게 하였다.

5) 버틀러의 “종교 유추” (Analogy of Religion, 1752)에 관하여

(1) 조셉 버틀러(Joseph Butler, 1692-1752)는 장노교 가정에서 자랐으나 영국 국교회로 전향 하여 나중에 더함의 감독(Bishop of Durham)이 되었다. “종교유추”는 그 원명이 “自然의 구조와 진행에 대비한 자연 종교 및 계시종교”(Analogy of Religion, Natural and Revealed, to the Constitution and Course of Nature, 1734)로 버틀러의 대 저작이며, 기독교 변증서로서 이신론자들에게 계시종교의 합리성을 변증하고 또 한편 회의주의자에게 계시종교와 그 개인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2) 첫 부분은 자연계시로서 영혼 불멸성, 상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moral government of the world)를 변증하였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특별계시의 필요성을 논한 다음에 이성으로서 계시의 의미와 도덕성과 그 증거를 판단해야 하며, 양심은 신의 선물로서 성경 말씀 중 어느 한 부분이 자기 양심에 거슬릴 수 없어야 된다.

예수님의 대속 교리를 설명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연성(Probability)이 인생의 인도자가

되니, 이렇게 개연성이 높은 계시도리야말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 (3) “종교유추”는 이신론과 회의론에 대한 답으로서 널리 인정되었고, 이것으로 일단 기독교의 변증은, 적어도 영국시민들에게는, 성공적이었다고 보았다. 엄밀히 말하면, 버틀러의 변증방법은 알미니안 적이며, 즉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 기독교의 변증이었다. 그 근거에 있는 전제는 중생 되지 않은 自然人이 이성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자연 진행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유추하여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변증태도는 지금도 소위 “복음주의”(Evangelical)라고 하는 감리교의 변증방법이며 영국 국교회의 태도이다.

6) 프랑스 계몽운동과 기독교에 미친 영향.

- (1) 프랑스의 계몽사상은 영국에서 건너왔다. 볼테에르(Voltaire, 1694-1778)는 영국 이신론을 받아들였으며 계몽사상을 보편화시켰다. 그러나 불란서 계몽운동은 그 공격 목표가 교회와 성부의 불관용 정책이었기 때문에 반 기독교적 색채가 농후하였다. 볼테에르도 나중에는 신의 필요성을 실제적 생활면에서 찾았고 영혼불멸을 믿지 않고 점차 물질주의에 빠졌다. 그러므로 불란서 계몽주의는 (a) 자연주의 (b) 물질주의 (c) 반기독교(무신론을 포함)를 낳았다.

- (2)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78) : 흠이 루소를

영국으로 데리고 간 일이 있다. 그는 흙과 교유를 통하여 벌써 이신론의 단계를 넘어서서 자연주의 또는 낭만주의에 넘어가고 있다. 그는 감정과 자연을 찬양하는 열혈 선지자이었다.

자연상태가 행복과 평등의 상태이며 自然에 접근하여 국가생활(정치), 교육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였다. 그의 종교는 “自然”이었다. 여기에서 사회계약론(1762), 에밀(1760)등의 저작이 나왔다. 기독교에 대하여는 신 . 자유 . 영혼불멸을 믿었으나 이신론자의 신앙정도를 넘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고 종교는 다만 종교감정에 근거하며 순수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느낌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 (3) 디드로(Diderot, 1713-84) : 백과사전 편찬자로서 계몽사상을 보편화 시켰다. 사전에는 루트 소, 볼테에르, 돌바크(D' Holbach)등이 기고하였으며 종교관용(자유)와 민주사상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1759년 판금되었으나 1772년까지 비밀히 전 28권이 출판되었다. 디드로는 개인적으로 기계적 유물론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계몽사상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1789년 불란서 대 혁명을 낳게 하였다.

7) 독일 합리주의 발생.

- (1) 독일 합리주의는 라이쁘니츠(Leibnitz, 1646-1716)와 그의 사상을 대중화시킨 크리스찬 볼프(Christian Wolff, 170-1754)의 계몽사상이다.

라이브니츠는 만능의 천재로, 정치가, 외교가, 수학자(미적분 발견)기호 논리학을 연구한 사람이요, 발명가(계산기)이었으며, 프러시아 한림원 창설자이다.

- (2) 영국 이신론자들처럼 기계적 우주론을 중심사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의 유명한 “단자론” (單子論 Monadology 1714-1720)으로 결실되었다. 우주는 무한한 단자(monad)들의 체계인데 이 단자들은 자체의 힘을 지닌 불멸의 본체(즉 쪼갤 수 없으며, 언제나 활성을 지님)로서 완전한 상승 연속법칙에 따라 하급 형태의 물질에서 영 . 천사 . 최고 로 신의 형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자체는 본체의 무한성을 가 질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반영하고 있다.

라이브니츠는 신의 존재를 설명할 때에 최고의 단자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모든 단자를 창조하거나 유출하여 발생케 한 “원형적이며 단순한 본체”(the original simple substance)라 하기도 하였다. 영혼불멸은 영의 본체적 성격이라 하였다.

우주는 완전한 기계적 기능을 가지므로 죄는 자연질서와 사물의 기계적 구조자체의 성격에 따라 형벌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의로운 행위도 보상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낙관론자로서 이 세상은 “가능한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 하였다.

- (3) 라이브니츠의 합리주의는 하나의 이신론의 형태로서, 록크처럼 자연 종교와 계시를 조화시키려 하였으며, 1730년대 독일 대학을 매료시켰다.

8) 독일 신학에 있어서 신학문(Neology)의 발생.

(1) 독일 합리주의는 1740-1750에 극성기에 이르렀고 그 영향은 독일 신학계에 소위“신학문”(新學問, Neology)과 합리주의 신학(rational theology)를 낳게 하였다.

(2) 특히 교회사와 성경주석에 신학문이 발다라였으며 뷔르텔베르의 경건주의 성경학자인 제 물러(J . S . Semler, 1725-91)는 그 대표자이다. 그는 획심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역사와 합리적 비판에 근거를 둔 성경연구를 하였다. 종교(하나님에 대한 믿음)와 신학을 구분하였으며,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였다. 그는 실제로 교회사를 “역사적”으로 비판하고, 성경론에 대한 “역사적 비평적” 방법을 사용하였다(소위 historisch-Kritisch).

1771-1775년에 출간한 “정경의 자유비판 논문”에서 정통적인 영감설을 부정하고, 정경이 점 진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가치도 동일하지 않다고 하였다. 도덕적 성격은 하나님에게서 근원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시대적 특수형편에 “적용”(accimodation)하여 썼을 뿐이며, (보편적 도덕적 가치 외에는)현재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는(역사적)문서라는 것이다. 그의 에르네스티(Ernesti), 미카일레스(Michaelis)등은 영감론은 유지하나, 문학적(문법)-역사적 비판을 시도하였다.

(3) 라이마루스(Samuel Reimarus, 1694-1768)는 랫쌍이 익명으로 출판한 라이나루스의 비밀 저작“볼멘빗텔러 단편”(die

Wolfenbutter Fragments, 1774-1778)에서, 독일서는 최초로 자연종교에 근거하여 계시종교를 부정하여 세상을 물라게 하였다.

- (4) 그 결과 : 1770년대에 독일 교회에서 설교가 도덕설교에 그치고 말았으며,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18세기말에 독일 교회는 (a) 칸트에 근거한 자유주의 (도덕주의)를 따라 기독교의 활로를 찾거나 (b)슐라이어막허(Schleiermacher)의 자유주의(종교적 감정주의)를 따라서 활로를 개척해야만 되었다. 한편 경건주의자들은 이러한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고 특히 할레대학이 이 물결에 휩쓸렸으나, 일부는 그들이 “마음의 종교” (Herzensfrommigkeit)라는 원리를 붙들고 경건으로서 정통교리를 고수하려 하였다.

프로시아의 프레데릭2세는 볼너 칙령을 내려(Wollnerscher Religionsedikt, 1788) 설교가 들이 정통교리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못하게 하였다. 여기에 제물리는 순복하였으나 일반 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

라. 제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The Evangelical Movement)

1) 제 18세기 영국의 종교적 상황.

- (1) 알미니안 주의의 영향으로 광교주의(Latitudinarianism)이 성행하였다. 그 대표자는 변증 가 버틀러(Butler)와 설교가 틸롯슨(Tillotson)이다. 이들은 이신론과 홉브스(Hobbes)의

무신론에 대항하여 합리적 신학을 안출하고 교리보다 성경에 근거하여 합리적 도덕생활을 강조하는 한편 : 엄격한 칼빈주의를 알미니안 주의로 완화시켰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혼합주의 또는 절충주의로서 계시와 이성의 조화를 모색하였으며, 의지의 자유화 보편 구원설에 동조하였다.

그 결과는 버틀러 감독에게 1747년 캔터베리 대감독의 지위를 줄려하였을 때 “무너지는 교회를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면서 사양할 정도로 기독교회는 침체와 퇴락의 길로 내닫고 있었다.

이신론, 무신론, 합리론은 전체가 기독교인으로 간주되는 영국 국민들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 (2) 과격한 알미니안들은 일위파 교회(Unitarian Church)를 조직하여 수많은 교인이 여기에 가담하였다. 요셉 프리슬리(Joseph Priestly)는 그 대표자이다. 이 운동은 나중 19세기 더욱 크게 성장하고, 미국 회중교회를 거의 전멸시키게 된다.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일위(Unipersonality of God)이심을 주장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그들은 무신조 주의이다. (No Creed). 처음에는 성경에 근거하였으나 19세기 이르러는 이성과 양심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았다.

- (3) 기독교의 합리화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 신비주의와 밀교가 일어났다. “자유 석수단”(自由石手?, Freemasonry)같은 비밀 결사와, 1788년 이후에는 스웨덴보르크(Swedenborg,

1688-1772)교회가 섰다. 스웨덴보르그는 스웨덴 출신의 과학자요 신비 사상가로서 과학적 분석으로 우주가 근본적으로 영적 구조(Spiritual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1743-5사이에 갑자기 영적 실체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후로 꿈과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생시에도, 영계와 영물과 접촉하였다고 하며 주님의 지시로 새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조직교회를 원하지 아니 하였으나 1787년에 웨슬레파의 설교가들이 “새 예루살렘 교회”(the New Jerusalem Church)를 설립하였다. 그의 가르침에는 삼위일체 부정, 영계와 물질계의 대칭, 일반적으로 범신론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2) 제 18세기 영국 복음운동(Evangelical Movement)의 선구자들

(1) 다른 여러 가지의 신앙운동처럼 웨슬레와 헛필드의 대 부흥운동이 있기 이전에 그 길을 열어 놓은 선구자들이 있다.

필립 두드릿지(Philip Doddridgs, 1702-51), 토마스 보스턴(Thomas Boston), 어스킨 형제들 (Ebenezer Erskine, 1680-1754 그리고 Ralph Erskine)들은 모두 칼빈주의 자들로서 특별히 회개화 전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통주의 칼빈파의 엄격한 노선과 큰 마찰을 일으켰다. 특별히 1717년에 익명의 저작인 “현대신학의 골수”(The Marrow of Modern Oivinity, 1645) 가 재간되자 “골수 논쟁”(the Marrow controversy)이 스코트란드 장노교회내에서 일어

났으며 서로 “반 율법주의”(Antinomianism)이다, “신 율법주의”(Neonomianism)이다 하며 싸웠다.

보스턴은 이 논쟁의 주역이었으며 단순한 칼빈주의 교리를 증거하고,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논한 “인성의 네 상태”(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를 저술하여 회개와 새생 활을 강조하였다. 어스킨 형제들은 스코트랜드 장노 교회와 투쟁하면서 전도설교를 하였다. 이들은 알미니안 주의가 교회를 망하게 하며 도덕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하고, 예정과 선택을 그들의 설교에서 강조하였다.

- (2) 복음운동은 특별히 1730년대에 미국, 스코트랜드, 웨일즈 그리고 영국에 널리 퍼졌다. 처음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은 네덜란드 개혁파 목사 트렐링하이젠(T. J. Frelinghuysen)이 회개와 새 생활을 외치고(1719)이어서 테난트(Gilbert Tennent)가 합세하여 펜실바니아주에 살고 있던 장로교인들에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킴으로 시작되었고, 이 불길이 1735년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1703-1758)의 교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의 대부흥운동이다.

그 다음으로 1735년에 하우웰 헤리스(Howel Harris)가 웨일스 지방에서 성례를 베풀다가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남을 느꼈다. 그는 생전에 300교회를 세웠으며 순회목사로 지방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핍박도 많이 받았다. 헛필드와 협조하며 나중에 웨일스 칼빈주의 메소디스교회(the Welsh Calvinistic Methodists)를 세우게 되었다. (나중에 웨일시 장노교 회라 불리워짐)

(3) 이러한 부흥운동의 성격은 종교개혁과 같이 교회의 개혁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개혁과 교회의 신앙과 생활의 침체상태에서 재기하여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함에 있었다. 그러므로 주목표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회개와 새 생활을 촉구한 것이다.

3) 조지 헛필드의 칼빈주의 복음운동(Calvinistic Evangelicalism)

(1) 조지 헛필드는 1741년 웨슬리와 신학문제로 서로 길을 달리 하게되었다. 그는 복음운동에 항상 따르기 마련인 알미니안주의 위험을 간파하고 선택과 예정교리에 근거한 칼빈주의 신학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끝까지 전도자로 일생을 마치고, 어떤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 교회를 새롭게 하였고, 개인의 생활을 개선시켰고, 또한 그의 교역의 결과는 미국의 독립운동이란 큰 혁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2) 헛필드는 1714년 영국 글루스터에서 태어나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었다. 1735년에 오랜 영혼의 고민과 육체의 고통을 거쳐 갑자기 죄 용서함과 구원의 확신을 느끼게 되고 소위 “개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특히 웨슬레 형제들이 주도하는 “옥스포드 학생회”에서 찰스 웨슬리의 도움으로 헨리 스쿠걸(Henry Scougal)의 “인간의 영혼에 내재한 하나님의 삶”(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1677)이란 책을 읽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웨슬레 형제들과 미국 조지아에 가서 선교를 하였으며, 거기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모으려고 영국 각지에서 설교하였다.

그의 설교는 야외에서 하였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한번에 2만명이 들었다고 한다. 명설교가요, 부흥운동과 새 생활운동의 주축이었다. 그는 일곱 차례나 미국을 방문하여 전도하였고, 학교와 고아원 등 여러 기관들을 창설하였다.

4) 웨슬리의 부흥운동

(1)요한 웨슬리(John Wesley, 1703-91)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은 옥스퍼드 대학 재학시 옥스포드 학생회(Oxford club, 1729)를 조직하고 20여명의 학생들이 이를 “성결 클럽”(Holy Club)이라 불렀다. 이 클럽의 특색이 생활의 질서와 규율이었으므로 “메스다스트”(Methodists)란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윌리엄 로(William Law)의 지도를 받았다. 로는 1729년에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심각하게 촉구함”(Serious Call to a Holy and Devout Life)이란 책을 저술하여, 경건 생활을 강조하였다. 이들이 1736년 미국 조지아 주에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 모라비아 교도들과 그들의 지도자 스팅겐 베르그를 만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황하였으며,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요한 웨슬레는 조지아 선교 실패 후 영국으로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알더스게이트(Aldersgate)소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 기록된 루터의 개심기를 읽을 때에 갑자기 마음이 더워지고,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며, 주께서 자기 죄를 제거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한다.

- (2) 개심 이후 사랑과 열심으로, 훈련과 노역으로 “만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활이 시작되고, 증진되고, 보존되게 하여, 실제적인 종교를 실천하도록” 힘을 썼다. 그는 “세계를 교구”로 전도에 온 힘을 기울이었다. 단순한 복음과 지옥의 무서움과 회개의 필요성을 설교하여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국교회 목사들이 웨슬레의 부흥집회를 방해하기 때문에 노천설교를 하였으며 1739년에는 평신도들을 설교자(lay preachers)로 양성하여 설교하게 하였고, 새로운 결신자를 얻으면 작은 그룹(bands)로, 속회(classes)로 무리를 지어 주고, 새로 얻은 신앙을 서로 격려하며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초대 교회와 같이 “상호교육”(mutual edification)과 “형제적 교정”(fraternal correction)에 힘을 썼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같은 해에(1739)집회소를 마련하였다.

- (3) 1741년에 교리 문제로 헛필드와 웨슬리의 분열에 있었으며, 1742년 웨슬리는 단독으로 영국 곳곳으로 전도하였으며 매년 8,000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며 순회 전도하였다고 한다. 그리 하여 그가 죽을 때에는 294명의 설교자, 영국에만 71,668명의 교인, 19명의 선교사와 5,300명의 외방신도, 그리스 미국에 198명의 성교자와 43,265명의 교인이 있었다고 한다.

- (4)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에 남아서 전도하기를 원하였으나 1768년 미국 선교를 위해서 토마스 콕(Thomas Coke)에게 안수

하였고, 그에게 부탁하여 에슈베리(Ashbury)를 인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744년에 모인 설교자들의 연회가 차츰 교회 구실을 하게 되어 1784년에는 자기 사 후에도 계속하여 복음 전도를 하도록 “100인회”에 소유권과 전도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일임 시켰으며 1791년 그가 죽자 정식으로 웨슬리 메소디스트 교회(the Wesleyan Methodist Churen)가 설립되었다.

- (5) 웨슬리의 신학은 청교도들의 신앙전통을 가졌으나 백스터와 같은 알미니안 주의 경향이 농후하였다. 엄격한 예정과 선택을 부정하고, 알미니우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반응에 역점을 둔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졌다. 그러나 윤리적인 면에서는 훈련과 시간 생활, 경제 적 책임, 오락금지등 청교도들과 같은 경건 생활을 주장하였다.

5) 영국 국교회내의 “복음주의자” (Evangelicals)

- (1) 대 복음 운동으로 인하여 국교회 내부의 신교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그들의 신학은 칼빈 주의이고, 개인의 회개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였다. 윌필드의 노선을 따르며, 국교회 내부에 남아서 복음운동을 하려 하였다. 그 대표자로서는 헨 리 벤(Henry Venn, 1725-95), 과 선교회 창설자 중 하나인 존 벤(John Venn, 1759-1813), 그 리고 한 때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 존 뉴튼(John Newton, 1725-1807), 캠브릿지 대학을 지금까지 복음주의의 온상이 되게 한 아이작 밀너(Issac Milner,

1751-1820)등이다. 이들은 숫 적으로 소수이었으나 국교회와 영국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 (2) 부유한 복음주의자들로서 평신도들이 클랩팸지역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클랩팸 파”(Clapham Sect)라 불리워졌는데, 이들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각자 자기 지위와 신분에서 차할려고 노력하였다. 그 중에 유명한 윌리엄 위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은 국교회의 복음주의 목사들과 교류한 끝에 개 심하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일으켜 1833년 제국내에 노예매매 제도가 폐지되게 하였고, 1787년에는 부도덕 퇴치 협회조직, 1810년에 기독교 신문 창설, 1804년 대영 성서공회와 해외 성서공회 창설, 그리고 각종의 학교, 주일학교, 감옥개선 등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 그룹의 회원 중 한 사람인 그랜빌 샤프(Granville Sharp)는 1787년 해방된 노예를 위해서 시에라 레오니(Sierra Leone)국을 창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3)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평신도인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 1735-1811)는 1780년 글루스터(Gloucester)시에 처음으로 주일학교(Sunday School)을 시작하였다. 존 하워드(John Howard 1726-1790)은 비국교도로서 감옥개선에 공헌을 하였다.

- (4) 1796년에 교회 선교회를 국교회 평신도들이 창설하였다. 이 때에는 각 파에서 선교열이 대단하여 초교파적인 런던 선교회(London Missionary Society, 1795)가 생기고, 1796에

스콧트란드 선교회가 생겼으며, 1793년에는 침례교 선교회에서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를 인도 선교사로 파송하여 칼컷타 근처 세라포레 (Serampore)에서 선교하였다. 그 이후로 런던 선교회는 남아시아, 중국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여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

- (5) 이러한 국교회 복음주의자들의 활동은 영국사회에 큰 활력을 주었고, 기독교 신앙도 새로운 힘을 찾게 되었다.

2. 19세 유럽대륙의 교회사

가. 독일

1) 프로이센 교회연합

19세기 독일에서 등장한 것은 1817년 프로이센 교회연합이 결성되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당시 왕이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종교개혁 300주년이 되는 해에 루터교회와 칼빈교회를 연합하여 연합복음교회를 만들었다. 왕실은 개혁교회였고 다수의 국민들은 루터교회였다. 그리고 1822년에는 공동예배서를 발간해서 모두 다 이 예배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 Schleiermacher는 이전에는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다가 막상 왕이 주장하니 까 반대하였다. 그에게 교회는 불가시적인데 왕이 제도적인 것에 의한 통합을 시도하니까 반대하였다.) 여기

에 대해서 루터파 목사들이 반대하여 구 루터파가 생겼다. 반대한 목사들은 투 옥당하거나 성직을 박탈당하였다. 그 다음 왕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 때에 와서는 루터파의 자유를 인정하였고 프로이센 복음루터교회가 되었다.

2) 내지 선교

Wichern은 경건주의 출신이다. 1848년 불란서 2월 혁명, 1848년 공산당 선언을 보면서 교회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1849년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였다. 그는 다양한 단체들을 조직해서 선교활동했다. 자매단, 형제단, 선원, 실업가, 죄수들의 집단을 형성해서 자기들의 동료들 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주일학교, 기독교 문서선교운동 등을 하였다. 그 다음 에는 이러한 단체들의 전국적 조직체 결성하였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날(Kirchentag) 행사를 독일의 큰 도시를 다니면서 주최하였다.

나. 덴마크

1) Mynster

그는 대학 다닐 때에는 합리주의자, 범신론자였다. 그러나 Kant를 공부하면서 합리주의를 버리고 이성만능의 사고 방식을 버렸다. 낭만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30세가 되었을 때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적 평안을 체험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

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설교하고 경건 서적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2) Grundtvig(1783-1872년)

뮌스터의 영향을 받았다. 덴마크가 낳은 가장 훌륭한 목회자였다. (☞ 덴마크는 그가 살았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평가된다.) 그는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통해서 Mynster를 알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 참된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다. 나아 가서 국가생활이 기독교의 신앙의 행동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한다. 그는 노래하는 교회 (singing church, 1300 여 개의 찬송가를 지었다), 기뻐하는 신앙(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총 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농민학교를 만들었다. 민주 주의 국가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였다. 성인교육을 장려하였다. 농업협동조합 운동을 하였다. 그는 신앙운동을 하면서 세례와 성찬을 강조했다.(☞ 高교회적이다) 그는 만년에 세계사를 쓰는데 세계사의 초점은 그리스도라고 보았다. 이 시대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3) Kierkegaard(1814-1855)

일생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 죄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Hegel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Hegel은 위대한 철학자의 정신 안에서 절대정신과 화해가 이루

어지고 일치된다고 하였다.) 본질의 세계에서는 화해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실존의 세계에서는 화해가 불가능하다. 그는 19세기 사상사에서 예외적인 인물이다. (☞ 19세기 사상사는 대체로 인간 안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반해서 신과 인간의 격리성, 신의 타자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 생활을 3단계로 묘사하였다. 첫째는 미적 단계이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쾌락을 추구한다. 의무감이 결여되고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 두번째는 윤리적 단계이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사회에 참여하고 의무감, 책임의식을 가진다. 마지막 세번째 단계는 종교적 단계로 무한한 것에 관심을 둔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종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크라테스의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교이다. 소크라테스의 종교는 진리가 인간 안에 내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깨워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해서 그리스도의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성을 강조한다. 인간은 자기 밖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비약해야 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신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 노르웨이

(1) Hauge

노르웨이는 1,500마일 해안지대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평신도 순화전도자들이

활동하였다. 평신도 운동을 일으켰다. 그는 국교회의 냉랭함을 비판하고 회심, 거룩한 삶을 강조하였다.

(2) Johnson

Hauge의 운동을 발전시킨 사람은 Johnson이다. 그는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Neander의 영향을 받았다. 내지 선교회를 조직해서 노르웨이에서 선교하였다. 그는 신앙의인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였다. Hauge와 비슷하게 책자운동을 벌였다.

라. 스웨덴

두 개의 대학교가 중심이 되었다. 읍살라 대학교이고 다른 하나는 룬트 대학이다. 읍살라대학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고 교회나 성례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룬트 대학교는 교회와 성례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 나중에 룬트 대학교는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Aulen, Nigren등의 룬트학파가 형성되었다.)

마. 스위스

(1) Vinet

그는 처음에는 지나친 복음주의운동을 비판하였으나 나중에 온건한 복음주의 운동을 받아들였다. 스위스에서 복음주의적인 각성 운동을 벌였다.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였다. 마침내 그는 자유교회를 형성하였다. 스웨스에서 Vinet의 각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앙리 뒤낭이다. 그는 부유한 가문출신 각성운동의 영향을 받아 들어서 1863년 국제 적십자사를 조직하였다.

3. 20세기 개신교 선교발전

가. 20세기 개신교의 선교발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기독교 선교사업에 있어서 세가지의 중요한 역활의 운동이 발전하였는데, 신앙선교운동, 상서학원운동, 학생지원자운동이 그것이다. 신앙선교운동은 모든 필요한 것의 공급을 주님께만 기대하는 선교형태로써, 신앙선교는 꾸준히 질을 높여왔고, 계속적으로 동적인 성장을 하고, 선교 방법에 대한 창조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성서학원운동은 1880년대에 시작하였는데, 전도와 성경교육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외선교지에 보낼 선교사들을 꾸준히 양성하여 배출하고 있다. 학생지원자운동은 “우리세대에서 세계복음화를”(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이라는 슬로건으로 50년 동안 20,500명에 달하는 선교사를 배출하였다. 이 운동이 사라진 후 현재에는 I.V.F.로 계속되고 있다.

이 세기에는 식민지 붕괴로 인하여 기독교 선교에도 그 원인과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었

고, 자국민 교회의 지위가 상승하였고, 선교사의 역할이 변화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공산주의의 발흥과 민족주의 태동으로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들은 퇴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속출하였지만, 현재 선교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단기 해외 선교와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하계선교계획, 국경을 초월한 방송선교와 성경통신과정이 그것이다. 선교는 이제 서구 선교사들에 의존하는 형태의 것이 아니다. 제 3세계의 등장으로 한국, 필리핀 등의 아시아국가들이 주축이 된 선교사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나. 이슬람세계 선교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슬람교는 동부와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크게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슬람교도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믿음을 갖게 하기에 가장 어려운 종교이다. 왜 그런가? 이슬람교에는 기독교와 같은점이 너무도 많이 있다. 즉, 예수의 복음서와 모세율법, 다윗의 시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죽음과 부활을 부인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배교하는 자는 죽게하라고 코란에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종교는 철저하게 정치와 연결되어 있고, 대중적으로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종교이기도 하다. 십자군에 의한 아픔의 기억을 아직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전도하기가 무척이나 힘든 실정이지만 오늘날에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선언에 모든 아랍국가가 서명하였으며, 많은 이슬람 청년들이 서구문명을 접하고 있다. 정치적 분위기도 바뀌어가고 있고, 기독교 방송이 많이 침투하였으며, 성경통신 강좌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많은 결신자들이

생겨났다.

다. 아시아 선교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대륙이다. 이 지역에는 힌두교와 불교의 탄생지이고, 사도 도마가 순교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270년의 개신교 역사속에서 3%내외의 신자들만이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아시아의 문명은 5천년 이상되는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지극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와 힌두교등의 종교와의 갈등은 물론, 인도의 계급제도와 같은 사회의 관습과 종교적 관습에 의한 충돌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나라가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로서 지배국가에 대한 원한이 남아 있고, 당연히 서양의 기독교는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일본 등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선교활동인것이 사실이다.

라.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의 기독교 성장은 1900년부터 시작되어 50년동안 60배로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에 대한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아프리카 지역이고, 가장 낮은 곳은 서부 아프리카이다. 사실 아프리카 교회는 아시아보다 그 성장속도가 빠르다. 검은 아프리카의 인구는 3억 5천만명이지만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의 인구는 1억 7천만명이다. 모슬렘은 1억 정도이며, 나머지는 토속종교인들이다. 이렇듯 아프리카 교회가 성장하게 된 요인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선교사들의 노력에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식민주의가 심각한 장애요인이

었으나 아프리카에서는 달라서 식민통치자들이 선교사업에 여러모로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부족형태는 선교에 대단히 유익이 되어 족장이 개종을 하면 부족민들은 당연히 해야 했다. 또한 많은 재정을 교육사업에 투자하였고, 토착종교의 우호적인 면, 아프리카인들의 깊은 종교성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성으로 연결되었다. 기독교는 아프리카에 근대화의 기초를 닦아 놓았으며, 교육을 통한 토착문화에 대한 유해방지,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적인 제반문제에 기독교의 원리를 적용하는 노력등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마. 남미의 선교

남미는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유일한 대륙이다. 식민 통치 기간중의 교회와 국가는 하나였다. 개신교의 선교사가 처음 이곳에 발을 디을때는 인구의 90% 이상이 교인화한 상황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다. 개신교와 카톨릭은 언제나 경쟁 상대였고, 격렬한 상황에 까지 가는 수도 있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명목상의 카톨릭인들을 찾아 선교하기 시작했다. 남미의 개신교도들은 유럽 이민에 의해 생성된 루터교와 월도파 교회, 과거에 개신교 선교사들의 수고로 인해 결실된 복음주의적 교회, 자생적으로 생겨난 오순절 교회등의 세부류가 있다. 현재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급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외의 지역에서는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는 자유주의신학의 경향을 따르는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에 비해 9대 1로 압도적이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간격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지만, 모두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색하고 있다.

바. 유럽선교

현재 유럽에는 급속하게 비기독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독일의 합리주의와 고등비평사상으로 성경의 정확성과 권위가 손상되었고, 유럽의 공산당 정부 출현, 동양에서 발생한 신비주의와 불교나 힌두교에 대한 비상한 관심, 이슬람 인구의유럽이동으로 인한 이슬람 사원의 건축 현상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인구 가운데 1억 6천만명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전 인구의 60%가 세례를 받았으나 3%만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있고, 그 밖의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유럽 교회 지도자들은 개인의 회심보다는 종교교육에 더 관심이 크다는 사실이다. 개신교교회의 다수가 국교회로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체제하에서는 모두가 교회를 지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부 유럽권의 경우 기독교회는 가장 생동감이 넘친 곳이다. 동부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들이 만원을 이루고 있고, 목회자들은 그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 선교의 회고

선교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선교사역의 과오를 뒤돌아 평한다면, 선교사들은 저소득층에 대하는데 있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선교지의 토착종교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단이라는 설교를 함으로써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기독교가 백인종교라는 낙인을 얻도록 문화적 차이를 구분치 않았고, 선교지에서도 교파를 강조하고, 토착종교로

뿌리 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재정을 사용함에 현명치 못해 파송지의 비난을 받았고, 식민체제에 그동안 너무 밀접하여 선교지의 사람들과 다른 환경에 놓였다는 이질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토착문화에 대한 진정한 애착심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현지인들을 대하기에 앞서 토착 언어를 배웠다. 이를 통해 성경을 번역해 주고, 자국민의 잠재력을 누구보다도 먼저 일개워 준 사람이었고, 의과대학은 물론, 병원을 개설하여 각종 이질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사회적, 정치적 개혁을 도입하여 사회적인 악습을 철폐시켜 나갔고, 동서양의 교량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쌍방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인도하였고, 거의 세계의 모든 나라에 교회를 세워 그 어디서든지 주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게 그 터전을 만들어 주었다.

아. 세계선교의 전망

세계 뿐 아니라 교회와 선교도 변화하고 있다. 현재에는 단기 해외 선교계획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 예비 선교사들은 선교사의 목표와 목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뿐 아니라 상이한 문화에 대한 적응력, 기독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인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비전문적인 선교사(Tent-makers)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사회의 협조로 나가서 상업을 하거나 자신들의 전문직을 통해 생활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선교명령으로서 사회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자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이면서 동시에 토착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하는 딜

레마에 빠져 있는데, 피선교지의 자국민 교회들의 자치권이 인정되고 선교사들이 교회지도자와 더불어 그들의 지도하에서 봉사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조만간에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 배척을 요구하게 될런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은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이다. 전에는 비기독교인들이라든지 혹은 타종교와의 대화를 기피해 온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대화를 통하여 바울이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것 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안에 하나님과 인간과 죄 및 구원에 관한 유일한 진리가 있음을 믿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선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난제들이 널려 있다. 전보다 선교사 지원에 대한 재정이 삭감되는 실정에다 민족주의의 고조와 확대, 정치적 불안 및 민주주의의 붕괴, 비기독교 종교의 위협, 아랍제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인 충격, 공산주의의 호소력과 위협 등은 끊임없이 선교사역에 장애 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고무적인 현상들 즉, 국내교회의 영적 부흥,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의식의 증가, 전도와 교회성장에 대한 관심의 고조, 선교지의 현장 방문의 증가, 선교학의 등장 등으로 우리들에게는 전례없는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다. 공산주의가 붕괴된 시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열려져 있고, 공립학교에서는 종교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을 위한 선교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성경의 번역과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라디오 방송망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문맹자들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국제 복음주의 학생연맹 같은 단체를 통하여 유럽의 많은 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다.





5 장

/

우리나라 교회사

제5장 우리나라 교회사

훈련 목적

- *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 역사를 이해한다.
- * 시대별 교회 역사를 이해한다.
- * 올바른 선교관을 이해한다.
- *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이해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경을 읽는다.
- * 교회 역사에 관한 도서를 읽는다.
- * 교회 역사에 관한 영상물을 시청한다.
- *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 * 교회가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운 것임을 인식한다.

1. 한국교회와 교회전통

가. 한국교회와 교회의 전통

‘기독교사’는 기독교를 일반 종교의 하나로 보고 종교사나 문화사적인 관심에서 기독교의 전래와 성장을 역사적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교회사’는 교회에 더 역점을 두며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교회사’ 이해는 교회관을 전제로 한다.

한국 개신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성결교회를 비롯한 한국의 중요한 교파 교회들이 대부분 넓은 의미에서 개혁주의 전통에 속한다. 또한 초에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 운동을 경험하

고 경건주의적 신앙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의 유산을 가졌다. 한국에 온 첫 선교사들은 청교도적 경건주의 신앙을 전수하여 한국 교회 형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들은 칼빈주의 교회의 한 특정한 교파를 대표하는 선교사였다. 그러므로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은 초대 선교사의 신앙뿐만 아니라 더 소급하여 칼빈주의, 즉 개혁주의의 역사적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 칼빈주의가 서양의 각 나라에서,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발전한 것과 같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한 한국 교회의 독자성을 의식하는 가운데 개혁주의를 서양 세계의 경계를 넘어 발전하는 개혁주의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한국교회사의 과제

일단 칼빈주의 신학적인 견해를 통해 조명해 보고, 교회사적인 사건이나 교회의 양상을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복음을 전수한 서양 교회에서 또는 한국 교회와 비슷하거나 서로 다른 입지에 있는 선교 교회에서 그 유사성이나 상이성을 발견하고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교회의 역사와 양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1906-7년의 부흥 운동도 한국인의 대단한 종교심의 열매 혹은 사회·정치적인 여건에서 나온 산물, 혹은 비민족화 운동이라는 편협한 일방적인 이해가 아닌, 17세기 말부터 서양 교회와 세계의 여러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더 타당성 있게 고찰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신학 사상은 그 사상을 배태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한국의 개신교를 교회의 전통에 비추어 고찰하는 역사적 연구는 아주

시급한 과제다.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와 한국의 신학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 신학’은 ‘한국적임을 앞세우는 신학’이 아니라 ‘한국인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고 높이며 고백하는 신학’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한국 기독교사와 경교

실크 로드는 한 대 이후 동서 문화 교류의 유일한 통로였다. 중앙아시아와 서양의 종교들이 이 길을 따라 중국에 전래되었다. 네스토리우스의 추종자들의 교인 경교도 당조 시대인 635년에 알로벤(Alopen)을 단장으로 하는 페르시아의 사절단에 의해서 중국에 전래되었다. 638년 7월에 경교는 태종의 칙령에 따라 당의 조정이 공인하는 종교가 되었다.

많은 한국의 기독교사가들은 한반도에도 경교가 전래되었음을 긍정한다. 오윤태는 경교가 한국에 전래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증거를 제시한다. 원래 개인의 구원과 해탈에 관심을 갖는 소승불교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었는데, 도마의 인도 선교의 영향에 의해 중생의 구원을 가르치는 대승불교가 생겼으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정토교인데 이것이 경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선도의 정토 교리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원효(617-686)가 당의 선도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상호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 오윤태의 연구는 한국 불교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불교의 교리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요소들은 이미 불교화된 것이므로 한국 불교가 기독교적이라 말할 수는 없다. 또한 불교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

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심성을 가졌다는 생각도 타당성이 없다. 만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경교의 색채를 더 잘 보존하고 있다는 일본은 기독교를 더 잘 받아들였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 로마 가톨릭교의 선교와 한국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한반도 전래는 선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양의 문물과 함께 들어온 천주교 서적을 통해서였다. 천주교 서적은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길 때 조선에서 보낸 사절단을 통해 유입되었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그와 동시대 사람인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1603)를 알고 있는 것으로 말하며, 동시대에 살았던 유몽인도 '어우야담'에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와 천주교의 교리를 소개하고, 허균이 천주교를 믿고 있음을 시사한다.

1777년 정조 원년에 이벽, 권일신, 권철신, 정약전, 정약용 등 남인의 시파 유학자들이 서학에 관심을 가지고 한강변의 주어사(走魚寺)에 모여 토론했다. 이벽은 서학에서 신앙을 얻고 다른 이들에게 천주교 신앙을 가르쳤다. 이승훈은 1784년 음력 정월 그믐께 북경에서 예수회 신부 그라몽(Louis de Grammont)에게 세례를 받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이벽은 이승훈을 통해 얻은 기독교 서적을 통하여 신앙에 더욱 확신을 얻고 전도했으며, 상당수의 동지들이 생기자 김범우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를 받은 조정의 박해로 중인인 김범우는 매를 맞고 순교했으며, 이벽과 이승훈은 배교했다. 이벽은 양심의 가책으로 변민하다가 1786년 열병에 걸려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펄박 후 이승훈과 교회를 떠났던 사

람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핍박 후 성직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권일신을 주교로, 이승훈, 이단원, 유항검, 최창현 등을 신부로 선정했다. 그러나 북경에 주재하는 주교 구아베(Gouvea)는 평신도가 행할 수 있는 세례성사만 인정할 뿐 성직 제도는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인 주문모를 신부로 선정해서 1794년 12월에 몰래 조선에 파견했다. 주문모는 6년 동안 숨어 다니며 전도 활동을 했는데, 입국할 때 4천 명이던 교인은 5년 후에 만 명이 되었다. 주문모는 1801년 음력 4월 19일에 참수형을 당했다. 교황 그레고리 16세는 1831년 9월 9일부로 북경 주교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대리감목을 조선에 두어 독립된 교구로 승인한다는 교서를 내렸다.

한국의 천주교 “선교사(宣敎史)는 순교사(巡敎史)”였다. 1791년 신해박해,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 외에도 많은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1863년에 천주교 신자는 19,748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박해는 로마 가톨릭 교리는 유교에 기초한 기존의 사회 질서와 윤리적 가치관을 위협하는 운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인데, 가장 구체적인 사건은 천주교 신자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하는 일이었다. 또한 한국의 천주교는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조의 봉당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더 큰 희생을 치렀다.

2. 개신교의 한반도 선교시작

가. 최초의 선교 시도

최초로 한반도에 온 개신교 선교사는 귀츨라프(Karl A. F. Gützlaff, 1803-51)였다. 로테르담에서 공부하고 루터교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처음에 동인도회사의 통역으로 영국 상선 ‘로드 앰허스트’(Lord Amherst)호를 타고 1832년 7월에 한반도를 방문했다. 약 한 달간 충청도 서해안에 있는 고대도에 머물면서 쪽 복음 서책과 전도지를 나누어주었다.

다음으로 찾아온 선교사는 토마스 목사(Robert Jermain Thomas, 1840-66)였다. 원래 중국 상해 선교사였던 그는 부인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던 중에, 한국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핍박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관심을 가졌다. 1865년 9월에 토마스는 황해도 소래 근처에 와서 2개월 반 동안 머물면서 한문으로 쓰인 쪽복음 서책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866년 8월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를 타고 다시 왔다가 평양성 수비대와와의 전투가 벌어져 죽었다. 토마스가 죽기 전에 건네주었던 성경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벽지로 사용했는데, 벽에 보이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의 조카 이태는 신자가 되었다. 토마스의 죽음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과 선교회들은 한국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나. 선교 이전의 성경 번역

1874년 로스(John Ross, 1842-1915)와 맥킨타이어(John McIntyre)는 이응찬과 김진기의 도움을 받아 성경 번역에 착수했다. 그 후 이성하, 백홍준, 서상륜 등이 번역 사업에 합세했고, 1882년에

는 누가복음을, 1883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인쇄했고, 1887년에는 신약 전체를 번역하여 '예수성교전서'라는 이름으로 3,000부를 출판했다. 성경 번역에 참여한 서상륜을 비롯하여 이성하, 백홍준 등이 성경을 파는 매서인이요 전도인으로 활동했다. 1883년 서상륜은 새로 번역된 복음서를 비밀리에 한국으로 가져왔다. 1884년에는 인천에 배편으로 보내온 6,000부의 복음서를 인수하여 여러 지방으로 다니면서 배포했다.

이수정은 1882년 고종의 수신사 박영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기독교인 농학자 쓰다센에게 기독교적인 감화를 받았고, 1883년 4월에 일본인 목사 야스가와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 후 일본 주재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Henry Loomis)의 간청으로 루미스의 도움을 받아 누가복음을 번역했다. 1885년 미국 성서공회는 이것을 1000부 인쇄했다. 이수정은 1896년 4월 귀국했다가 체포되어 비밀리에 처형되었다.

다. 열강의 식민지 확장과 세계 선교

식민지화 정책은 현지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식민주의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그 울타리 안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자로서뿐만 아니라 문화 전수자의 역할을 했다. 의사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워 의료 활동을 펴고 새로운 교육을 실시했다. 의사 소통을 위해 선교지의 문화와 관습을 연구하는 일은 선교사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준비 자세였으며, 성경 번역은 선교 사업의 초석을 놓는 것이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 역시 이러한 직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라. 선교사들의 입국

한국에 제일 먼저 입국하여 거주 허락을 받은 선교사는 알렌(Dr. Horace N. Allen)이었다. 그는 미국 영사관의 공의 신분으로 입국했다.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 아침에 북장로교의 언더우드(underwood)와 감리교의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 부처가 제물포에 도착했다. 그 뒤로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톤(Dr. W. B. Scranton) 부처와 스크랜톤의 모친 매리 스크랜톤이 왔고, 1885년 6월에는 헤론(Dr. John H. Heron)이 입국했다. 그 후 호주 장로교회(1889), 영국 성공회(1890), 미국 남장로교회(1892), 미국 남감리교회(1896), 침례교(1889), 제칠일안식교(1904), 성결교(1907), 구세군(1908), 플리머스 형제단(1896) 선교가 시작되었다.

마. 한국에서의 기독교 선교와 수용

선교사들은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다는 정부의 공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선교 활동을 추진해야만 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강조한 것도 정부를 안심시키려고 내세운 구호요 선교정책이었다. 초기에 선교사들은 직접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학교와 의료 사업부터 시작했다. 그러므로 개신교 선교사들은 가톨릭 선교사들이 당했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

바. 선교사들의 문화 사업

알렌은 1885년 정부의 허락을 받아 광혜원을 세웠고, 스크랜톤은 1886

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 시병원을 개원했다. 1887년에는 미스 하워드(Dr. Meta Howard)가 한국 최초의 부인전용병원을 시작했다. 감리교의 아펜젤러는 1886년에 2명의 학생을 받아 배재학당을 시작했다. 스크랜튼 부인은 1886년에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설립했다. 경신학교는 1886년 초 언더우드와 고아들을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고 교육한데서 시작되었다. 1909년에는 전국에 950개의 기독교 학교가 있었고, 1910년에는 3,000개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근대식 고등교육의 효시는 1886년 병원 의학부로 개설했던 세브란스의 학교다.

선교사들은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 외에도 문서 운동과 한글 보급에 힘썼고 청년 운동을 통해 종교 사업이나 교육 사업,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했다. 문서 운동은 복음 전도와 한국의 근대 문화 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 1889년에 북감리교 선교사 올링어(F. Ohlinger)는 출판사를 설립하고 1891년부터 출판 사업을 시작했다. 1887년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중심으로 성서위원회가 조직되고, 그 아래 성서번역위원회를 두어 한국어 성서의 번역, 개정, 출판, 반포의 일을 했다. 청년 운동 조직으로는 장로교에 청년면려회, 감리교에 엠펜스청년회가 있었고, 연합 청년 운동으로는 기독교청년회(YMCA)와 여자기독교청년회(YWCA)가 있었다.

1893년 장로교 선교사들은 공의회를 조직하고,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근거한 선교 정책을 채택했는데, 그 중에는 2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녀자들에게 전도하고 소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신분 평등화 운동에도 기여했다. 1894년 갑오개혁이 있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사회 제도 개혁이었다. 양반

과 평민의 신분을 타파하고, 백정과 광대 등 천민신분을 폐지하고, 공사노비 제도를 없애며,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정부가 이런 법령을 공포하는 데는 선교사 무어(Moore)와 백정출신으로 공당골 교회의 교인인 박성춘의 끈질긴 호소가 작용했다. 일부 양반 출신 기독교인들이 백정들과 어울려 교회생활을 한 것 자체가 사회 계급 타파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

사. 초대 선교사들의 전도 활동과 교회 설립

정부가 기독교의 포교를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외세가 종교를 미끼로 정치적인 간섭을 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과 새로운 종교의 신봉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에서였다. 그 속에서 선교사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한국인들을 은밀히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힘썼다. 우선 그들의 주변에 있는 학생과 선생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환자들을 상대로 전도했다. 1887년 아펜젤러의 집에서 시작한 성경공부는 인원이 많아지자 초가집을 사서 ‘베델 기도소’라고 했는데, 그것이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교회의 시작이었다. 1887년 9월 27일에는 14명의 한국인 신자와 함께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교회가 설립되고 서상륜과 백홍준이 장로로 장립했다. 황해도 소래에서는 1886/7년에 서상륜의 동생 서경조를 통해 최초의 한국 개신교 교회가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은 먼저 선교 본거지를 단단히 굳혔고, 그것을 기점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다. 선교사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호기심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기독교 서적과 약을 팔았다. 물론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곧장 교회로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성례를 베풀었다.

아. 선교 정책

선교의 진행과 함께 불필요한 경쟁과 수고를 피하기 위해 선교 지역을 나누어 관할할 필요성을 대두되었다.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기로 한 장로회 선교회끼리도 선교 지역을 나누어 선교지 분담협정을 지켰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는 전라도와 충청도, 호주 장로교회 선교회는 낙동강 이동의 경상도 지역, 캐나다 선교회에서는 원산과 동해안 지방,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는 서울에서와 평양과 의주를 중심으로 한 서북 지방에서 선교를 하도록 했다.

1890년 선교사들은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선교하던 네비우스(John Nevius)를 수양회 강사로 초청했다. 그 후 ‘네비우스 방법’을 선교 정책의 원칙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립 전도, 자립 정치, 자립 경영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네비우스 방법은 중국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나 한국에서는 교회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교사들은 목회자 양성 문제에 대해서도 네비우스의 생각을 따랐다. 선교사들이 한국의 일반적 교육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데 비하면 목사 교육의 학적인 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인상을 씻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목사후보생들의 자질 등 현실적인 문제에도 기인한 것이었다.

3. 한국 개신교 교회설립

가. 정치적 환경과 개신교

1895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에 한국 역사상 가장 파란 많은 위기의 시기였다. 1894년에 호남에서 동학당의 새로운 봉기가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기 위한 원병으로 들어왔던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청일전쟁(1894-1895)이 터졌다.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친일 내각을 중심으로 급진적인 개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민비의 후원을 받는 친로파가 정권을 장악했다. 이에 못마땅했던 일본은 자객들을 궁으로 보내 왕후를 시해했다. 그 후 1897년 고종은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왕을 황제로 칭했다.

고종의 신임을 받던 개신교 선교사들은 위기에 처한 왕을 위하여 열성과 용기를 다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막으려고 일본을 후원했으며, 마침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묵인하는 비밀 조약인 태프트-가쓰라 조약을 맺었다. 1905년에 발생한 러일 전쟁은 일본이 승리했고, 11월에 일본은 이등 박문을 특사로 보내어 고종에게 보호조약에 조인하도록 강요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사실상 독립을 상실했다. 한국은 수교권을 빼앗겨 일본을 통해서만 외국과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외세를 등에 업은 당파 싸움과 관리들의 부패 속에서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봉기했다. 백성은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불안할 뿐이었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한 사회 상황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처와 도움을 찾아 방황했다. 의지할 데 없는 많은 백성이 힘 있는 서양의 종교이며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에 관심을 돌렸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에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나. 초기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

일반적으로 부흥 운동의 연원은 1903년 원산에서 열린 산 집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말한다. 2,3명의 감리교 선교사들은 한 주간 성경 공부하며 기도회를 했고, 그 후 장로교와 침례교 선교사들과 함께 한 주간 집회를 가졌다. 그때 의료 선교사 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 1904년 봄에 원산에서 다시 초교파적인 사경회가 열렸고, 1906년에는 평양에 있던 선교사들은 하디를 사경회 강사로 초청하여 인도와 웨일스에 일어난 부흥 운동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교인들은 자기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 성도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을 파송한 본국 교회들도 기도했다.

1907년 1월 6일부터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는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사경회가 열렸다. 사경회가 열리기까지 길선주 목사의 인도로 장대현 교회의 교인들이 새벽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새벽기도회를 드렸다. 첫날 저녁부터 남자만도 1,5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나흘째 되던 날, 기도 중에 갑자기 온 회중이 자신들이 무관심하고 냉랭하며 봉사할 마음이 적고 열심히 부족한 것을 깨닫고 통회하기 시작했다. 그 후 그들은 죄를 사함 받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갖게 되었다. 1월 14일 방위량 선교사의 설교를 들은 온 교인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죄를 회개했다. 이튿날은 온 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새벽 2시까지 계속했다. 회개 운동은 학교에도 번졌다. 평양의 승덕 학교에서는 김찬성 교사가 인도하는 기도회에서 300명의 학생이 죄를 깨닫고 통회했다. 숭실전문학교 학생들도 1907년 2월에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에 와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 학생들은 새로

거듭남을 체험했다. 그들은 평양과 그 주변 시골과, 경기도와 충청도 까지 가서 부흥의 불길을 전했다. 5월에 장로교 신학생들을 위한 특별 집회가 열렸고, 성령의 불길에 그들의 죄를 태우는 통회를 경험했다. 초기 한국의 부흥 운동은 순수한 회개 운동이었다. 미리 충분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광신적인 요소는 없었다.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도덕적, 영적 생활의 수준은 더 높아졌다. 이러한 부흥 운동은 성령께서 주권으로 일하시는 불가항력의 영적 운동이었고, 17세기 말엽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영국 웨슬리의 부흥 운동,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 운동과 2차, 3차에 걸쳐 일어난 부흥 운동과 유럽의 개신교 나라들과 세계의 여러 선교지에서 줄곧 일어났던 부흥 운동의 하나였다. 부흥 운동은 교회 성장에 큰 몫을 담당했다.

다. 초기 한국 개신교의 성장

개신교 선교 첫 10년 동안에는 신자의 증가율이 극히 미미했다. 1890년에 세례 교인 수는 장로교, 119명, 감리교 36명 모두 155명이었다. 1895년 평양 선교지부의 보고에 의하면 개신교 세례 교인은 582명이었다. 그러나 독노회가 조직된 1907년 9월에는 989개 처의 교회와 1만 9천명의 세례 교인을 포함하여 교인은 7만 명, 장로가 53명이었다. 1910년에는 교인이 16만 7천명에 달했다. 한국 교회 성장을 신속하게 해 준 간접적인 요인은 정치적인 불만, 애국심과 독립 정신, 여러 가지 종교적·영적 운동을 낳게 된 사회적 상황 등이다.

한국 개신교는 급히 성장했는데도 비교적 착실하게 발전했다. 전체 교인에 대한 세례 교인의 비중은 높은 편이어서 1898년에 3.6:1이었고,

1907-42년은 2.6:1이었다. 38%에 해당하는 많은 예배 참석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아 세례를 받고 교회의 건실한 지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세례 교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성경 공부 덕택이었다.

1890년 언더우드는 네비우스 방법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성경 공부 제도’를 운영했다. 1904년의 보고에 의하면, 60% 이상의 학습 교인을 포함한 교인들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성경 공부반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았다. 1909년에는 북장로교회의 선교 구역에만 해도 약 800개의 성경 공부반이 있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세례 교인의 두 배가 되는 5만 명이었다.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이 평신도 운동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온 교인이 성경 공부와 경건생활에 힘쓰며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통하여 급속히 성장했다.

라. 자립하는 한국 교회

‘네비우스 방법’을 실천한 장로교회는 감리교회에 비해 훨씬 더 일찍 자립하여 자치하는 교회가 되었다. 1901년에 장로교 공의회는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의했었는데, 1905년에 이를 인준하고 평양신학교를 세웠다. 학생 수는 1906년에 50명이었고, 1907년에는 75명에 달했다.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한국 장로교회의 첫 노회인 독노회가 열렸다. 33명의 선교사와 36명의 한국인 장로들이 노회원으로 참석했고,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일곱 사람이 목사 장립을 받았다. 노회는 12조항을 받아들였다. 1912년 9월에는 제1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52명의 한국인 목사와 125명의 장로, 44명의 선교사가 총대로 참석했

다. 선교사 언더우드가 총회장으로, 방위량이 회계로 선출되었고, 나머지 임원직은 한국인이 맡았다. 한국 장로교는 1907년부터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으므로 선교사들은 다만 손님이요 협조자 역할을 했다. 독노회가 조직되었을 때, ‘장로교 공의회’는 “선교사들로 구성된 장로교 공의회의 교권은 한국 장로교회가 조직될 때까지 행사하기로 하되, 한국 장로교회가 조직되면 거기에 이양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확인했다. 1915년 이후에는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늘 한국인이 총회장이 되었다.

한국의 남북 감리회는 1930년 12월 2일부터 11일 동안 협성신학교 강당에서 기독교조선감리회라는 이름으로 제1회 총회를 개최했다. 성결교는 1933년에 총회가 조직되었고, 1940년 11월에 선교사들이 출국한 이후에는 한국인들이 교회의 치리권을 넘겨받게 되었다. 침례교는 1940년에 국내 약 100개의 교회를 설립했다.

마. 초기 한국 교회의 선교

장로교회는 독노회가 조직되기 이전, 북부 지방의 교회들과 대리회는 간도와 연해주에 사는 교포들을 위해 전도인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돌보도록 하고, 이주한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파송을 요청했다. 1909년의 독노회는 한석진 목사를 일본 동경에 파송하여 한국 유학생들에게 3개월 동안 전도하게 했다. 또 같은 해에 최관홀 목사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파송하여 ‘유리동포’에게 전도하고 돌보도록 했다. 1910년에는 김영제 목사를 북간도에 전도 목사로 파송했다. 평북의 각 교회는 압록강 건너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위하여 매서인이나 전도인을 파견하여 전도에

힘썼다. 평안북도와 함경도의 교회들은 간도를 같은 교구로 생각할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주하여 개인 자격으로 전도하며 교회를 설립한 사례들이 많다. 함북 대리회는 캐나다 선교회와 협력하여 함북 지방과 중국 동만주와 블라디보스톡에 전도인을 파송하거나 순방하여 교포교회를 세우고 돌보았다. 또한 총회는 1918년에 블라디보스톡에는 김현찬을 전도 목사로 파송하고, 상해에는 5개월 후에 선교비가 마련되는 대로 전도 목사를 파송하도록 했다.

바. 초기 한국 교회의 신학

한국 개신교는 각기 교파를 따라 선교국 교회의 외적인 형태를 본 났고, 그 교회의 법과 신앙고백까지 넘겨받았다. 1922년에 새로 통과한 장로교회 헌법에는 1907년의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미국 장로교회를 모방한 교회 행정, 북장로교회의 것을 약간 수정한 권징조례, 그리고 남장로교의 것을 약간 수정한 예배 모범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교가 시작되던 해로부터 1920년대 중엽까지는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신학이 한국 장로교회에서 지배적인 신학으로 통했다. 초대 선교사들은 옛날 스코틀랜드 계약 신앙을 지닌 이들의 후손이어서 보수적이며 근본주의적 성경관을 지녔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경 중심의 선교를 추진했다. 초대 선교사들 가운데 뉴잉글랜드에서 온 몇몇 감리교 선교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미국 장로교의 구학파(the Old-School) 사상이 지배하던 지방에서 왔다. 1893년에서 1901년까지 한국에서 40명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일했는데, 그 가운데 16명이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이고, 11명이 맥코믹 신학교 출신이었다. 그들이 프린

스톤 재학 당시의 교수는 미국 장로교 신학에 크게 영향을 A. A. 핫지(Hodge, 1823-86)와 ‘타협을 모르는 칼빈주의자’ 워필드(Benjamin B. Warfield, 1851-1921)가 있었다.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은 또한 학생 시절에 직접, 간접으로 무디(Dwight L. Moody, 1837-99)의 부흥 설교를 통해 감화를 받았으며, 부흥의 영향을 입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타 교파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나 신학적 자유주의나 성경 비판은 단호히 배격했다.

보수적인 성경관은 한국 개신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보수적인 신학은 한국 목사들을 통하여 좀 더 극단적인 근본주의적 신앙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데서 오는 율법주의와 독선적인 분리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해석하는 경향 때문에 세대주의를 거부하지 않고 친근하게 영입했다.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이단적인 운동도 위험한 고질병으로 등장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며 부흥 운동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선교사들에게 배운 한국 교인들은 불운한 정치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강한 종말론적 기대를 가졌고 전천년설을 성경적이라 믿었다.

4. 한국 개신교의 성장

가. 일본 식민 정부 치하의 한국 교회

일본은 한국에서 처음부터 기독교를 적대했다. 1907년에는 교회가 반

일 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면서부터 군대가 해산되고 경찰권과 사법권을 빼앗기는 등 조선의 국가 기관은 와해되어갔다. 그러나 기독교는 점점 더 조직화되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었으므로, 일제 정부는 교회를 요시찰 기관으로 지목했다.

1910년 이등박문이 암살된 후에, 총독부는 ‘신민회’를 타도를 목적으로 소위 105인 사건을 날조하여 교회를 탄압하고 애국인사들을 제거했다. 600명이 체포되고, 그 중에 123명이 암살 음모를 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되었다. 모든 음모는 날조된 것이었으나 105인은 5년 내지 10년의 징역을 언도받았다. 그 중 99명은 3년이 지난 1913년 3월에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은 1915년 2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05인 사건으로 인해 교회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장로교의 경우 교인총수가 1911년의 144,251명에서 1912년에는 127,228명으로 줄었고, 학습교인의 경우에는 만 명이나 줄었다.

선교사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로 하고, 교인들에게도 일본의 권세에 대항하지 말고 자신을 개선하도록 힘쓰도록 권했다. 식민 정부는 한국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일본 천황의 신민임을 깨우치려고 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일본 조합 교회의 이러한 제안과 계획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런 정책에 말려들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일을 적극 반대했다.

식민정부는 1911년 ‘교육 칙령’을 통해 한국의 젊은이들을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교육하려고 했다. 사립학교 억압정책으로 사립 학교들의 수는 현격히 줄었다. 1910년에 746개이던 기독교 학교도 1911년에 473개로 줄었다. 일본은 기독교 학교가 성경 과목과 한국

역사 과목을 교과 과정에서 완전히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장로교 선교회는 1916년에 종교 교육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통고했다. 1919년 독립 만세 운동으로 하세가와 총독이 문책을 받아 일본으로 소환당하고, 사이토가 새 총독으로 부임했다. 총독부는 1920년 3월 선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교육령을 발표했으나, 2년 후에 다시 새로운 교육령을 발표하여 일본말을 일상용어로 선언하는 한편, 한국어 사용을 제한하고 한국 역사 교육을 금했다.

나. 3·1 독립 운동과 한국 교회

3·1 독립 운동을 유발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때문이었다. 이러한 제안을 듣고 1919년 2월 8일 동경에서는 600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기독교 청년(YMCA) 회관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했던 지도적인 인물들은 독립 운동을 위해 서울로 향했다. 독립 운동의 또 하나 중요한 도화선은 고종 황제의 승하였다.

독립을 위한 시위 계획은 개신교 교회의 조직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비밀리에 시달되었다. 일제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이 일을 알지 못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세, 지도자들은 태화관에 모여 총독부 관리들이 참관하도록 하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독립 만세를 불렀다. 파고다 공원에서는 청년들과 일반 시민들이 시위를 시작했다. 두 달에 걸쳐 1,500회 정도 회집했고, 200만이 참가했다. 시위는 극히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기독교인들은 독립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으며, 온 교인이 민족과 함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평화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않았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리에 충실하려고 했다. 희생자는 장로교회가 가장 많았다. 선교사들은 독립 운동의 발생과 상황들, 일본의 무자비한 보복 행위를 본국 선교부에 낱알이 보고했다. 국내의 독립 운동이 한국인이 바라던 대로 국제 사회에 알려진 것은 선교사들의 증언을 통해서였다. 독립 운동을 통하여 한국인들은 민족의 긍지와 민족의식을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한국 교회의 성장(1910-1930)

한국 교회는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는 급성장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성장이 느려졌다. 한일합방으로 인한 낙심과, 일본의 압제 등도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도 개신교 교회는 전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15년 개신교회는 서울에서 대전도집회를 열었고, 교회마다 매년 한 번씩은 부흥사경회를 열었다. 1920년에 전도 운동에 활약한 부흥사는 길선주 목사와 김익두 목사였다. 그해에 장로교회는 5,603명의 새 신자를 얻었다.

3·1 운동 실패 이후 러시아 공산 혁명의 자극을 받아 좌익 세력이 급성장했다.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었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더러는 교회를 떠나 공산당에 가입했다. 이동휘와 여운형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일본의 핍박을 받던 교회는 이제 공산당원들의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공산당원들에게 공공

연히 또는 비밀리에 죽임을 당했다. “한국인 목사와 선교사들 가운데 지식을 잘 갖추어서 젊은이들의 신앙을 이런 반기독교적인 세력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1920년대에 교회는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면서 사회 참여가 교회의 중요한 과업임을 깨닫게 되었다. 장로교 총회는 1930년에 3개년 전도 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첫해에는 성경 공부에 중점을 두고, 둘째 해에는 인쇄된 성경 말씀을 공급하며, 셋째 해에는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개신교 신자는 1930년대부터 다시 불어났다. 1934에는 4,949개 교회에 신자 수가 307,403명에 이르렀다.

1920년대 중엽부터 여러 이단종파가 일어났다. 유명화, 백남주, 이용도, 황국주 등이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자처했고, 황국주는 여자 신도들을 유혹하여 성적 교접을 통해 ‘피가름’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문선명과 박태선가 이런 이단 종파 운동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5. 1930년대 한국교회의 시련

가. 새 신학의 유입

1930년 중엽까지 한국 장로교 안에는 보수적인 신학 사상이 지배적이었으나 감리교는 개방적이었다. 1930년에 남북감리교회가 합동하여 감리교 총회를 결성하고 새 신조를 채택했는데, 그 내용에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부각되어 있다. 감리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라

는 정경옥은 아무 주저 없이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펼 수 있었다. 이무렵 캐나다의 교회와 선교부가 자유주의 또는 진보주의로 기울자 윌리엄 스코트(William Scott)는 한국 캐나다 선교회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한 김관식, 조희염과 함께 1926년의 함경도 교역자 연수회 ‘새로운 신학’을 소개했다. 엄격한 보수적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들과 전도사들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나 몇몇 목사들과 장로들은 새로운 신학적인 견해를 받아들일 용의를 갖게 되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학생들에게 계속 그들의 신학을 가르쳤다. 여하튼 자유주의 신학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공부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확산되었다.

적극 신앙단 운동은 자유주의 신학이 유입되면서 생긴 자유주의 사상운동이었다. 그들은 축자영감설을 믿는 신앙에 반발하여 중부 이남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토착적인 교회의 수립을 표방했다. 적극 신앙단은 서울 시내에 있던 교역자들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놓았다. 자유와 보수신학, 서북계와 비서북계 지역으로 이분화 했으며, 경성노회를 조직하여 총회와 대립했다. 1935년 총회는 적극 신앙단을 장로교회에서 용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그해에 총회는 또한 '아빙돈 단권 성경 주석'의 집필에 참여한 채필근, 한경직, 송찬근, 김재준 등 장로교 목사들이 기관지를 통해 사과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사과를 통해 그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그것은 신학적인 양극화로 가는 예비 논쟁의 종식에 불과했다.

박형룡(1897-1978)은 철저한 보수적 신앙의 소유자인 길선주 목사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받아 보수적인 신앙과 사상의 틀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메이첸(Gresham Matchen)과

찰스 핫지(Charles Hodge)의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1935년에 출판한 '신학 난제 선평'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 즉 술라이어마허, 리츨, 바르트, 브룬너, 티리히 등을 비판했다. 박형룡은 모든 현대적인 신학 사조에 반대하고 새로운 신학에 대하여 가차 없이 비평함으로써 한국의 보수신학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했으며,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도가 신학적 반성을 시작할 수 있는 테두리를 잡아 주었다. 그는 장로교 신학이 유럽의 개혁신학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그가 자유주의와 부정적인 현대신학에 대항하여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소개하고 보수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보수적인 신앙을 갖도록 기초를 닦은 사실은 높이 평가하지만, 개혁주의를 충분히 소개하지는 못했다. 즉, 그는 일반은총과 역사 의식, 문화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으며, 반지성주의적 경향을 띤 근본주의를 개혁주의적인 정통 신앙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김재준(1901-87)은 '신학의 자유'에 문을 연 인물이다. 일본의 청산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931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의 신학 사상은 이미 청산학원 시대에 바르트와 브룬너, 니버, 티리히 볼트만의 신학을 접함으로써 형성되었다. 김재준뿐만 아니라 일본에 유학한 많은 신학자들이 신정통신학을 접하고 그 영향을 받았다. 김재준은 김양선이 평하듯이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라기보다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로서 초기에는 다분히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고전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없었던 한국에서는 신정통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간주되었으며, 세월이 감에 따라 마침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김재준은 신학적 보수주의를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혹평했다: “정통신학은 신식학보다 더 교묘하게 위장한 실제적 인본주

의요 정통적 이단이다.”

나. 신사참배와 한국 교회의 시련

일제는 1919년 7월 2일 신도 종교의 조선 본산으로 남산에 조센징구라는 신사를 건설한 이후, 전국에 신사를 건립하도록 했다. 1930년 이후 군벌이 권력을 행사하면서부터는 신사참배를 한층 더 강요했다. 총독부는 전국의 학교에 학생과 교사 전원이 규칙적으로 신사 참배를 해야 한다고 시달렸고, 일본 정부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 애국적인 의례라고 주장했다. 일제의 의도는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비기독교화하는데 있었다.

일제의 해석을 바탕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목적으로 혹은 마음의 부담을 덜고 일제의 강요에 순응했다. 1919년과 1930년에만 해도 일본의 국가 신도를 종교로 규정했던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은 신사참배에 대한 일제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가톨릭 신자들이 국가의식에 참여해도 무방하다는 교지를 내렸다. 1936년 11월에는 일본의 기독교연합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했다. 한국의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회도 신사참배를 결정했다. 그러나 장로교 선교회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사참배로 인한 핍박 때문에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사상의 차이는 실제적으로 드러났다. 자유주의자들은 타협을 통한 적응의 길을 찾았고 장로교 이외의 교회와 선교회는 좀 더 현실적인 선교 사업과 기구적인 교회의 존립에 관심을 두었다. 반면에 장로교회와 그 선교회들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이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리를 따라 결정을

짓지 않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결정했다.

1938년 2월에 일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장로교회를 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해 9월까지 전국 23개 노회 가운데 17개 노회가 굴복하고 말았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제27회 총회는 일본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 아래 개최되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는 각본대로 진행되었고, 총회장 홍택기는 반대 의견은 묻지도 않고 신사참배를 가결했다. 회의가 끝나자 부총회장 김길창을 비롯하여 23명의 총대들이 평양의 신사로 직행하여 참배했다. 선교사 한부선(Bruce F. Hunt)이 총회의 결의가 불법이라고 외쳤으나 소용이 없었다. 장로교 선교사 총대들은 신사참배 지지 가결이 있는 바로 그날 오후에 신사참배 가결에 대한 항의서를 제출했다.

북에서는 평양 산정현교회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주기철 목사는 이 운동의 지도적 인물로서 1936년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마산 문창교회에 부임하기 이전 부산 초량교회를 시무할 때 이미 경남노회에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여 교계의 이목을 끌었다. 남부지방에서는 마산 문창교회에 주기철 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한 한상동 목사가 주남선 목사와 당시 전도사인 황철도와 이 인재들과 더불어 신사참배 운동을 주도했다. 1940년 일제는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검거했다. 2,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검거되었고, 그 중 70여 명의 지도적인 신자들은 장기 복역을 하다가 50여 명이 감옥에서 순교했고, 나머지는 해방과 더불어 출옥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각 가정에 신사 모형을 두도록 했고, 예배하기 전에는 일본 천황이 있는 동방을 향하여 경례하

고 전몰장병을 위한 묵도를 하며 ‘황국신민의 선서’를 제창하게 했다. 굴복한 교회는 세상 권력이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일제의 전쟁을 선전하는 연사로 부역해야만 했다. 일제는 기독교 교리적인 면까지 침식했다. 찬송가 중에 ‘왕’이라는 말은 ‘주’로 대체해야 했고, 모세 5경과 다니엘서, 요한 계시록 등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하나님의 왕적인 주권을 많이 언급한 책은 보지 못하게 했다. 교회라는 이름도 교단으로 바꾸어 부르게 했다. 교단을 통합하여 해방 직전에는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만들었고, 50여 명의 한국 목사들로 하여금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신도 사제들에게서 신도의 정결의식인 ‘미소기바라이’를 행하게 했다.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현실을 도피하는 광신자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들이 천년왕국을 믿는 신앙으로 신사참배 정책에 항거하고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에 속한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배타적이고 광신적인 메시아 신앙과는 분명 달랐다. 그들은 천년왕국 신앙의 중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에 두었다. 그들이 핍박을 이기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었다. 신사참배 반대자들은 정치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라는 전통적인 개혁주의의 견해를 취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정치 운동은 순교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방 후에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을 애국지사로 인정하고 대우했다.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인물들이 그들의 신앙 운동을 좀 더 문서화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면이다.

1930년대 중엽부터 보수측과 자유측은 상호의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충돌하기 시작했다. 쌍방은 신사참배 문제로 인한 일제의 핍박

때문에 더 급속히 결렬되고 말았다. 지도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모두 옥중에 갇혔거나 지하로 피신한 상황에서 1939년 3월 27일, 김영주, 차재명이 몇 명의 평신도의 도움을 얻어 조선신학교의 설립 기성회를 조직했고, 그 해 가을에 서울 승동교회 하층에서 개강했다. 조선신학교를 창설하고 오랫동안 교장으로서는 학교를 성장시켜 온 김재준은 조선신학교의 설립 의의를 “서양 선교사들의 지배와 보수 신학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로 ‘신학의 자유’를 구가했다.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신학자들은 주로 바르티안이었다. 바르티 신학이 신학적 자유주의로 만연한 독일에서는 ‘반자유주의’라는 기치아래 신정통주의로 향했으나, 보수정통 일색인 한국에서는 ‘반정통주의’를 표방하여 자유주의로 향하는 운동이 되고 말았다.

6. 1945년 광복을 맞이한 한국교회

가. 해방 후 정치에 대한 교회의 대응과 교회재건

해방과 독립은 남한 교회에게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북한의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북한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정당들을 조직했다. 공산 정권을 막아보려는 극한 조치였다. 정치 활동을 떠나서도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공산 정권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다. 북한의 오도 연합회는 1946년 정치와 종교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표어 아래 공산 정권과 충돌하는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갈구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해방과 더불어 일본 기독교조선교단의 이름으로 통합되었던 장로교와 감리교는 각기 본래의 교파 교회로 환원하고, 폐쇄되었던 성결교, 침례교, 안식교 등은 교회를 재건했다. 장로교의 경우 감옥에서 풀려난 약 20명의 신사 참배 반대자들은 평양 산정현교회에 모여 한국 교회의 쇄신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자숙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당시의 총회장 홍택기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였고,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생활을 했거나 은퇴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는 교회를 등에 지고 일제의 강제에 할 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 재건 운동을 비판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현실이 얼마나 어려웠건 신앙의 양심을 버린 일은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었고, 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적인 회개는 불가결한 것이었다. 한편 옥중성도들이 작성한 교회 재건의 원칙은 법조항처럼 명령문조로 짧게 쓰였으며, 신학적인 내용의 깊이가 결여되었다. 회개할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제3자인 것같이 표현되었다. 이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사고와 표현의 미숙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좀 더 고백문 형식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945년 12월 경남노회에서 노회장으로 당선된 주남선 목사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이 사람은 형무소 안에서 바깥 세상을 모르고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세월이 지나 가는 줄도 모르게 살아왔다만, 여러분은 직접 일본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자니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고 했다. 주남선

은 승리자로 자처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하여 함께 책임지는 형제로서 동료 노회원들을 대했다. 그의 겸손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의 발언 내용은 흥택기가 말한 것과 같았으나,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랐다.

북한에서는 공산 치하에서 사회의 급격한 구조 변화가 있었다. 주로 친일파에 속하는 중산층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완전히 거세당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사회적인 변혁이 없었기 때문에 친일적인 부유층이 이웃 시민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위치를 계속 보전할 수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민주주의적 기독교 정치가인 이승만의 보호 아래 보수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교회 밖의 사회가 이러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일본에 굴종했던 인물들은 별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계속 지도자로 행세했다.

나. 한국 교회의 분열

해방 후 교회는 분열의 비극을 겪었다. 감리교는 1947년 교단의 명칭을 남부총회라 했었는데, 재건파가 아닌 친일파 인물이 교단의 요직을 차지하자, 일제 때 부역한 교권주의자들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다음해에 분리되었다. 1949년 4월에 하나로 연합했으나, 1954년 류형기 감독의 재선이 불법이라 단정하는 호헌파가 분립했고, 1974년에 감독 선출 문제로 분열했다가 1978년 5월에 다시 하나가 되었다. 감리교의 분열은 주로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교권 싸움에 기인했다.

장로교의 분열은 더 경건한 신학을 명분으로 내세워 일어난 분열이라는 차이점은 있으나, 그 이면에 교권 싸움이 작용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장로교의 분열에는 교권 싸움이 더 크

게 작용했다. 한국 장로교회는 1950년도 초기에 고려파, 기장파, 총회파라는 세 분파로 분립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총회파는 1950년대 말에 이르러 통합과 합동 두 교단으로 다시 분립하였다.

1) 고려파 교단의 분립.

조선신학교가 1946년 6월 장로교 총회에서 총회 직영 신학교로 승인되자 출옥한 한상동과 주남선은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으로 교육하는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신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했다. 기성회는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잇는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만주에 체류 중인 박형룡을 교장으로 청빙하기로 하고, 경남노회의 후원을 얻어 1946년 9월 20일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개설하여 우선 박운선(1906-88)을 교장으로 세웠다. 그런데 경남노회원 가운데 교회의 재건 운동에 반대하는 이들이 고려신학교에 대하여 반대운동을 폈다. 1946년 12월 3일 경남노회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고려신학교를 인정치 않을 뿐아니라 고려신학교에 학생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한상동과 박운선이 분리주의자라는 지탄을 받는 미국 정통장로교회의 선교사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상동은 경남노회의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여 노회가 바로 설 때까지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자 노회 산하의 67개 교회가 한상동 목사를 지지하여 행동을 같이 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했다. 이러한 항의를 접한 노회는 1947년 3월 10일에 임시노회를 열어 재건 운동의 반대자인 김길창과 그의 측근자들을 노회 임원진에서 물러나게 하고 교회의 재건 원칙을 재삼 확인했다. 박형룡은 교회의 재건 운동이 노회와 총회를 기반으

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남노회도 많은 교회의 이탈을 염려하여 태도를 바꾸었으므로 한상동은 동년 12월 9일의 노회가 열리기 전에 탈퇴선언을 취소했다. 그러나 고려신학교의 진로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1948년 4월 박형룡은 교장직을 사임하고 서울로 떠났다. 박형룡이 떠나자 한국 장로교 내에서 고려신학교의 의미는 절감되었다. 그래서 1948년 9월 21일 경남노회는 다시 고려신학교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결의를 했다. 경남노회는 실질적으로 두 분파로 분열하게 되었다. 1951년 5월 21일 6·25 동란 중 부산 중앙교회에서 열린 장로교 총회는 고려파 대표를 총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이에 고려파는 따로 노회를 조직하여 경남법통노회라고 하고, 이듬해 1952년 9월에 고신측 제1회 총노회를 진주 성남교회에서 개최하고 독립 총노회를 조직했다. 고려파의 분립은 재건파 교회의 분립과는 달랐다.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음에도 다수의 결정에 따돌림을 당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고려파의 모든 목사, 장로와 설교자들은 새 노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3주 동안 자진하여 근신했다. 그러나 교회의 분열과 교회 건물의 쟁탈전을 겪으면서 처음에 표방했던 영적 회개 운동이라는 순수성을 점차 상실했다.

2) 기장과 교단의 분립.

김재준이 탄생시킨 조선신학교는 해방 이후 유일한 신학교였기 때문에 총회 직영 신학교로 인준을 얻었으나 반대하는 보수주의 목사들이 많고 그 세력이 커서 어려움을 겪었다. 1947년 4월 18일에 대구에서 열린 총회에는 51명의 ‘정통을 사랑하는 학생 일동’

이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 때가 박형룡이 만주에서 귀국하여 교장으로 부임할 즈음이었다. 박형룡이 귀국하자 서울에 있는 보수적인 목사들은 수도에 보수적인 신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1948년 6월 20일 서울 창동교회에서 장로회신학교를 시작했다. 제35회 총회는 이 신학교를 총회 직영 신학교로 인준함과 동시에 기존의 조선신학교와 병합하도록 결의했다. 두 학교의 병합에 실패하자 1951년 5월 25일 열린 총회는 양신학교를 모두 폐쇄하고 새로운 하나의 총회 직영 신학교를 설립하려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조선신학교의 총회 직영신학교임이 취소되었다는 의미였다. 1952년 4월 29일 대구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제37회 총회는 김재준을 교회에서 제명하기로 가결하고 조선신학교 졸업생은 교역자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1952년 9월 17일 조선신학교를 옹호하는 35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가 호헌대회를 열고 총회의 결의에 대해 불법이라 항의했다. 이듬해인 1953년 제38회 총회가 김재준의 목사 파면을 결의했다. 기장측의 목사 26명과 장로 26명은 총회에서 물러나 6월 10일 한국신학교 강당에서 총회를 열어 또 하나의 총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1954년에 분립한 교회의 이름을 ‘한국 기독교장로회’라고 칭했다.

3) 통합파와 합동파의 분열.

좌파와 우파가 떨어져나가고 남은 큰 몸체의 장로교회가 세계기독교연합회(WCC)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다시 갈라지게 되었다. 진보적인 기장측은 기독교 연합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기

독교회협의회(KNC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보수적인 고려파 교회는 일찍부터 기독교 연합 운동에 반대하는 입지를 분명히 했다. 1951년 22명의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세계기독교연합회는 용공적 기관’이라고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총회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더욱 반대의 견지를 취하였다. 총회와 장로교회는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리는 세계기독교연합회 회의에 3명의 대표를 파송했고, 경과보고를 받은 후에, 단지 교회의 교제와 협력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존속한다면 계속 회원으로 있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복음주의자협의회(NAE)와 세계복음주의자협의회(WEF)와 관계를 맺고 있는 보수적 목사들은 WCC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자 총회파 교회는 WCC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그룹 형성 운동이 생겼으며, 양 그룹은 서로 총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문제를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1959년 9월 28일에 대전에서 열린 제44회 총회는 두 파의 치열한 싸움으로 중단되었다. 총회는 11월 23일에 서울 승동교회에서 속개하기로 하고 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불만을 품은 회원들은 이튿날 9월 29일 서울의 연동교회에서 단독 속회를 열었다. 11월 23일 총회장 노진현이 승동교회에서 속회를 개최했을 때는 합동측만 참석했다. 연동교회에서 단독으로 속회를 열었던 통합측은 새문안교회에서 한경직의 사회로 통합 총회를 열었다.

다. 6·25 동란과 한국 교회

6·25 동란으로 교회는 큰 피해를 입었다. 9월 28일 수복시까지 낙동강을 중심으로 영남 동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남아 있던 많은 기

독교인들이 공산군에 의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납치를 당했다. 전쟁 통에 파손, 손실된 남한의 교회는 장로교가 152, 감리교 84, 성결교 27, 구세군 4개 교회였고, 기타 교파에서 입은 손해도 막심했다. 순교와 납치를 당한 이는 장로교 177명, 감리교 44명, 성결교 11명이었다. 북한에서는 공산 정권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가두거나 처형하고, 교회를 철저히 탄압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1·4 후퇴 때 대거 남한으로 피난하자 북한의 교회는 공동화 상태가 되었다.

전쟁 후에는 많은 구호물자가 교회를 통하여 들어와 전쟁으로 황폐한 나라의 빈민들과 전재민들에게 분배되었다. 기독교 이름을 내건 고아원과 자선기관이 많이 설립되어 오랜 세월 동안 봉사했다. 한국 교회를 재건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선교회의 재정적 원조였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복음 전도와 교회의 부흥에만 힘을 기울일 뿐, 극히 일부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구제하는 일을 외국의 기관과 외국 신자들의 손에 맡겨 둬으로써 구제, 봉사가 선교와 함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동란 이후에 신웅 종교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혼란스럽고 불안한 사회 환경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다. 그 가운데서 큰 세력을 이룬 것이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 나운몽의 용문산 기도원 등이었다. 이들은 미혹하는 큰 세력을 이루어 한국 교회에 큰 혼란과 손해를 안겨 주었다.

한국 장로교회는 원론적으로는 교구 교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교구 교회 제도와 같은 질서를 지켰다. 개교회의 이름도 대부분 지역의 이름을 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동란으로 인해 무너졌다. 장

로교의 분립으로 인한 교단간의 교회 쟁탈과 지역교회의 경쟁적인 난립으로 선교지 분담 원칙은 아예 무시되었다. 또 북한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피난 오는 바람에 기존의 지역교회에서는 피난 온 많은 목사와 전도사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대도시에서 주로 피난민이 모이는 교회가 서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북한에 있던 노회를 대표하는 무지역 노회가 생기면서부터 기존의 교구 교회 제도적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교구 교회 제도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서 많은 대형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7. 196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

가.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한국 교회

6·25 동안 중에 들어온 구호품과 교회 재건을 위한 후원금과 함께 새로운 교파의 선교사들도 들어와 교파 교회는 더욱 다원화되었다. 보수장로교회는 분열을 거듭하는 가운데 제각기 담을 높이며 교세 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남한의 교회는 이론적으로는 정치와 교회의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정부에 무조건 순응하고 협조하는 자세를 취했다. 교회가 무분별하게 정부에 맹목적으로 지지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이들 가운데는 기독교 윤리에 관심 있는 자유주의적이며 진보적인 신학의 배경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관여는 정부에 무조건 순응하며 동조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962년부터 ‘기독교의 토착화’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60년대 후반에 소개된 세속화 신학은 사회정의의 실현이 곧 선교의 목적이라고 했다. 1970년 이후 박정희의 유신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이 거세되고 언론이 통제당하는 정치적, 사회적인 상황에서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정치신학 혹은 해방신학을 도입하여 한국적인 상황에 부응하는 민중신학을 출범시켰다. 전쟁의 참화 후에 불안한 사회적 여건은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독교 인구뿐만 아니라 신흥 종교도 범람했다.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가난한 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초대형 교회인 오순절파 교회가 등장했고, 영락교회는 한국 최초의 대형교회로 발전하여 대교회주의와 개교회주의로 발전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나. 한국 장로교의 분파와 신학적 입지

합동파와 고려파는 1960년 12월 13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합동 총회를 열어 한상동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교회를 합동했다. 그러나 고신측 지도자들은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승동측이 점차 교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신학교의 이사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는 판단에서 재분립을 고려했고, 1963년 9월에 고신측 교회의 환원을 선언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전 고신측 교회와 지도자들은 명분 없는 재분립에 반대하고 합동한 교회에 머물렀다.

고신측이나 합동측은 모두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지향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강조했으나, 고려신학교와 고신측 교회는 네덜란드 교혁교회와 관계를 맺었고, 합동측의 총회신학교 출신들은 주로 미국 웨스트민

스터 신학교에서, 통합측 출신들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학했다. 통합측과 합동측은 1960년대에 양 교회가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어 차례 진지하게 모색했다. 1962년 통합측 교회는 합동과 연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WCC에서 탈퇴까지 했으며, 합동측 역시 같은 이유에서 NAE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그렇지만 WCC에 대한 견해 차이가 통합의 길에 다시 걸림이 되었다. 장로교 내의 분열된 교파 교회들은 교회의 그룹을 처음에는 ‘파’라고 하다가 얼마 후부터는 ‘교단’이라 지칭했다.

기장 교단은 1972년에 새로운 신앙고백 선언서를 내어놓았다. 기장 교단의 신학자들은 신학의 자유를 만끽하는 가운데 개혁신학적인 전통에서 해방되어 교파를 초월하여 새로운 신학을 추구하며 천주교의 신학자들과도 협력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까지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활동이나 저술 활동은 비교적 덜 활발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자력으로 책을 낼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의 뒷받침과 함께 상황이 달라진다.

다. 토착화 신학과 한국 기독교의 토착화

토착화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은 '기독교 사상' 1961년 12월 호에 실린 장병일의 “단군 신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창조 설화의 토착화 소고”라는 글에서였다. 유동식은 볼트만의 비신화화 사상을 토착화 이론에 적용하여 ‘토착화’를 위해서는 먼저 복음의 성질을 규명함으로써 기독교로부터 서양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바르티안으로 알려진 감리교신학교 교수 윤성범은 기독교의 토착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단군 신화에서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있는 ‘복음의 전이해’를

발견하려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바르티안 한국신학대학교 교수 전경연은 기독교의 신관과 단군 신화에는 전혀 유사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신학대학의 구약신학 교수 김정준은 토착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보았다. 이종성은 김정준과 비슷하게 문화적인 영역의 토착화를 말했다.

토착화 신학자들은 특이한 한국적인 신학을 추구한 나머지 이단적 종파 운동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비판을 피력하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이단종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기독교를 변증적으로 논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 진리를 보수하고 변증하려는 동기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교회의 신앙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까닭에 이단적인 종파 운동을 비판할 수 있는 규범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이르러 기독교 문화적인 면의 토착화가 아니고 복음의 토착화를 논하던 신학자들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토착화 신학의 종착점이 종교다원주의임을 실토한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종착점이다.

‘한국 신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교 사상이나 무속 종교의 언어로 재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한국 신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복음을 전수해 온 교회의 신학적인 전통에 대한 존중과 더 깊은 연구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의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에서 기독교를 믿고 이해하며 실천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실천의 모습을 옳게 보고 평가할 수 있다. 무의식중에 한국 특유의 것으로 토착화되고 있는 신앙과 실천의 장점과 단점을 가려냄으로써 항상 개혁하는

교회로 살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세속화 신학

세속화 신학의 논의는 본회퍼와 존 로빈슨(John Robinson), 하비 콕스(Harvie Cox) 등의 ‘세속화 신학’의 자극을 받았으며, 서남동, 유동식, 이종성, 허혁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논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사신신학이 알타이저(Thomas J. J. Altizer), 반 뷰렌(Paul van Buren), 해밀튼(William H. Hamilton), 하비 콕스와 함께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60년대 후반으로, 세속화 신학이 논의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세속화’는 신학적인 논의의 주제로 혹은 서양 신학의 경향을 소개하는 정도로 머물지 않고, 한국의 신학과 실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 본회퍼는 ‘비종교화’의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온 국민이 기독교인으로 등록된 오랜 기독교 전통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아직 선교지인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비종교화’는 기독교의 본래적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속 종교로 환원함을 의미할 뿐이다.

마. 복음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신학

복음주의는 성경을 비평하는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보수적인 신앙을 통틀어 칭하는 말로도 통용되지만, 복음주의가 가졌던 함축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즉 복음주의는 교파를 초월하여 선교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므로 더 신령주의적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총에 주로 관심을 두며, 구원을 위한 인

간의 자의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알미니우스주의적인 견해도 수용한다. 한국 복음주의자협의회(NAE)는 1952년에 조직되었다. NAE는 반 WCC 운동을 벌이며, 1955년 8월에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에 가입했다. 1972년에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결성되었고, ‘엑스플로 74’ 이후 복음주의 운동이 서서히 확산되었다.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는 복음주의 문서 운동이 활발해졌다.

1960년대의 급변하는 사회 상황이 ‘허탈 상태’에 빠져 있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알맞은 시기로 알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1965년을 복음화 운동의 해로 정하여 초교파적인 조직을 갖추어 전도 운동을 추진했다. 여러 교파와 교단으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 운동을 범교단적으로 연합하여 추진한 것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다. ‘복음화’ 운동 추진위원회는 계속 대형 집회를 통한 전도 운동을 기획했다. 1973년에는 빌리 그레이엄을 초청해서 전국 전도 집회를 열었고, 74년에는 ‘엑스플로 74’라는 대전도 집회가 열렸다. 1980년에도 종전의 기록을 대폭 갱신하는 대형 집회가 ‘80 세계 복음화 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연인원 1천 700만이 참석한 이 대회는 기독교 역사상 미증유의 대집회였으며, 한국 기독교의 교세를 과시한 집회였다. 복음화 운동은 대규모 전도대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 단체들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바. 분열된 한국 교회의 연합 운동

1970년대 중반부터 제3단계의 장로교 분열이 일어났다. 합동측이 속한 많은 지도자들이 개혁을 외치면서 분립하는 바람에,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견잡을 수 없는 연쇄적인 분열이라는 진통을 겪었다. 교회

의 분열로 인해 신학교가 난립하고, 신학 교육이 부실해졌다. 경쟁관계에 있는 교회들은 대교회를 지향하게 되었고, 개교회주의가 팽배하게 되었고, ‘지역 사회 교회’의 성격을 상실했다. 한국 교회의 분열, 특히 장로교회의 분열에서 지방 패권주의 또는 교권주의가 그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가장 큰 요인은 교회의 분열을 정당화해주는 분리주의적인 ‘교회관’이었다.

1980년대 말에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KNCC)를 결성했다. KNCC는 WCC의 노선을 따라 사회, 문화, 정치에 관심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민주화 인권 운동에 앞장섰고, 1980년 이후부터는 남북통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은 1989년 신구약 성경으로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한국의 기독교 여러 교단과 연합 기관, 건전한 교계 지도자들의 협력 기관임을 지향한다는 설립 취지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관심과 실천 노력에 있어서는 KNCC와 비슷하지만, KNCC가 개신교 교단을 넘어서서 가톨릭과 정교회와의 일치를 도모하거나 WCC의 하나님의 선교 정책이나 종교다원주의 노선을 따르는 점에서 한기총과 KNCC의 신학적인 근거는 크게 다르다.

KNCC와 한기총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선교와 사회봉사 사업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 등을 함으로써 교회 연합에는 도움이 되지만, 분열된 교단들의 일치를 도모하는 기관은 되지 못한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 운동에 신학적인 연구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장로회신학회가 결성되어 2002년 6월 첫 모임을 가졌다. 교회 분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신학교의 문제이며, 분리한 상태를 그

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방편이 또한 신학교다. 따라서 교단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그 길을 진정으로 모색한다면 먼저 신학교의 다원화를 인정해야 한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분열된 한국 교회가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과제이지만 기독교의 정체성을 와해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교리를 덮어둔 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WCC의 초교파적 보편주의 선교신학은 ‘초종교적’인 보편주의로, 즉 종교다원주의로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탈기독교적인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용납될 수 없다.

사. 이단들의 준동

한국 교회의 분열, 특히 한국 장로교회의 무분별한 분열이 이단들에게 분열된 교단들의 틈새에서 정통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로 위장하고 서식할 수 있는 온상을 제공해 왔다. 한국 교회는 그 점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한국의 이단들이 자신들을 위장하기 위하여 가장 선호하는 이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며, 다음으로 ‘침례회’라고 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모든 신흥 종교를 사이비 종교로 볼 수 있는 법적 기준도 없는데다가 기독교의 전통적인 진리와 이단의 가르침을 세상의 법으로는 가릴 수가 없으므로 한국 교회가 이단의 발호에 직접 대처하거나 중세 교회와 같이 종교 재판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교회가 연합적으로 이단들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교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지침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단들도 성경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므로 교회들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성경 공부만 할 것이 아니고 각자의 신앙고백에 충실을 기하는 교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

초기 한국 교회는 1900년대 초에 간도와 연해주에 사는 교포들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1910년대 후반에 중국인 선교를 위해 중국 산동성과 상해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일제의 탄압과 6·25 동란으로 선교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한국 교회는 1976년부터 다시 해외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국 선교사들의 활동 무대는 1979년 말 26개국에서 1990년 말 89개국, 2002년 말 164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의 세계 선교에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 곧 교세 확장을 위한 상호 경쟁과 개교회주의적인 문제점들이 투영되어 있다. 선교 시책의 원리적인 통일성 결여 문제와 상호 협력이 부족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8.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가. 한국 교회의 현실과 전망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사에서 유례없는 극심한 교회 분열이다. 분열로 인해 생긴 개교회주의 교회는 설립에서부터 자본주의 체제의 기업의 생리를 닮게 마련이어서 치열한 경쟁을 치른다. 또 개교회주의 교회는 대교회를 지향하며 아무런 상회의 지지를 받지 않고 그 자체가 최종 권위를 갖는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는 대부분 카리

스마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데, 그럴 경우 그는 작은 교황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독재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으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개교회들이 많으면 교계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뚜렷한 명분 없이 분립하는 장로교회의 교단은 개혁신학의 전통을 찾고,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가운데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연합이라도 해야 하며 개혁신학을 공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초대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힘썼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선교만을 지상 과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바람에 교회의 확장을 위한 일은 모두 정당하게 여겨왔다. 그럼으로써 구제에는 인색한 균형을 잃은 교회로 자라왔다. 그러므로 사회의 눈에는 교회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사회에 환원할 줄 모르고, 자기 비대화만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 운동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사 운동은 초자연적인 세계와 기적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복 신앙을 부추긴다. 영혼 구원만을 강조하고 육적인 생명과 실제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은 신자들의 윤리의식이 결여되게 한다. 설교자는 마땅히 신자들의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만큼 교회 밖에서의 신앙적이며 윤리적인 일상생활도 강조해야 한다.

한국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것이 옳게 정착하고 발전하지는 못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신앙에는 근본주의와 세대주의 혹은 경건주의적 신앙이 뒤섞여 융해되어 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과 종말론에 대한 편중된 관심,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의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국가에 구속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등 잘못된 역사관과 구원관,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과 연속성 및 통일성에 대한 이해의 결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객관적인 교리에 대한 설교보다는 믿음과 체험과 열심을 다하는 교회 봉사 생활을 강조하는 설교에 치중하는 등 설교 주제 선택의 불균형, 율법주의의 성향, 일반은총에 대한 이해 부족, 반지성주의 경향,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의 결여 등은 개혁신학의 신학의 전통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점들이다.

한국 교회에 눈에 띄게 부족한 것은 사회성과 윤리성이다. 사회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외면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본래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 교회가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경외하며 교회에 관심을 갖는다. 한국 교회는 대중의 영입에 급급한 나머지 중세적인 교회로 퇴보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따라 스스로 개혁하며,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교회로 발전해야 한다. 교회가 이제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발돋움할 시기다. 한국 교회는 이제 자체의 존립에 집착해야 하는 소수인의 종교 집단이 아니고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을 인식해야 한다. 초보적인 선교적 차원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기보다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묻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상의 문화건설이나 이상사회 건설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한다.

교회사반 교재

초판발행 2020. 2. 7
지 은 이 한국컴퓨터선교회 제공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국제신학교는 대안예수교장로의 개역총회에서 인준한 신학교로서 목회학석사 졸업자는 강도사교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국제신학교는 1년 4학기 운영되고 있으며 신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국제신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며 국제성경연구원의 회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www.wslseminary.org(한국어 버전 있음)

● 문의: 손에스디목사(010-3909-8844)

● 접수처: www.wslseminary.org/apply_kor.html

● 이메일: mail@wslseminary.org